

천년의 수도 베이징에서 새천년을 그리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천 년의 수도 베이징에서 새천년을 그리다

사랑방의  
젊은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2, 천년의  
수도 베이징에서 새천년을 그리다 [전자자료] /  
편저자: 하영선. --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16  
전자책 책

권말부록수록  
ISBN 979-11-86226-87-2 05300 : 비매품

여행기[旅行記]  
베이징[北京]

981.202-KDC6  
915.104-DDC23 CIP2016010252

---

##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2

천년의 수도 베이징에서 새천년을 그리다

편저자 | 하영선  
발행자 | 하영선  
발행처 | (재)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 | 2016년 4월 21일

편집 | 최수이, 조가희  
디자인 | 신영환, 박현성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전화 | 02-2277-1683 (대표)  
팩스 | 02-2277-1684  
홈페이지 | [www.eai.or.kr](http://www.eai.or.kr)  
등록 | 제2-3612호(2002. 10. 7)

ISBN 979-11-86226-87-2 05300

비매품

---

목차

\*\*\*\*\*

머리말		004
답사일정표		007
서공과 소식이 읽어주는 고려도경 이야기 _국가박물관	① 이주원	009
유리창과 홍대용, 꿈같던 세 번의 만남 _유리창	② 김민걸	045
자금성 속 숨은 조선 찾기 _자금성	③ 오승희	075
영광과 비극의 300년을 노래하다 _원명원	④ 김유정	099
서태후가 살아 숨쉬는 이 곳 _이화원	⑤ 김선경	137
마오쩌둥의 시체정치학 _마오쩌둥 기념당	⑥ 신보람	165
베이징 불교상(佛教像)이 들려주는 이야기 _베이징수도박물관	⑦ 이재성	189
798에서 중국의 미래를 읽는 7가지 이야기 _798 예술구	⑧ 4기 일동	209
부록		235

## 머리말

베이징에서의 2박 3일은 바빴다.

한 학기 동안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라는 집중 세미나를 마치고 현장답사에 나섰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살아온 3천년 간의 동아시아 질서의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현장 체험하고 내일을 내다보기 위해서였다.

새로 단장한 국가박물관에서 한국과 중국의 생생한 삶터였던 천하질서의 대표적 유물들을 만났고, 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를 잘 이룬 베이징 수도박물관에서 천년 수도의 역사와 함께 중국이 자랑하는 불상과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정치의 중심이었던 자금성과 문화의 거리였던 유리창에서는 한국과 조선의 역사적 만남을 새롭게 되돌아 볼 기회를 가졌다. 자금성이 웅장한 모습으로 건축된 700년 전의 명대 초, 머나 먼 중국까지 끌려와 비극적 삶을 살아야 했던 조선 궁녀들의 슬픈 얘기에 관한 답사 보고를 들으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금성을 돌아봤다. 그리고 사랑방 젊은이들은 18세기 조선의 선각 지식인 홍대용의 연행에 관한 답사 보고의 도움을 받아 청조의 천하 지식질서가 유리창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체험했다.

19세기 동아시아의 전통 천하질서와 서양의 근대 국제질서가 만나면서 겪었던 현장 모습을 보기 위해 원명원과 이화원을 찾았다. 19세기 중반 2차 아편전쟁에서 불타고 파괴된 채 누워있는 서양루를 원명원에서 돌아보고, 청조 말 풍운의 여인이었던 서태후가 여름 별장으로 지었던 이화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현대 중국을 상징하는 마오쩌둥의 시신이 잠자고 있는 그의 기념관을 찾았다. 세월이 갈수록 참배객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마오쩌둥의 역사적 공과를 다시 한번 토론했다. 밤에는 휘황한 왕푸징 거리를 걸으면서 시진핑의 오늘을 함께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중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 798 예술구를 들렀다. 오늘의 현실은 어제의 삶과 내일의 꿈속에서 태어난다. 중국의 꿈을 상징하는 798 예술구의 전체 풍경은 외롭게 서 있는 북한 만수대창작사 베이징 지사를 멀리 뒤로하고 훌쩍 앞서가고 있었지만, 아직 21세기 현대 미술의 첨단에 서서 창조적 실험을 하고 있는 다국적 화랑들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었다. 내일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의 박성우 기자가 답사 일정 전체를 밀착 취재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야까지 계속됐던 사랑방 토론에도 빠짐없이 참가해 한 식구가 됐다. 감사하다. 집중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백혜영 국장과 동아시아연구원 식구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늘 함께 했다. 고맙다. 이번 답사도 동아시아연구원의 여성 후원모임인 W1°의 재정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

2016년 4월 19일

만청 하영선(晩靑 河英善)

## 답사 일정표

###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09:45	도착
11:00 - 12:00	점심식사
12:20 - 14:30	국가박물관 / 이주원★
16:10 - 17:00	자금성 / 오승희★
17:30 - 19:30	저녁식사
19:30 -	왕푸징 거리, 천안문 광장

### 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09:00 - 11:30	수도박물관 / 이재성★
11:30 - 12:30	점심식사
13:00 - 15:00	연명원 / 김유정★
15:00 - 16:00	이화원 / 김선경★
17:00 - 19:00	저녁식사
19:00 - 22:00	유리창, 친구단 / 김민걸★



2014년 12월 28일 일요일

09:30 - 12:00      마오기념당 / 신보람★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798예술구 / 4기 일동★

17:30 -              귀국



## **EAI 사랑방**

2013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 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서공과 소식이 읽어주는 고려도경 이야기

## \_국가박물관

이주원

고려대학교

### 이것만은 알고 가자!

- ◆ 위 차: 베이징 시 동성구(東城區) 동장안가(東長安街) 16 호(천안문광장 天安門廣場 동쪽)
- ◆ 개관 시간: 9:00-17:00(발권은 당일 15:30 까지, 입장은 16:00 까지) 매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
- ◆ 입 장: 여권을 지참하여, 서문 쪽 무료관람권 발급센터에서 발권  
특별기획전의 경우 북문 쪽 유료관람권 판매센터에서 관람권 구입(10 원).
- ◆ 전시현황: 고대 중국전, 중국 고대 청동 예술전, 중국 고대 불상 예술전, 중국 고대 옥기 예술, 중국 고대 화폐, 박물관 소장 현대미술작품전, “부흥의 길,” 아프리카 조각상 전 등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값진 유물 및 예술품을 관람할 수 있다.

## 들어가며

2014 년 12 월 26 일, 서울 을지로 4 가에 자리한 사랑방 사람들이 세계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넓히기 위해 베이징으로 떠납니다. 인천국제공항 발 오전 8 시 30 분 비행기. 이른 아침에 나오느라 다들 피곤할 만도 한데, 답사가 기대되는지

<sup>1</sup> 베이징 국가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nmuseum.cn/> (검색일: 2015. 1. 21).

설렌 기색입니다. 그렇게 신나서 비행기에 오르는데, 멀리서 백혜영 팀장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발표 누구야?” 아, 맞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덕분에 비행기 안에서 답사 보고서를 보며 계속 연습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베이징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진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국가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들른 휘귀(火锅) 식당에서 국수 사리를 길게 늘이는 막간 공연. 그러나 계속해서 국수 사리가 땅에 끌리는 바람에 몇 번이나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능숙한 점원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걸 보니, 우리 사랑방 식구들 기가 세기는 센 모양입니다.

다양한 유적과 관광명소가 자리한 베이징. 그 중에서도 중국 8000 여 년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놓은 국가박물관은 아무래도 그 의미가 더하는 곳입니다. 특히 박물관 지하 1 층에 자리하고 있는 고대 중국관은 구석기 시대부터 청대(清代)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사의 조각조각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답사 발표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둘러볼 곳도 바로 이 고대 중국관입니다. 특히, 시간

순서대로 전시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방에서 배웠던 천하질서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랑방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송대(宋代)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박물관을 조금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당시 인물들을 저희 연극에 초대해보았습니다. 국가박물관에 소장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1123)의 저자 서공(徐兢)과 그가 고려에서 실제로 만났던 김부식(金富軾), 그리고 이들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송대 문인 소동파(蘇東坡)를 직접 우리가 만나보는 형식으로 연극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잠들어있는 국가박물관의 여러 유물들을 깨워 저희가 사랑방에서 배운 천하질서의 면면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만남의 현장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연극

**배경:** 베이징 국가박물관, 고려 개경

**일시:** 2014년 12월 26일 오후 2시, 1123년 6월 13일

**인물:** 서공, 소식, 김부식, 주원, 재성, 승희, 민걸, 선경, 유정, 보람, 박기자, 김피디, 백팀장, 하쌤

### # 1 프롤로그

**주원:** (혼신의 힘을 담아) 얍! (연기와 함께 평 하는 소리가 들린다.

연기 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형태가 드러난다. 서공이다. 원래

제대로 초흔이 되었다면 눈, 코, 입, 수염 등이 완벽해야 하나  
그저 뿌연 형체만이 있다.)

서궁: 으음……

주원: (나타난 것에 놀라며) 앗! 서궁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 그러니까 옛 고려인 후예들이 사는 한국에서 온 주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2014 년……그러니까 선생님 달력으로  
하면, 선화(宣和) 1016 년이네요. (민망한 듯 웃는다) 여기는 베이  
징에 답사 차 온 저희 사랑방 식구들이예요. (사랑방 식구들을  
바라보며) 이 분은 선화봉사고려도경의 저자이신 서궁 선생님이  
세요.<sup>2</sup> 북송 말기, 남송 초기에 문학지사 출신의 관료로 활동하

---

<sup>2</sup> 현재 서궁의 선화봉사고려도경을 옮긴 책으로는 조동영 감수, 민족문화추진  
회에서 번역한 《고려도경》(서궁 2005), 은몽하(殷夢霞), 우호(宇浩) 편, 김한  
규가 번역한 《사조선록 역주》 제 1 권(서궁 2012)이 대표적이다. 본 답사  
보고서는 김한규 본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조동영 본도 참고하였다. 김한규  
가 번역한 《사조선록》에는 고려시대를 다룬 고려도경 이외에도, 명 사신  
의 조선 사행록 예겸(倪謙), 봉사조선창화집(奉使朝鮮倡和集); 조선기사(朝鮮紀  
事); 요해편(遼海編); 장영(張寧), 보안당정정방주선생봉사록(寶顏堂訂正方洲先生  
奉使錄); 동월(董越), 조선부(朝鮮賦); 조선잡지(朝鮮雜誌); 공용경(龔用卿), 사조  
선록(使朝鮮錄); 주지번(朱之蕃), 봉사조선고(奉使朝鮮稿); 강알광(姜曰廣) 유헌  
기사(輪軒紀事), 청대의 기록으로 아극돈(阿克敦), ‘동유집’(東游集); 백준(柏俊),  
봉사조선역정일기(奉使朝鮮驛程日記); 괴령(魁齡), 동사기사시략(東使紀事詩略)  
마건충(馬建忠), 동행삼록(東行三錄); 승례(崇禮), 봉사조선일기(奉使朝鮮日記)등  
이 수록되어있다. 참고문헌에 밝혀둔다.

셨구요. 서 선생님은 송 휘종(徽宗) 선화(宣和) 5년(1123년; 고려  
仁宗 원년) 제할관(提轄官)으로 고려에 다녀간 뒤에 그 기행문이라  
할 고려도경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하셨어요(서궁 2012, 5).  
아쉽게도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요. 선생님, 저  
희가 베이징 국가박물관을 돌아볼 예정인데 혹시 무례가 안 된  
다면 같이 동행하시면서 소개해주실 수 있으세요? (웃으며) 오  
랜만에 바깥 공기도 좀 췌시면서요.

**서궁:** (따뜻한 눈으로) 벌써 내 고려에 다녀온 지 1000년이 지났단  
말인가…… 허허, 내 고려에 방문했을 제 그곳 사람들이 참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지. 내 이번에 그 때의 예우를 갚는 뜻에서  
기꺼이 동행토록 하겠네.

**사랑방 식구들:** 고맙습니다!

**서궁:** 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살던 당대 최고의 천재 한  
분과 같이 가도록 하지. 그러면 내가 미처 잘 모르는 것들도  
능히 알려줄 수 있을 걸세. (희미한 형체가 빠르게 휘감기더니  
또 하나의 구름 비슷한 것이 생겨난다) 인사하게. 흔히  
동파거사(東坡居士)라고 불리는 사람일세. 아! 외지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걸 깜빡했군 그려. 허허…… 동파,  
인사하게. 고려인 후예들이 우리 박물관에 답사를 왔다네.

**소식:** (내려보며) 고려인들이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  
어안이 병병한 사랑방 식구들)

서궁: 거참, 이봐! 동파선생! 무례를 용서하게. 저러고는 이따가 돌아올걸세. 허허, 참. 내 동파가 왜 저러는지는 가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지. 자, 이쪽으로 들어들 오시게나.

## #2 고대중국 전시관: 구석기 ~ 신석기

서궁: (자랑스러운 듯) 이 고대 중국 전시관에는 인류 태고의 원인(原人)부터 내 후손들인 청나라 사람들까지 남기고 간 자취들이 모두 보존되어있다네. 지금 우리는 중하(中夏)의 물결의 시작점에 와 있는 것이지.



▲ 베이징 국가박물관 고대중국 전시관 신석기- 인면어문채도분(人面魚纹彩陶盆)

물고기 문양과 사람 얼굴이 그려진 그릇일세.<sup>3</sup> 기원전 5000 년경 양샤오(仰韶) 문명 사람들의 흔적이지. 사람의 얼굴을

<sup>3</sup> <http://en.chnmuseum.cn/tabid/566/Default.aspx> (검색일: 2014. 12. 10)



좀 보시게. 두 물고기의 머리로 입을 나타냈고, 여기 귀도 작은 물고기로 나타내었어. 머리에 뾰족한 삼각형은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아닌가 하는데, 이는 곧 인어를 형상화한 것이라네. 이 지역 사람들이 물고기를 신격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이지. 물고기와 사람의 형상을 합쳐놓은 상상력이 대단하지 않은가? (뿌듯해한다) 다음으로는 옥으로 만든 용을 살펴보시게나.



▲ 베이징 국가박물관 고대중국 전시관 신석기 - 옥용(玉龍)

부드러운 곡선과 끝을 날카롭게 세공한 세련됨이 일품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용의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 그 몸체는 다른 여러 동물들을 합쳐놓은 것인데, 그 모양새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가? 당시 사람들의 물질적·정신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유물로서 가치가 높는데,

특히 “중국의 첫 번째 용”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네.  
(빠져있는 사랑방 식구들을 바라보며) 어어, 자네들, 그런  
속도로 보다가는 이 전시관 끝에도 못 다다를 걸세! 이제  
나의 선조들이 처음으로 국가를 건설했던 때로 가보자구!

### # 3 고대중국 전시관: 하은주(夏殷周) 대\_하늘이 열리다



▲ 베이징 국가박물관 고대 청동기 전시관 - 대우정(大盂鼎)

**재성:** (흠칫 하며) 어? 이걸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아  
뭐더라? 아! 이거 사랑방 수업할 때 본 거예요!

**서궁:** (끄덕이며) 그럴 가치가 있는 물건이지. 대우정(大盂鼎)이라고  
불리는 이 제사용 솥은 여섯 개의 뿔이 달린 동물의 얼굴을  
조각해 놓았고, 밑바닥에는 구름과 번개 문양으로 장식해  
놓았다네. 그런데 이 솥은 그 외형보다도, 이것이 지닌 고고학적,

역사적 중요성 덕분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지.  
(기대하면서) 누구 들어본 바가 있는가?

**승희:**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면서) 사랑방에서 선생님이 일러 주신 대로 조금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초기에 등장한 한자의 형태인 갑골문자를 보면 이미 이 때 천(天)이란 글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때의 ‘천’은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자연적 하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죠. 이 대우정 안쪽에 새겨진 291 자에서 우리는 중화사상의 본유라고 할 수 있는 천명(天命)의 개념을 발견하게 돼요. 그대로 읊으면 “문왕이 천령을 받았다. 무왕이 문왕의 대를 이어 나라를 건설하고 나쁜 무리를 제거해서 사방을 영유했다.”는 것이죠. 결국 중국이 위치한 방(邦)은 하늘의 뜻을 받은 땅이며, 그를 둘러싼 사방(四方)과 구별됐다는 점에서 화이사상(華夷思想)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하영선 2012).

**민걸:** (경상도 사투리가 남아 있다) 수업 때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이건 마치 모델 하우스와도 같은 거예요. 왜 2014 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3500 년도 더 된 이 제사 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동아시아 세계를 정의하던 천하질서(天下秩序)의 원형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은주 시대를 시작으로, 진한수당의 강력한 통일국가 시대, 송요금원의 분열된 시대, 그리고 다시 사대의 질서가 회귀하는 명청 기에 이르는 동아시아 질서의 건축사를 살펴왔습

니다. 그 건축의 모델하우스가 바로 제가 보고 있는 대우정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부상한다는 21 세기, 그 질서를 들여다보고 우리 나름의 설계도를 그려볼 작은 출발도 이 그릇과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하영선 2014)

**서궁:** (놀라며) 역시나! 내가 천여 년 전에 고려인들을 보면서 놀랐던 기분을 또다시 들게 하는 구만. 그 말 그대로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하늘, 그리하여 서쪽에서 이양선(異樣船)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천년 이상 지속된 하늘 앞에서 서 있는 것이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 최초의 천명(天命)을 보여주는 대우정 앞의 사랑방 식구들

#### # 4 고대중국 전시관: 진한(秦漢)대\_하나의 하늘 아래

(진한을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이동 중에 만 스물 다섯 동갑내기 유정과 선경이 나머지를 한참 앞질러 나간다)

**주원:** (따라잡으며) 누나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까 휘귀 너무 많이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유정:** 야~ (특유의 느릿느릿하고 조곤조곤한 말투로) 아니야. 그냥 얼른 가서 궁금한 걸 보고 싶었을 뿐이야. 아까 하은주 시대를 지나면서 천하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 출발은 중국 국내에서 서주(西周)와 번국(藩國)을 조공책봉(朝貢冊封)의 관계로 연결한 거였고. 그런데 그것이 정벌(征伐)-기미(羈縻)-회유(懷柔)-사대(事大)라는 매트릭스를 통해 동아시아 전반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바로 진한수당 시대 아니겠어? (하영선 2014)

**선경:** (프랑스 유학생의 엘레강스를 풍기며) 그래, 맞아!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sup>4</sup> (서공의 위치를 살핀다) 꼭 중국의 하늘만 하늘인 거야? 우리 나라만 예를 들어도 시조라 불리는 단군도 천제(天帝)의 후손이잖아. 나는 이 시기 동아시아 역사를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서술하는 데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야. 물론 그 때의 기록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 중국 측의 기록이고, 진한수당부터는 중국의 통일국가가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강력해진 것은 사실이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

<sup>4</sup> 실제로 사랑방 수업 중에 했던 질문입니다.

중국이 ‘주변’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차지하고 있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뒤에서 재성이가 어느 새 다가와서 엿듣고 있었다)

**재성:** (소리친다) 제 생각도 그래요!

**유정, 선경:** (놀란다) 깜짝이야!

**재성:** 흐흐…… 저도 누나의 생각과 비슷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인지 니시지마와 호리의 이야기가 와 닿더라고요. 니시지마는 조공책봉체제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도 주변국들이 처한 조건들이 제 각기 달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체제를 받아들인 후에도 각자 조건에 맞추어서 개별적인 역사를 전개해갔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죠(니시지마 2008). 호리 역시 조공이라는 질서를 생각해낸 것은 중국인들이지만, 그것을 현실화한 것은 중심에서의 작용만이 아니라 중심과 연결하려는 주변의 요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었어요(호리 2007). 저는 이들의 동아시아 세계론의 시각이 페어뱅크 류의 천하체계론(Chinese World Order)이 놓치는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때, 서궁이 다가온다)

**서궁:** 흠, 그렇게 생각했던 말이지? (재성, 놀란다) 다 들었네, 내가 괜히 유령인 줄 아냐? (웃음) 괜찮네. 내가 그리 딱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 시기 중원이 강력한 단일 왕조 아래 통일되면서, 발달한 문물들을 먼저 보지 않겠나? 아마 그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채회안어청동강등(彩繪雁魚青銅缸灯)

먼저 이 등을 보게나. 거위가 물고기를 베어 문 모양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장식이 감탄을 자아내게 하네. 놀라운 것은 이 디자인 안에 숨겨진 실용성일세. 물고기 모양의 등잔에서 불을 피우면 그 위로 연기와 검댕이 올라간다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니까, 식은 연기와 검댕은 거위의 입과 긴 목

을 지나서 마침내 물이 가득 찬 거위 뱃속으로 녹아버리지. 이쪽은 유명하지? 진시황의 병마용, 그리고 한나라 때의 금실로 짠 옥수의(玉壽衣)라네. 어때, 정치적으로도 강력했고 문화적으로도 꽃을 피웠던 진한시대의 왕조의 모습이 좀 그려지나?

주원: (거위 모양의 등을 보는데, 마치 아이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21세기 미국과 이 시기 중국이 겹쳐 보이는 것 같다.)



▲ 베이징 국가박물관 고대중국 전시관 진(秦)대 - 도용(陶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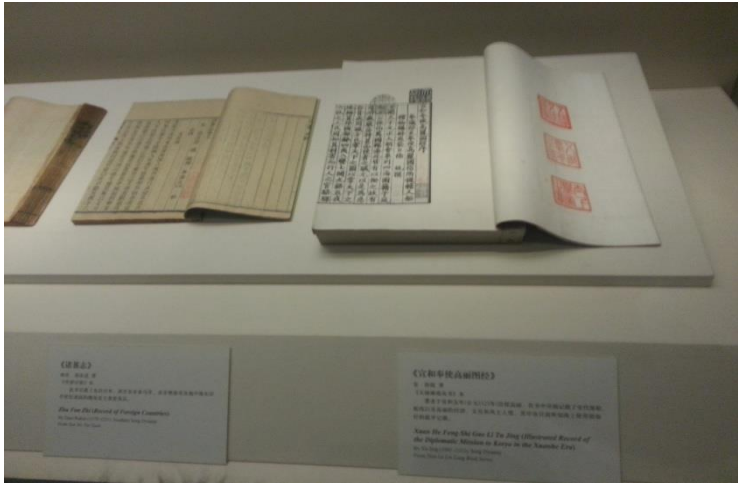
▲ 베이징 국가박물관 고대중국 전시관 진(秦)대 - 금류옥의(金缕玉衣)

## # 5 고대중국 전시관: 송(宋)대

(일행이 진한수당 전시관을 지나 송대로 들어서자, 소식이 한 구석에서 물끄러미 뉘가를 바라보고 있다. 일행, 다가간다.)

서궁: 동파, 무엇을 보고 있나? (보더니) 아, 내가 쓴 고려도경이로군. 안 그래도 이제 내가 쓴 책을 이들에게 소개해주려는 참이었네만. 참, 아직 소개를 못했지? 자, 인사들 하시게. 자네들도 잘 알 걸세. 송대가 낳은 대표적인 천재인 동파거사일세. 그의 문장이 워낙 유명해서, (웃으며) 물론 당시에는 내가 말을 걸 짬도 못 되었던 사람이었지. 고려인 중에서도 글을 깨나 하는 경우에는 동파를 숭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네.





▲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재성:** 맞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동아시아 전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엑소(EXO)쯤 되려나요? 한반도에서 나타났던 시와 이야기를 묶어 정리했던 조선의 학자 서거정은 당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고려의 문사(文士)들은 오로지 소동파를 숭상하여 급제(及第)한 방문(榜文)이 매번 나오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서른 세 명의 소동파가 나왔다’고 하였다”고(서거정 2000, 90).

**소식:**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 에헴. (애써 체면을 차리며) 이보게 서공, 저들은 그래 봤자 동쪽의 오랑캐들(東夷)에 지나지 않네. 중화(中華)의 은덕(恩德)을 배신하고 거란의 앞잡이 노릇을 한 놈들인데 저들과 무슨 예(禮)와 의(義)를 논하겠다는 말인가.

**서궁:** (웃으며) 아무래도 이제 내가 당시 고려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온 것 같군. 아마, 동파선생 역시 연배가 나보다 조금 높기에<sup>5</sup> 내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없었을 걸세. 자, 나를 따라오시게. (일동, 빙글빙글 돌면서 서궁의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 # 6 1123 년 고려의 수도 개경

### 왕궁 북쪽으로 약 10 리 거리의 순천관(順天館)<sup>6</sup>

**젊은 서궁:** 제 이름은 서궁. 고려에는 정사 노윤적(路允迪)을 따라 외교 사절 자격으로 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망망대해를 건너 이곳까지 오게 된 건 선화 5 년(1123)에 고려에서 사신이 와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다는 요청이 온 후였죠(서궁 2012, 343). 당시 우리 송의 황제였던 휘종(徽宗)이 이에 당시 송나라에서 글을 깨나 쓴다는 사람을 모으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모으는 등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오죽하면, 황제가 이번 사절을 파견하기 위해 '고금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배를 두 척이나 새로 지었겠어요. 익조의 머리가 조각된 뱃머리, 비단으로 만든 돛 등 황화의 위세를 밝게 드날리고자 하였지요(서궁 2012, 284-285).

아, 그럼 왜 이렇게 고려에 공을 들였냐고요? 잠깐 당시의 국제정세를 돌아볼게요. 제가 고려에 방문 한 것이 1123 년이고,

---

<sup>5</sup> 소식: 1037 년~1101 년, 서궁: 1091 년~1153 년

<sup>6</sup> 당시 사절단의 처소

돌아와서 고려도경을 지은 것이 다음 해. 그리고 새롭게 발흥하던 후금에 의해 요나라가 멸망한 것이 바로 그 다음 해인 1125년,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북송이 멸망하는 것이 다시 2년 후인 1127년이에요.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죠? 이 시기는 굉장히 변혁기였던 셈이죠. 이러한 복잡하고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송나라는 고려를 포섭해서 요나라를 견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이익주 외 2010; 김한규 2012). 송 휘종 황제가 고려 인종에게 내린 조서를 보면,

“고려국왕 왕해(王諧)여, 멀리서 듣기에 나라를 이어받아 매우 삼가며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 잘 계승한 초기라 믿어 의심치 않으니, 왕통을 잇는 데 대한 바람을 이루도록 힘써라. [...] 마땅히 왕령(王靈)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제후의 법도를 영구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 이 조서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바를 응당 잘 이해하리라 생각한다.”(서공 2012, 234-235).

“응당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 참 무겁지 않나요? 마치 문장가들과 책, 귀한 선물들을 당근으로, 위세를 부린 배와 황제의 조서를 채찍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려 개정에 도착했습니다. 예로부터 유현(輿軒)을 타고 방국(邦國)에 사신으로 가는 자는 도적(圖籍)을 우선 해야 할 일로 삼는다 했으니, 이제 제 본분은

고려란 나라를 하나하나 유심히 들여다 보는 것이겠지요(서궁 2012, 53-54).

저에게 비친 고려, 그리고 송은 마치 서로 절절히 사랑하는 연인과도 같아 보였어요. 제가 접수한 문서에 따르면, 고려의 왕이 신료들과 연회를 열 적에도 송의 황제들이 지은 조칙과 서화를 받들어 걸어두고 반드시 절한 후에야 술 한 잔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듯 중국의 기풍을 기꺼이 흡모했다 하지요(서궁 2012, 104-105). 이는 이하 신료와 일반 백성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신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저희가 한 곳에 머물렀다가 떠난다고 할 때는 진심으로 섭섭해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요(서궁 2012, 206).

방문한 선화 사절단에 대한 예우도 각별했습니다. 왕을 시위하는 사람이 단 둘뿐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 중 한 사람을 내어 주기도 했으며(서궁 2012, 141), 심지어 저희가 머물렀던 공간은 왕의 거처보다 더 화려하고 사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서궁 2012, 247). 또한, 고려인은 홍색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국왕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방문하자 (청색 비단으로)가려, 아마도 성조(聖朝, 송을 가리킴)를 공손하게 따르고 사절에게는 (천자만이 사용하는 황색을) 겸손하게 회피하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서궁 2012, 136). 그 행동 하나 하나가 저에게는 실질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모두 두텁고 아름답게 비쳤습니다(서궁 2012, 232).

물론 그렇다고 고려와 송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향토 풍속을 버리지 못하여, 송의 예법에 차마 미치지 못하기도 한 반면, 어떤 것은 송보다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서공 2012, 208). 저를 감탄케 한 것들은 쌀을 쌓는 방법(섬으로 쌓아 공기를 통하게 하여 몇 해가 지나도 썩지 않음),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기물과 의복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섬세하고 치밀한 나전(螺鈿) 솜씨였습니다(서공 2012, 169, 195-196, 220). 그 중에서도 역시 일품은 고려 청자였는데, 우리 송나라 사람들도 고려 청자를 아주 좋아하여 주요 수입품으로 삼았습니다(방병선 2012).

산예출향(狻猊出香)도 비색인데, 위에는 옹크린 짐승이 있고 아래에서는 위로 향한 연꽃이 그것을 받들고 있다. 여러 기물 가운데서도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절묘하다(서공 2012, 273).

하지만 그림에도 이와 같은 차이는 “중국의 땅만 하더라도 내와 골이 다르면 관습과 풍속도 각각 다르니 모두 같아질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물며 만이(蠻夷)의 지경은 해외에 있으니, 그 관습과 풍속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정도일 것입니다(서공 2012, 208).

이렇듯 고려는 송과 떼어낼래야 떨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고려가 곧 송과의 조공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가 거란에게 붙은 것은 그 군사적

힘에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지 성조를 섬기는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마치 금속이나 돌처럼 견고하였습니다. 이제 거란이 멸망하였으니, 고려는 곧 다시 사신을 보내어 책봉을 청할 것입니다(서궁 2012, 322-323).

**소식:** (날카로운 눈을 하고 짧은 서궁을 노려본다.) 하지만, 그 때 자네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나. 결국 고려는 상중(喪中)임을 핑계 삼아 말을 돌리기만 할 뿐, 우리 나라에 조공의 예를 갖추려 오지는 않았네(정인지 2009). 이 때는 이미 내가 죽은 후의 일이지만, 나는 그들이 필시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 이미 오래 전 예상했었소.

첫째, 고려가 비록 우리의 문물을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해외의 오랑캐가 아니겠는가. 이들의 천성은 탐욕스러우니 가까이 두면 추후에 반드시 우환거리가 됨이네(류종목 2002, 82). 둘째, 고려와 조공관계를 갖는 것이 도무지 쓸모가 없기 때문일세. 그들이 바치는 공물은 모두 노리개 같은 쓸데 없는 물건인 데 반하여 우리가 지출하는 경비는 모두 창고에 쌓아두었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요, 백성들의 고혈(膏血)이 아닌가. 게다가 고려에서 온 사신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과 말과 기물을 차출하고 시장에서 소동을 피우고 관사(官舍)를 수선하니 백성들이 표시도 없이 많은 힘을 쓰게 할 뿐이네(류종목 2002, 71). 셋째로, 지금의 고려는 거란의 앞잡이와 다름이 없기 때문일세. 고려는 거란의 힘에 억눌려 신하국과도

같은 처지인데, 고려가 이렇게 자주 사신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염탐하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까닭에 나는 고려 사신들이 왔을 때 역지를 부려서라도 서적과 그림 등을 가져가는 것을 막았던 것일세(류종목 2002, 71). 마지막으로, 고려는 명분상 의리를 흠모하여 입공한다고 표방하지만 사실은 이익을 위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요. 거란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어찌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겠는가?(류종목 2002, 71)

**보람:** 마치 소식 선생님의 말씀이 사랑방 강의에서 들었던 로사비의 논지를 떠올리게 하네요. 로사비는 9 세기 당의 멸망 이후부터 13 세기 몽고의 등장까지 중국은 ‘동등한 국가 중 하나’(China among Equals)였고, 서구처럼 다국체제(multi-state system)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어요(Rossabi 1983; 윤영인 2005; 김성규 2010; 이익주 외 2010). 이 시기는 문화보다, 정치·군사적인 세력균형의 논리에 의해 국가들 관계가 규정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서궁 선생님이 어찌면 고려와 송의 관계를 지나치게 정치·문화적 조공체제의 틀로만 바라보신 것은 아닐까요?

[표 1] 서궁과 소식의 고려 인식 비교

	서궁	소식
고려	제후국(통질적)	오랑개(이질적)
고려-송 관계	긍정적/유용함	부정적/무용함
고려-거란 관계	무력에 의한 강제성: 동기에 주목	거란의 국가이익에 봉사: 결과에 주목
고려의 대송 외교 동기	의리	이익

**소식:** (한숨을 쉬며) 결국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진족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가 되어서야,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된 걸세. 어사(御使) 호순척(湖舜陟)이 “고려가 과거에 거란을 섬겼으므로 지금은 반드시 금나라를 섬길 터인데, 그 글이 우리의 사정을 정탐하여 (金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려의 사행을) 중지시켜 오지 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할 때, 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알겠는가 (김미연 2012, 242).

**젊은 서궁:** (난처해하며) 이것 참……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대로 한 점 부끄럼 없게 글과 그림을 지었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여기 고려 사람에게 물어보시지 그러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친해진 분을 부르지요. 저희가 6 월 6 일 고려의 강역인 군산도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중 나와 친분을 좀 쌓았습니다. 아, 저기 얼굴이 검고 눈이 튀어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듣기로는 고려 사람 중에 학문이 넓고 박식하기로는 이 사람만한 자가 없다 했습니다(서궁 2012, 129-130). 저 사람입니다, 동접반(同接伴) 선생! 아 참, 동파 선생님, 저 고려 관리도 선생님과 이름이 같습니다. 이름이 식(軾), 김부식(金富軾)이라고 합니다.

**사랑방 일동:** (놀라며) 네? 그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저자 김부식이요?



(젊은 서궁에게 사정 설명을 전해 듣는다. 김부식, 자신의 후손들이 온 것에 반가워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난처해한다.)

**김부식:** 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나, 대체로 내가 송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걸세(김지용, 2002). 나는 송에 1116 년, 1126 년 두 번 사신으로 방문했는데(김미연 2012, 228), 그 때 내가 지어 송 황제에게 올린 시문들을 보면,

앞드려 생각하옵건데, 저희 나라 임금이 선업(先業)을 계승하여 봉지(封地)를 지키는 직책을 가졌으니, […] 이에 사신으로 뽑히어 궐정(闕廷)에 조공을 바치자니 절(節)을 들고 길을 떠나 이미 풍파의 위험을 겪었고, 배를 매고 언덕을 향하니 장차 천일(天田)의 빛을 우러러 뵈게 되었사옵니다. […] 그옥이 수고로운 몸을 맞아 주시는 근념(勤念)을 입어, 더위잡고 의탁하는 다행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바랄 것이 없는 동시에 어찌 다 감사함을 아뢰오리까(김지용 2002, 243).

이러한 사모의 마음은 그저 자연히 생긴 것은 아니고, 송조가 나에게 보여준 은덕 때문이었네.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송 휘종의 예모전에서 연화를 베푼 연회장에서 특별히 초대를 받았던가, 우리 일행에게만 경령궁(景靈宮)과 태묘(太廟) 및 남교

(南郊)의 3 대 제례에 참석하면서 외부 사신 중 유일하게 법복을 내어준 것은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김지용 2002, 138, 143).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고려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기도 했어. 나는 고려가 일개 야만국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송조에게 올리는 표문 등에 우리 사신단의 깊은 학문을 보여주려 했네(김지용 2002, 135). 그것이 문장으로 고려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던 나를 송으로 파견한 이유이기도 했고 말이지. 게다가 내가 그 송을 사모하는 마음에 국제정세를 읽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지는 않았다네. 아무리 송을 마음 속으로 품고 있었다고는 하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묘사직이 걸린 문제에는 냉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송에 사신으로 갔을 때는, 송에서 우리 사신 일행을 후금(後金)의 공격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며 수도에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네. 나는 이때 송의 국운이 기운 것을 깨달았다네. 그리고 귀국해서는 송과 호응하자는 의견에 반대했지(김종서 외 2004, 649).

즉, 비록 고려 스스로가 송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송 역시 고려에게 그러했는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냉엄한 국제 질서의 현실에서 번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 그럼에도 송과 고려의 관계를 일반적인 국가나 민족과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걸세. 서궁이 이야기했듯이, 사대의 예로 이어진 두 나라의 관계는 분명 특별한 것이었으니.

**민결:** 청대를 맡은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미 명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송명멸청(崇明滅淸)을 외쳤으니까요. 어쩌면 이는 최근 활발해진 김부식의 재평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김부식을 주로 지극한 사대주의자로 보아왔지만,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이러한 모습은 충분히 재조명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sup>7</sup>

## # 7 고대중국 전시관\_왕도와 패도, 사대와 자주를 고민하다

(다시 베이징의 국가박물관으로 돌아온다)

**서궁:** 나와 함께 한 시간여행 어땠는가? 하하, 머리만 더 아파졌다고?  
11 세기의 국제관계, 특히 전통천하질서에 관해 떠오른 의문들을 부디 잘 간직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시대를 당시의 상황에 가깝게 해석해주게나. 이는 비단 나와 동파선생, 김부식 선생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송과 고려, 그리고 그 시대

---

<sup>7</sup> 사대주의적이라고 흔히 평가 받아왔던 삼국사기에서도 자주적인 색깔을 여실히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 본기 10 에는 “그러나 처음과 끝을 보면, 위아래가 화합하고 못사람이 화목할 때는 비록 대국이라도 빼앗을 수 없었다.”(김부식 2009). 또한 삼국사기 권 49 열전 9 에서는 “남생·현성은 비록 당 황실에서는 명성이 있었지만,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이들을 말하자면, 반역자(叛人)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부식 2009).

국제질서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준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

**주원:** 어쩌면 선생님들이 사셨던 그 시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용희 선생님은 사대의 관념으로 예치(禮治)와 패도(霸道) 두 가지를 들었죠. 패도는 《묵자》(墨子)와 《한비자》(韓非子)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적 힘에 의한 관계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힘의 강약에서 오는 국가간의 관계는 현실 관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데올로기로 승화(昇華)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역으로 말하자면 유가는 이러한 현실을 자기들의 왕도사상(王道思想)으로 일단 부정(否定)하고, 그것을 다시 고차적인 예법의 관념으로 승화시켜 국제질서의 가치 기준으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하겠죠(이용희 1977, 150-151). 어쩌면 중국의 송대, 한국의 고려시대는 이 예치와 패도가 절묘하게 섞여 작동하던 시대였을 것 같아요. 마치,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처럼 말이죠.

**소식:**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니 못내 아쉬운 듯) 뭐, 내가 살던 때나 지금이나 고려인들은 배우기를 좋아하는구만. 모쪼록 몸 조심해서 먼 길 돌아가도록 하게. 뱃길이 험하네.

**박기자:** 요즘에는 비행기라고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서궁 & 소식:** (기절초풍하며) 뭐라, 날아다니한다고?

## #8 에필로그

(사랑방 일동,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한다)

**하썸:** (손짓과 함께 부른다) 이 군, 자네가 발표한 송대라는 시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해질 걸세. 21 세기에 중국이 다시 한 번 떠오르면서 동쪽의 무대가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쪽이 생각하고 발전시켜왔던 국제정치학만으로 이쪽을 설명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것이야. 지금까지는 서양과 직접적으로 만났던 청대, 아니면 서양의 세력균형론으로 설명하기 용이한 전국시대 등이 조명 받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다른 역사적 시기들도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갈 걸세. 특히 송나라를 로사비 식으로 동등한 나라들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서양의 전형적인 시야라고 한다면, 자네가 만났던 서궁이라는 사람의 시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 않나. 이 군, 고려도경의 마지막 부분이 기억나는가?

**주원:**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도통 떠오르질 않는다) 아니요……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하썸:**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동문(同門), 즉 고려와 송이 본래 같은 속이라는 게야. 그런 의미에서 고려도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들여다보려면 마지막부터 읽어야 하는지도 몰라. 동문, 이 두 글자가 그게 바로 서궁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그 때 이번 답사를 조율하는 김피디의 목소리가 들린다)

**김피디:** (의욕적으로) 사진 이쪽에서 찍어야 잘 나올 것 같아요! 다들 이쪽으로!

**백팀장:** 아이, 애들아, 조금 더 선생님 옆으로 붙어야지! 에이, 조금 더 친한 척 좀 해봐라, 좀 웃고! (사랑방 사람들, 아직 첫날 발표라서 그런지 어색하다. 하지만 원래 백팀장의 이야기에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설득력이 있다.) 그래! 스킨십 좋고, 이제 좀 낫네. 자, 찍습니다!

**김피디:** (힘차게) 자, 하나 둘 셋!



## 나오면서

저희 사랑방 네 번째 식구들이 준비한 연극 잘 보셨나요? 먼저, 국가박물관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만나면서 중국의

천하질서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았습니다. 특히, 고대 청동기 전시관의 대우정과의 만남은 중국의 천(天)의 의미를 전해주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대로 넘어오면서는 역사 속 인물들인 서궁, 소식, 김부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송과 고려를 포함한 이 시기의 국제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약 천 년 전 요동하는 국제정세 속에 고려를 방문했던 서궁의 이야기는, 모두가 ‘동등한 나라들’이었다고 여겨지는 시대에도, 잔잔히 맥동하고 있던 하나의 천하를 느껴볼 수 있게 합니다.

제가 몇 권의 송대에 관한 생생한 기록을 통해 보았던 것은 송과의 문화적·정서적인 유대감을 공유하면서도, 그렇다고 서로를 하나의 끈으로 묶는 것에는 주저하였던 고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요즘 들어 유행하는 말인, 연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저 남도 아니라는 ‘썸’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정치학적이거나 분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서궁이 고려의 기록을 전할 때 느껴지는 따뜻한 시선과, 고려 왕과 김부식이 송나라에게 갖췄던 예절에서 엿보이는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박물관에 흐르는 생생한 시간의 물줄기는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

##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자!

**민결:** 일반적인 보고서와는 달리, 현장답사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을 등장시킨 각본 형식으로 쓰여서 읽는 이의 입장에서 흥미로웠습니다. 발제 이전에 식사하면서 생긴 재밌는 일화를 간략히 설명한 도입 부분도 재밌었고요.

**보람:** (웃으며) 사실 주원씨 기행문이 제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pragmatic 이냐 ideology 냐의 문제에서 두 가지가 겹쳐지지 않는 세계관을 주장한 서공이 고려에 대해 오판을 하게 되고, 반대로 고려는 이 두 가지를 유연하게 이용하여 실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요지의 글인 거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서론으로는 pragmatic 과 ideology 의 이해의 변화와 간극이 생기는 과정을 고대에서부터 살펴본 것이고요 (내가 맞게 이해했나요? 머리를 긁적이며). 그리고 이 간극 속에서 변방과 중심의 행동 범위가 규정될 수도 있다라는 논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아닐 수도 있고요……).

**유정:** 누대를 이어온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인 만큼, 지금까지 방문했던 어떤 박물관보다도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던 곳입니다. 특히 형형색색의 독특한 유물들이 많았던 점이 국가박물관의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삼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한 색과 특이한 형태를 지닌 유물들 하나하나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적 발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 역사와 광활한 영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국가박물관은 중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 번 방문해볼 만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라는 공간의 속성 상 그 나라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가박물관은 중국이 얼마나 자국의 역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수많은 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전시 규모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문명대국’으로서 새로운 힘을 가지려고 할 때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풍부한 역사적 기반을 어떠한 21 세기적인 파워로 승화시키지는 또 다른 상상력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분명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승희:** 서궁-소식-김부식을 통해 당시 송나라와 고려의 썬타는 관계를 잡아냈네요~뿐만 아니라 한 학기 동안의 수업

내용도 잘 담겨져 있어 놀랐습니다. 이번 베이징 답사 팀의 면모를 반영한 주원이의 예리한 분석이 담긴 시나리오에 감탄! 시나리오를 잘 소화해 낸 팀원들에게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재성:** 국가박물관으로 이동하는 길에 주원이 형이 저에게 “재성아, 네가 대사 몇 개 더 읽어줘야겠다” 라고 말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반강제적(?)인 부탁에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워낙 연극에 소질이 없는지라...주원이 형이 국가박물관에서 연극 형식으로 재미있게 설명해줘서 흥미로웠고 연극 도중에 박물관 직원분께서 거센 눈초리로 쳐다보았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경:**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와서 첫 발표라 피곤하고 떨렸을 텐데도 차분하게 국가박물관의 곳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주원이의 발표가 기억에 남아요(주원이 답사보고서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첫발표의 부담감과 떨리는 마음이 정말 공감됐고 글 전체가 연극형식으로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원이가 물어나는 글이에요~

## 참고문헌

- 권재현. 2009. “고려도경’……中 황제에 보고된 12 세기 고려의 초상”  
〈동아일보〉. 10 월 9 일.  
<http://news.donga.com/Total/3//20050318/8170578/1> (검색일:  
2014. 12. 09).
- 김미연. 2012. “『고려도경(高麗圖經)』 「인물(人物)」 조(條)를 통해 본 인종  
초 정국의 일면.” 〈역사교육논집〉 48: 221-248.
- 김부식. 2009. “卷第二十二 高句麗本紀 第十.” 《삼국사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g\\_022r\\_0020\\_06  
20](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g_022r_0020_0620) (검색일: 2016.03.08)
- \_\_\_\_\_. 2009. “卷第四十九 列傳 第九.” 《삼국사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g\\_049r\\_0050\\_00  
70](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g_049r_0050_0070) (검색일:2016.03.08)
- 김종서 외. 민족문화추진회 역. 2004. 《신편 고려사절요 상》 서울: 신서원.
- 김지용. 2002. 《雷川 金富軾과 그의 詩文》. 서울: 明文堂.
- 김한규. 2011. 《사조선록(使朝鮮錄) 연구: 송(宋), 명(明), 청(淸) 시대 조  
선 사행록(使行錄)의 사료적 가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니시지마 사다오. 송완범 역. 2008. 《일본의 고대사 인식:  
‘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서울: 역사비평사.
- 류종목. 2002. “蘇軾과 高麗.” 〈中國文學〉 38: 67-90.
- 방병선. 2013. “고려청자의 중국 전래와 도자사적 영향.” 〈강좌미술사〉  
40: 13-38.

베이징 국가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nmuseum.cn/> (검색일: 2014. 1. 21).

서거정. 2000. 《(譯註) 四佳名著選: 東人詩話 · 筆苑雜記 · 滑稽傳》. 서울: 以會文化社.

서궁(徐兢). 2012. 《사조선록 역주 1, 宋使의 高麗 使行錄》. 서울: 소명출판.

윤영인. 2005.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 <만주연구>  
3 권: 43-59.

이용희. 1977. 《한국민족주의》. 서울: 서문당.

이익주·김병준·김창석·윤영인·계승범·구범진·배경한. 2010.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제언과 모색》. 서울: 동북아역사  
재단.

정인지. 2009. “券 15 世家 15 仁宗 元年 6 月.” 《고려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kr\\_015r\\_0030\\_0060](http://db.history.go.kr/id/kr_015r_0030_0060) (검색일: 2016. 3. 9)

최준석. 2012. “조선 다녀간 중국 사신들의 기록 詩 300 수 주거니  
받거니 ‘倡和외교’ 생생.” <주간조선>. 3 월 26 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C09&n  
NewsNumb=002199100029](http://week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C09&nNewsNumb=002199100029).

하영선 선생님 강의록. 2014.

[http://www.hayoungsun.net/panelView.asp?code=ys\\_meet1&  
dx=360&id=meet1&page=1](http://www.hayoungsun.net/panelView.asp?code=ys_meet1&idx=360&id=meet1&page=1) (검색일: 2014. 12. 10).

호리 도시카즈. 정병준·이원석·채지혜 역. 2012.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중화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Fairbank, John K.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Indiana University. "Inscriptional Records of the Western Zhou."  
Accessed December 10, 2014.

[http://www.indiana.edu/~g380/3.10-WZhou\\_Bronzes-2010.pdf](http://www.indiana.edu/~g380/3.10-WZhou_Bronzes-2010.pdf)

Rossabi, Morris.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u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추가 참고문헌

동월(董越), 공용경(龔用卿). 2012. 《사조선록 역주 3, 明使의 朝鮮 使行錄 2》. 서울: 소명출판.

아극돈(阿克敦) · 백준(柏葭) · 괴령(魁齡) · 마건충(馬建忠) · 승례(崇禮).  
2012. 《사조선록 역주. 5, 淸使의 朝鮮 使行錄》. 서울: 소명출판.

예겸(倪謙), 장영(張寧). 2012. 《사조선록 역주 2, 明使의 朝鮮 使行錄 1》.  
서울: 소명출판.

주지번(朱之蕃), 강왈광(姜曰廣). 2012. 《사조선록 역주. 4, 明使의 朝鮮 使行錄 3》. 서울: 소명출판.



# 유리창과 홍대용, 꿈같던 세 번의 만남

## \_유리창(琉璃厂)

김민걸

한양대학교

### 이것만은 알고 가자!

- ◆ 위 치: 北京市 西城区 南新华街
- ◆ 개관 시간: 1 일 24 시간(개별 상점의 영업시간은 각각 다름)
- ◆ 휴 무: 연중무휴(개별 상점의 휴무일은 각각 다름)
- ◆ 요 금: 별도의 입장료는 없음
- ◆ 가는 방법: 버스 이용 시 6, 102, 106, 109, 603 번 탑승 이후 유리창 정류장 하차  
지하철 이용 시 2 호선 허핑먼(和平门)역 하차

## 들어가며

2014 년 12 월 26 일 오후 5 시경, 국가박물관을 나서며 베이징과 첫 만남이 이루어진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선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다음날 저녁에 예정되었던 유리창 문화로(琉璃廠 文化路) 방문이 당일 저녁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국가박물관에서 유리창으로 향하는 차 안, 머릿속에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낙관론과 ‘매를 먼저 맞으면 더 아프다.’라는 비관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간신히 자료집을 꺼내 찬찬히 발제문을 읽으면서 복잡해지는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다가오는 만남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에서 서로 800m 남짓한 길가 일대에 100 개 정도의 서점과 화랑이 밀집한 유리창 거리. 약 250 년 전 그곳을 거닐었던 담헌 홍대용(湛軒 洪大容, 1731~1783)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기록과 다녔던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그의 꿈과 삶을 헤아려야 했기에 더욱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만 했습니다. 유리창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사랑방 현장 답사 팀을 이끌고 유리창 동로와 서로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기념비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에 우두커니 서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기념비 옆에서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니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한층 차분해진 마음으로 1766 년 유리창과 홍대용의 만남에 주목하게 된 연유를 생각하며 2014 년 베이징과 사랑방의 두 번째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 18 세기 유리창과 홍대용의 만남을 추적하며

오늘날 중국 베이징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유리창은 원래 원.명나라 때 국영 가마터가 건설되어 황궁에서 사용하는 유리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베이징 관광국 2014). 천자(天子)로 추앙 받던 중국 황제가 거주하는 신성한 공간에서 쓰이는 물품을 제조하는 공간이었던



큼, 이 공장에서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기와를 구울 때면 더구나 금기하는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속 기술자라 하더라도 모두 닉 달치의 먹을 식량을 갖고 들어가되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사행록 역사 여행 2014). 동아시아 천하질서를 관장하던 고대 중국의 첨단 제조업이 결집된 유리창은 ‘강건치세’(康乾治世)라고 불리는 청의 전성기에 골동품을 판매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특히 건륭제가 중국판 백과전서인 사고전서(四庫全書)를 만들면서 각지의 서적상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점 또는 책방을 만들면서 유리창은 한족 관원과 재야 문인 등 당대 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모여드는 지식공간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베이징 관광국 2014). 18 세기 청을 방문했던 조선 연행사들 역시 중원을 관통하는 지식의 용광로와 같은 유리창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대량의 서적을 국내로 들여와 조선이 급변하는 천하의 지식질서로부터 동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홍대용은 18 세기 북학파의 대표적 실학자로서 주자학의 교조적인 경직성으로 질식해가던 조선 사회에 숨통을 트이게 했던 최고(最古)의 선각자였습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태어난 홍대용은 열두 살의 이른 나이에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10 년 이상 고학(古學)을 공부하다가, 20 대에 고향으로 돌아와 자명종과 혼천의를 제작하고 천문관측소를 세우는 등 천문학에 관심을 쏟았습니다(실학박물관 2014). 당시 조선의 정치·경제·문화·지식 질서를 장악하고 있던 사대부들의 절대다수가 16 세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벌인 이기론(理氣論)의 패러

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추상적인 논쟁에 갇혀있었던 것이 18 세기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홍대용은 18 세기 조선 정치권력의 핵심부에 진출하지 못했던 아웃사이드(outsider)였지만, 산업혁명에 힘입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서구식 근대 과학의 도움 없이도 지구자전설과 우주무한설을 주장했던 아웃라이어(outlier)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리창 동로와 서로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북경유리창'(北京琉璃廠) 기념비

유리창에 다녀온 이후 홍대용이 남긴 연행 기록에는 소중화 사상과 북벌론이 지배하는 18 세기 후반 조선의 전통지식 질서에 도전하여 서양의 자연과학과 북학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실학자가 지녔던 '새로움'과 '앎'을 향한 열정이 온전히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홍대용이 품은 열정은 누군가와의 '만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한계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번 현장 답사를 위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곱씹어보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여 홍대용의 체험을 최대한 실감나게 그려내는 작

업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움’과 ‘얹’을 중심으로 18 세기 유리창 일대에서 이루어진 홍대용과 서양 신부 유송령, 중국 황족 양흔, 중국 선비 엄성과의 만남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의 만남을 극적인 순간을 기준으로 각각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눠서 재구성한 각 본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서울의 인사동 거리만한 유리창에 깃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 서점과 화랑이 즐비한 유리창 거리

## 꿈같던 첫 번째 만남\_천주당에서 서양 신부 유송령을 만나다

### 장면 #1. 유리창에 도착하여 천주당으로 향하는 홍대용

1766년 1월 9일 홍대용은 진귀한 서양 물건이 가득하기로 유명한 천주당을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진심을 담은 편지와 예물로 신부의 허락을 얻음으로써 여행사의 숙소에서 가장 가까웠던 남당(南堂)으로 향합니다(정민 2014, 204). 천주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내내 홍대용은 경성을 떠나 북경에 이르는 지난 두 달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가 코끝을 찡하게 하는 작년 11월 초에 홍대용은 그의 안녕을 기원하는 가족과 친지를 뒤로하고 북경 여행 길에 올랐습니다. 발걸음을 내딛을수록 작아지는 한양의 도성과 함께 고향은 점점 멀어지고, 조선과 청의 경계인 압록강 건너편 요동 벌판 너머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이역(異域)이 다가옵니다. 홍대용에게 익숙함과 헤어짐과 낯섦과의 만남은 곧 그가 오랫동안 품었을 중국 여행에 대한 동경과 기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보지 못하니

남아의 의기 쟁영(崢嶸)함을 저버렸도다.

미호(迷糊)한 굽이에 고기 낚는 배가 적으니

홀로 도롱이를 입고 이 인생을 웃노라(홍대용 2001, 19).

조선 중기의 뛰어난 유학자였던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 1651~1708)이 중국 여행을 다녀와서 훗날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겼다는 이 한 편의 시를 접한 이후로 홍대용은 농암 선생이 말한 그 ‘넓음’을 보는 것을 평생에 이를 ‘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갈망으로 틈틈이 역관으로부터 한어(漢語)를 배우고 간간히 중국의 정세를 챙겼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홍대용은 산해관의 관리장성에 올라 다시 한 번 농암 선생의 시를 읊으면서 흥금을 헤쳤습니다.

농암 선생이 남긴 시를 읊으며 여행에 오르게 된 자신의 마음이 짐을 되돌아보던 홍대용은 이내 현실로 돌아와 북경에 도착하여 여독을 풀 이후에 첫 방문지로 천주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되뇌어 봅니다. 홍대용은 농암 선생의 동생으로 17 세기를 대표하던 조선 유학자로서 중국 여행을 다녀왔던 노가재 김창업(老稼齋 金昌業, 1658~1722)이 쓴 《연행일기》(燕行日記)를 떠올렸습니다. 노가재 선생이 여행록을 남긴 이후로 천주당은 조선 여행사가 반드시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는데, 그곳에는 저만치 멀리 있는 별을 요만치 가까이 있는 콩처럼 보이게 해주는 안경과 네모 낱고 기다란 말뚝을 밟으면 소리가 나는 악기 등 진귀한 서양 물건을 볼 수 있다는 기록이 조선 사신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사행록 역사 여행 2014). 노가재 선생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천주당은 청을 넘어선 저 너머의 ‘새로움’과 ‘얹’을 품은 장소일 것이라고 홍대용은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 홍대용은 부모님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고학을 공부하기 위해

스승을 찾아 고향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의 의혹과 무관심 속에서도 자명종과 혼천의를 만들고 관측소를 세웠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꼭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겠다.” 농암과 노가재 형제의 여행 이후에 천주당에서 제멋대로 물건을 만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대는 등 조선 사신들의 무례함에 질려버린 예수회 신부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성스레, 그리고 간절하게 편지와 예물을 준비하던 홍대용이 몇 번이고 되뇌었던 바입니다(정민 2014, 203-204).

## 장면 #2. 소통의 장벽에 갇혀버린 홍대용과 유송령의 만남

숙소를 떠난 내내 상념에 젖어있던 홍대용은 천주당 남당의 뽀족한 상단이 눈에 들어오자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서양식 그림으로 가득한 바람벽으로 둘러싸인 천주당 건물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행과 함께 남당 안으로 들어간 홍대용은 풍부한 색감의 서양화를 둘러보며 진짜 사람으로 착각할 만한 생동감에 홀린 듯 넋을 잃게 됩니다. 남당을 관리하는 신부들이 들어온다는 일행의 기별에 정신을 차린 홍대용은 그들을 공손히 맞으러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서양인치고는 키가 작고 몸집이 둥근 두 명의 신부가 예를 갖춘 홍대용 일행의 인사에 정중히 답례하면서 들어옵니다. 훗날 홍대용은 여행록에 천주당 신부들의 첫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송령은 나이가 예순둘이고, 포우관은 나이가 예순넷이었다. 유송령은 양람(亮瀾, 암청색) 정자를 붙였으니 종 2 품 벼슬이었고, 포우

관은 암백(暗白, 회색) 징자를 붙였으니 6 품 벼슬이었다. 그러므로 송령이 나이가 적음에도 우관의 위에 앉았다. 두 사람이 다 머리를 깎고 온몸에 호복(胡服)을 하였다. 중국 사람과 분별이 있고 나이가 많아 수염과 머리가 세었으나 얼굴은 젊은이의 기색이었으며, 두 눈이 깊고 맹렬하여 노란 눈동자의 이상한 정신이 사람을 쏘는 듯하였다 (홍대용 2001. 160).



▲ 서양 화법의 그림을 상당수 취급하는 화랑 '현연당'(賢燕堂)

“비록 뇌물과도 같은 예물을 찢어주기는 했지만 조선 사신들이 범한 무례를 용서하고 홍대용 일행의 천주당 방문을 허락한 대인(大人)들에게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첫 만남에서 유송령과 포우관 두 신부로부터 웬지 모르게 ‘노란 눈동자의 이상한 정신’으로 표현된 이질감을 느낀 홍대용은 낯선 이들과 처음 대면

한 이들이 흔히 느끼는 데면데면함으로 알고 넘기려 했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난생 처음 만난 이역만리의 서양인들이니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추슬렀습니다. 첫 만남의 멋쩍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홍대용은 통역으로 따라온 홍명복을 시켜 유송령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바가 많아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짧은 한어로 유송령의 고향이 청에서 얼마나 멀고, 유송령이 청에 온 지 얼마나 되고, 유송령이 한자를 아는 지 등 사소한 얘기를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정민 2014, 216).

김빠진 대화가 지속되는 데 맥이 빠질 찰나에, 유송령이 중국 황실이 관장하는 흠천감(欽天監, 중국 명·청 때 설치된 국립천문대)의 총책임자인 흠천감정(欽天監正)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홍대용은 소통이 어렵더라도 대화를 이어나갈 명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홍대용이 기운을 차리는 것을 눈치 챈 홍명복은 일행 중 함께 온 서운관(書雲觀, 조선 시대의 천문 담당 관청) 관원 이덕성을 가리키며 그가 유송령에게 천문 관측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홍대용의 주된 관심이 천문학이었으니 이를 빌미로 유송령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심산이었는데, 이덕성이 한어를 할 줄 몰라 그러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게 다행이었고, 유송령이 정중히 그 제안을 거절한 것 또한 다행이었습니다. 홍대용은 자연스레 대화의 주제가 옮겨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홍명복을 통해서 그가 청춘을 바쳐 매달린 천문학 연구의 결정체인 《의산문답》(醫山問答)의 우주무한설을 유송령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운행하는 것은 지구가 도는 것과 그 형세가 한가지이므로 나누어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구는 9 만 리의 둘레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 속도가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다. 저 하늘의 별들은 지구에서 겨우 반지름만큼 떨어져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천만 억의 거리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별들 밖에는 또 별들이 있다. 하늘에는 끝이 없어 별들 역시 무궁무진하며, 하늘의 둘레를 말하자면 한량없이 멀다. 하루에 도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 천동변개나 포탄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정교한 역법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고 제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다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늘만 운행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음은 여러 말이 필요 없다(홍대용 2008, 70-71).

### **장면 #3. 파이프오르간으로 조선 가락을 연주하는 홍대용**

홍명복의 재치 덕분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홍대용은 이극고 유송령의 답변을 듣고는 역시나 하는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홍명복이 그의 과학 사상을 제대로 알아듣고 뜻을 정확히 전달할 거라고 과신한 홍대용의 잘못이 컸습니다. 홍대용과 유송령 간의 언어적 장벽을 논하기 이전에, 홍대용과 홍명복 간의 지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겨우 홍명복을 이해시키고 유송령에게 말을 전달해도, 그가 홍대용의 우주론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송령과 홍명복의 소통은 언어·지적 이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홍대용-홍명복-

유송령 사이에 얽힌 대화의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천문학자 사이에 끼여서 치였을 홍대용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홍대용은 유송령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천주당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뜻도 모를 긴 대화에 다소 지쳤을 유송령이 선뜻 자처해서 홍대용 일행을 인도했습니다. 홍대용은 이전에 노가재 선생의 연행록을 읽으면서 ‘새로움’과 ‘앓’을 품었으리라고 기대했던 천주당과의 만남이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에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감이 천주당 곳곳에서 눈에 띄는 머리를 풀어헤친 서양인의 그림이 유송령을 처음 만나면서 느낀 ‘노란 눈동자의 이상한 정신’을 떠올리게 하면서 불쾌감으로 바뀌어 갈려던 찰나였습니다. 홍대용의 눈에 건물 내부 벽에 의지하여 만든 높은 누각의 난간 안에 놓여있는 기이한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개 이 악기의 제도는 바람을 빌려 소리를 나게 하는데, 바람을 빌리는 법은 풀무 제도와 같았다. 그 고동은 오직 동쪽 틀에 있으니, 자루를 누르면 가죽이 차차 퍼져서 어느 구석의 구멍이 절로 열려 함께 바람을 틀 안에 가득히 넣은 후에, 자루를 놓아 바람을 밀면 들어오던 구멍이 절로 막히고 통 밑을 향하여 맹렬히 밀어댄다. 통 밑에 비록 각각 구멍이 있으나 또한 조그만 더테를 만들어 단단히 막은 까닭에, 말뚝을 눌러 틀 안에 고동을 쫓기어 구멍이 열린 후에야 비로소 바람이 통하여 소리를 이루고, 소리의 청탁고저는

각각 통의 대소장단(大小長短)에 따라 음률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틀 속은 비록 열어보지 못하였으나 길으로 보아도 그 대강의 제작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유송령을 향하여 그 소리 나는 곡절을 형용하여 이르니, 유송령이 웃으며 맞는 말이라고 하였다(홍대용 2001, 165).

서양인들이 숭배하는 천주(天主), 즉 하느님에게 제사할 때 연주하는 풍류라는 유송령의 설명을 듣는 순간, 홍대용은 노가재 선생의 연행록에서 읽은 진귀한 서양 악기를 떠올립니다. '나는 그것을 꼭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겠다.'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부탁에 난색을 표하는 유송령에게 몇 차례나 청하면서 홍대용은 수 차례 되뇌었습니다. 결국 승낙을 얻어 직접 악기에 올라가 홍대용이 연주한 조선 가락. 낯선 만남에 당황하고 뜻대로 풀리지 않은 대화에 모두가 지친 하루였지만 그 가락을 듣는 유송령과 홍명복을 비롯한 조선 연행사 일행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직접 가락을 연주하는 홍대용의 입가에도 말입니다.

## 꿈같던 두 번째 만남\_진가의 상점에서 중국 황족 양훈을 만나다

### 장면 #1. 유리창 일대 상점에서 양훈을 만나는 홍대용

1766년 1월 10일 홍대용은 문시종(問時鐘)이라는 또 다른 진귀한 서양 물건을 구경하기 위해서 진가(陣哥)라는 상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향합니다(정민 2014, 187). 홍대용은 어제 천주당 남당에서 유송령 신부와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피곤했지만 마지막에 서양 악기를 연주하면서 답답함과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었기에, 다시금 ‘새로움’과 ‘앓’에 대한 기대를 품고 거리로 나섭니다. 소리를 내어 제 시간을 알려준다는 이번 서양 물건은 연행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가 천문학을 연구할 때 상당히 요긴한 것이기에 그 기대감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 물건을 갖고 있다는 양훤은 중국인이니 그동안 틈틈이 공부한 한어로 대화하다 막힐 때에는 한자 실력을 발휘하여 필담을 나누면 되니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뜻을 전하지 못하는 불상사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훤은 청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강희제의 증손이라고 하니, 중원을 통치하는 황제의 핏줄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지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문시종을 매개로 하여 찾아온 셈입니다. 서양 신부에 이어 중국 황족까지 만나게 된 홍대용은 다시 한 번 농암 선생의 시를 떠올리며 ‘넓음’을 향한 ‘꿈’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북경 연행의 매 순간은 어렸을 때부터 고리타분한 성리학 경전에 얽매이길 거부했던 홍대용이 기다려왔던 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진가의 안내에 따라 상점 내부의 작은 방안에 들어간 홍대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양훤과 만나게 됩니다. 훗날 홍대용은 연행록에 양훤의 첫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양헌의 나이는 31 세인데, 얼굴이 붉고 수염이 없으며, 몸집은 크고 걸차 문아(文雅)한 맛은 적었다. 그러나 기미(氣味)가 너그럽고 무거워서 함부로 떠들거나 웃지 않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옛 친구를 만난 듯이 대답하는 것은 아마 만주 사람의 소성(素性)이 그런 듯하였다(한국고전종합 DB 2014).



▲ 청대 만주족 황족 일가를 그린 그림

홍대용은 거대한 체격에 험상궂은 인상을 한 양헌을 보고 흠칫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 황족이라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조선 연행사의 일원으로 참석한 선비를 예우하는 태도와 호탕한 웃음에서 양헌의 됬됨이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명나라 이후에 중국은

없다.”라고 핏대를 세우며 송명멸청(崇明滅淸)을 부르짖는 한양 궁궐의 사대부들을 떠올렸습니다. ‘만에 하나, 고매한 주자학의 대가들께서 북경 연행에 동참했다면 천하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지난날 두 차례 호란의 치욕을 갚자는 북벌론이 융성한 청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강성한 청 앞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주장인지 각성할 수 있을까?’ 짧은 순간 마음속으로 던진 물음에 대답하자니 홍대용은 그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다시 양호와 마주앉은 현실로 돌아온 홍대용은 어떤 책을 주로 읽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양호에게 말을 건넸고, 이에 양호는 활 쏘기와 말 타기, 한어와 몽골어를 익히는 데 전념하느라 사서(四書)와 시경(詩經) 이외에는 독서한 것이 전무하다고 답했습니다(정민 2014, 187). 대화 주제를 잘못 골랐다는 사실을 눈치 챈 홍대용은 학문의 짧음을 개탄하는 양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마음에 있고 글에 있지 않으며, 교제하는 도리는 질(質)에 있고 문(文)에 있지 않습니다. 세간에서 독서를 많이 하고 문장을 잘하는 이로서 흔히는 밖을 속이고 잘못된 것을 꾸며서 자기의 천진(天真)을 잃어버리는 이가 많으니, 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고전종합 DB 2014).

## 장면 #2. 어색함과 호탕함을 넘나드는 홍대용과 양훈의 만남

첫 만남에서 사람의 도리는 학문이 아니라 인품에 달렸다고 말하는 홍대용에게 감탄하게 된 양훈은 푸짐하게 차린 술과 안주상을 들여와 흥을 돋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술에 취해 흥에 겨워 노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홍대용은 조선의 주금 정책과 본래 술을 못함을 이유로 들어 양훈의 잔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정민 2014, 188). 양훈이 성내는 기색까지 보이자 홍대용은 마지못해 술 한 잔만을 입에 털어놓고 더 이상 잔을 들지 않았으며, 강한 술기운과 향내에 정신이 아찔하여 입에 맞지 않는 안주거리를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정민 2014, 188). 결국 술 마실 흥이 다한 양훈은 상을 물리고 담배를 피우며 말없이 홍대용과 앉아있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맙니다. 서로 말은 통하였으나 이번에는 술이 문제였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만 있던 홍대용은 양훈이 허리에 차고 있던 두 개의 주머니에 눈길을 주게 됩니다. 이를 알아 채 양훈은 주머니를 풀어서 홍대용에게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침이 움직이며 시간을 알려주는 일표(日表)라는 물건이며, 또 하나는 소리를 울려 때를 알려주는 문종(門鐘)이라는 물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내 홍대용은 일표와 문종을 탐구하고 싶은 호기심에 휩싸이게 되고, 양훈에게 대뜸 며칠 동안 빌릴 수 있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양훈이 “푸짐하게 차린 술과 안주상에는 상대방을 무안하게 할 정도로 전혀 관심이 없고 비싸고 진귀한 서양 물건은 느닷없이 빌려달라고 무례한 부탁을 하다니, 정말 얽치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훈 역시 홍대용의 호기심 어린 부탁을 고깝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색한 침묵이 깨진 것에 기분이 좋아져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일표와 문종을 빌려줍니다(정민 2014, 189). 홍대용은 단번에 일표와 문종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훗날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세 번을 치는 것은 미시(未時)의 정각(正刻)이요, 연거푸 두 번을 치는 것은 2 각(二刻)이다. 묻는 법은, 조그마한 자루(柄)를 가만히 대면 종이 울리며, 연달아 물어도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 조금 있다가 또 물어도 연거푸 세 번을 치니, 이는 3 각인 것이다. 시간과 분각에 따라서 각각 그 수가 다르며, 묻지 않으면 울리지 않는다. 들으니, 이것은 서양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시기(時器, 시계(時計)를 뜻함) 중의 지극히 교묘한 것이라 한다(한국고전종합 DB 2014).

### 장면 #3. 귀국 이후에도 양훈과 안부를 주고받는 홍대용

예기치 않은 어색한 분위기가 지배했던 짧은 만남이었지만, 홍대용의 올곧은 의리에 깊은 인상을 받은 양훈은 훗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선물을 챙겨주려 합니다. 홍대용은 타국에서 멀리 온 일개 선비를 극진히 대접하려는 양훈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기억하겠다고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래도 양훈이 진가를 통해 무려 100 금이 넘는 고가의 서양산 문종을 선물로 전한다는 뜻을 전했으나, 홍대용이 선물 받기를 거절하며 진가의 상점에 양훈이 선물한 문종을 두 차례나 주고



돌려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정민 2014, 190-195). 이번에는 홍대용과 양훈을 사이에 두고 중간에 낀 진가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양훈의 성의와 진가의 한탄에 마지못해 선물로 받은 문종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간 홍대용은 다음 연행사를 통해 양훈에게 고장 난 문시종과 함께 안부를 묻는 편지를 전달합니다(정민 2014, 197). 홍대용은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찌 보면 집요하리만큼 극진한 예우로 대접했던 양훈의 호탕한 웃음을 떠올리며, 홍대용은 양훈이 보낸 답장을 북경에서 교류한 청의 문인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모은《계남척독》(薊南尺牘)에 실었습니다.

헤어진 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연경에서 만나던 때를 돌이켜 생각하니 먼 그리움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저는 못나고 곧이곧대로요, 어리석은데도 친하게 대해주심을 입었습니다. 다만 각자 하늘 한 모서리에 떨어져 있는지라 마음이 안타까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래 편지를 받자웁고 형의 복이 날로 더함을 알게 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먼 곳에서 후한 선물을 보내심이 지극히 많은데, 물리치자니 예가 아닐 듯하여 다만 감사를 전할 뿐입니다. 부쳐오신 문시종은 바로 좋은 장인을 찾아 수리한 후 놓아두고 잘 맞을 때를 기다려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년 들어 저는 그만그만합니다. 그럭저럭 조용히 지내며 벗들과 어울릴 뿐입니다. 다만 소식 편에 알려드립니다. 근래 속무 때문에

이만 줄이웁고 다 갖추지 못합니다. 애오라지 인편에 거친 물건 몇 가지를 갖춰 안부를 여쭙니다. 양흔 드림(정민 2014, 198).

## 꿈같던 세 번째 만남\_유리창 거리에서 중국 선비 엄성을 만나다

### 장면 #1. 이기성과 마주친 중국 선비들을 만나러 가는 홍대용

1766년 2월 3일 홍대용은 비장(裨將) 이기성을 따라서 유리창 부근에 머물고 있던 두 명의 중국 선비를 만나러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번 만남은 사실 천주당과 유송령, 진가의 상점과 양흔의 경우처럼 홍대용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단은 이기성이 1월 26일 유리창 거리에 나가 쓸 만한 안경을 구하러 나간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기성은 눈이 안 좋은 지인을 위해 코앞만 잘 보이는 사람은 먼 산을 내다보게 하고, 먼 산만 잘 보이는 사람은 코앞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안경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이기성이 구하는 안경은 주로 중국을 통해 조선에 전래된 안경은 연세가 지긋하셔서 눈이 침침하신 사대부 양반들이 오랫동안 독서를 하기 위해 쓰던 서양 기물(奇物)이었습니다(정민 외 2013, 36). 조선에서는 힘 패나 있고 돈 패나 있으신 양반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희귀하고 비쌌기에, 유명 안경점들이 많은 유리창 거리에서 안경을 구하려는 것이 애초 이기성의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일개 비장이 사비를 털어 살만큼 값싸면서 좋은 안경을 구하는 것은 이기성의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쁜 눈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지인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이기성의 시야에 안경을 끼고 있는 중국 선비 두 명이 포착됩니다. 안경을 구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이기성은 초면인 두 선비에게 대뜸 값을 쳐줄 테니 안경을 팔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한 선비가 망설임 없이 안경을 건네었고 굳이 돈을 건네려는 이기성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두 선비의 정직함을 예사로 안 것에 부끄러워진 이기성은 그들이 절강(浙江, 절강성 항주) 출신이고, 간정동(乾淨洞, 유리창의 골목 이름)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홍대용은 중국 선비들의 올곧음에 이끌려 예정에 없는 만남을 결심하게 됩니다(정민 2014, 34).

절강은 이곳에서 수천 리 밖이라. 수천 리 밖에서 과거를 위하여 행역(行役)의 괴로움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필연 명리(名利)의 마음이 깊은 사람이니 어찌 높은 소견이 있으며 죽히 더불어 말함직하겠는가? 그러나 다시 만나거든 그 사람의 거동을 자세히 살피고 인하여 내 말을 일러 조선 선비 한 명이 들어왔으니, 그대의 성문(聲問: 명성)을 듣고 한번 만나고자 한다고 하여 저희의 뜻을 보라(홍대용 2001. 205).



▲ '중국서점'(中國書店) 현판을 내걸고 도서까지 취급하는 '화랑'(畫廊)

## 장면 #2. 진심 어린 마음과 마음이 통한 홍대용과 엄성의 만남

홍대용은 이기성을 통해서 안경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유리창 부근의 건정동에 머물고 있던 두 명의 중국인 선비를 직접 찾아갑니다. 홍대용은 서른다섯 살의 엄성과 스물다섯 살의 반정균, 그리고 이후에 합류한 마흔여덟 살의 육비와 함께 필담을 통해 세상살이와 학문에 대한 뜻을 나누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 홍대용은 마른 체구에 골격이 있는 엄성의 외모에서 그의 강단 있는 성품을 알아챱니다. 홍대용은 엄성에게 강직한 성격으로 인해 세상을 조롱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언사가 뼈뚫한 태도로 비쳐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엄성의 말과 글재주는 분명 논리정연하고 세상의 잘못된 이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정민 2014, 45-46). 엄성 역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홍대용의

진심에 크게 감동합니다(정민 2014, 46-47). 서로의 인품이 진실하고 한결같음을 알게 된 이후에는 홍대용과 엄성의 사귀는 한없이 깊어졌습니다. 홍대용과 엄성 모두 우연으로 시작된 서로의 만남이 이렇게 진실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북경을 떠나기 직전 홍대용과 엄성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는 고도의 지적·심적 교류에 대한 고마움이 묻어있네요.

그윽히 현재의 자품(資稟)을 살피니, 격렬한 기운이 유여(裕餘)하나 혹은 함축한 기상이 부족하고, 착함을 좋아함에 진실로 궁함이 없으나 사나움을 미워함에 혹은 이심(已甚: 지나치게 심함)함이 있을지라. 사람이 그른 곳을 보면 포용한 덕량이 넉넉지 못할 듯한지라. 다행히 스스로 살펴 허물이 있거든 고치기를 아끼지 말고 없거든 더욱 살핌이 마땅하다. 천만 회포는 오직 덕이 날로 새롭고 일백 복을 누림을 축수하노라(홍대용 2001. 438).

성이 사람을 사귀는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마는, 능히 이런 학문을 강론하여 서로 도와 얻기를 책망하는 자는 대개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 요행으로 과거 이름을 얻어 몸이 서울에 이르러 죽하와 더불어 교도(交道)를 정하나, 실로 죽하의 학문을 살피니 가히 유익한 벗이 될 뿐이 아니라 또한 가히 이름난 스승이라 일컬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귀중하여 마음으로 기뻐하고 진실로 행복되니, 이는

구구한 과거를 봄이 족히 기쁜 것이 아니라 이를 빙자하여 족하를 사귀어 짐짓 큰 기쁨입니다. 족하가 매양 성의 과도히 칭찬함을 혐의로이 여기나, 그러나 성은 범범(泛泛: 데면데면함)한 시속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내게 족하의 유익함이 적지 않은 줄을 아는데, 성은 거동이 경솔하니 족하의 방엄(方嚴: 방정하고 엄숙함)한 기상이 실로 본받음이 됨직하고, 성은 말씀이 조급하고 망령되니 족하의 신묵(愼默: 삼가서 침묵을 지킴)한 덕성이 실로 사법(師法)이 됨직합니다(홍대용 2001. 440).

### 장면 #3. 엄성의 죽음을 가슴깊이 통탄하는 홍대용

조선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안부를 묻는 편지를 주고받던 홍대용은 엄성이 몹쓸 병에 걸려 36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홍대용은 엄성이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홍대용에게 부친 두 편의 시를 건네준 조선 연행사로부터 귀국 이전에 홍대용이 선물로 준 묵향을 맡으며 숨을 거둔 엄성의 이야기도 전해 듣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서로를 알아주는 마음은 바로 곁에 있는 ‘천애지기’(天涯知己)였던 엄성. 이제는 흠으로 돌아간 그를 그리는 홍대용은 마냥 서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따름이었습니다.

연경에서 반가운 소식 전하니 아득히 먼 해동에서 온 것이라네.

사문(斯文)이 우리에게 달려 있나니 이역(異域)이나 이 마음은 한가지 일세.

정은 이미 형제와 다름이 없고 참된 사귄 변함없이 훌륭하였지.

그리워도 서로를 보지 못하니 가을바람 맞으며 통곡한다오(정민 2014, 49).

얼굴 볼 날 없음을 슬퍼하다가 마음 논한 글월 보고 기뻐한다네.

이 편지 만리 밖서 온 것이어서 예까지 일 년 넘게 걸리었구나.

격려함엔 좋은 벗이 필요하거든 쇠잔하여 홀로 지냄 안타까워라.

이름없이 마흔 나이 코앞에 두니 어이 차마 촌음인들 헛되이 쓰리(정민 2014, 50).

## 21 세기 유리창과 사랑방의 만남을 추억하며

어설프게나마 홍대용을 ‘초혼’(招魂)하여 그이의 넋을 앞세워 거닐었던 유리창 거리 위에서 희미하게나마 18 세기 동아시아 천하의 지식인들이 스치고, 엇갈리며, 사귀었던 만남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대 조선의 지성을 대표하는 홍대용이 서양 신부 유송령, 중국 황족 양훈, 중국 선비 엄성과의 만남에서 늘 보여줬던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감사함과 충분히 교감하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맘때면 송년회로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휩싸였던 과거의 일상에서 벗어나, 지난 한 학기 동안 서로의 꿈과 앓을 공유했던 사랑방 동기들과 함께 유리창 거리를 거닐었던 홍대용의 발자취를 가만히 뒤쫓아본 경험은 분명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탈(逸脫)이었습니다. 유리창 거리에서 저녁식사를 할 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층 홀가분한 마음으로 유리창 길가의 어느 서점에 들어가 18세기 천하의 지식을 품었을 홍대용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던 그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



▲ 유리창 일대 서점의 현판을 올려다보는 사랑방 일동



##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자!

**이주원:** 유리창하면 생각나는 것은 추운 날씨, 좁은 골목, 그리고 그 골목을 지나다니는 차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발표하던 민결이. 민결이의 설명을 따라 홍대용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곳을 방문했는지 상상하던 기억.

**오승희:** 해질녘 즈음 고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민결이의 발제가 참 잘 어울렸던 장소였습니다. 홍대용의 세 번의 만남 속 각각의 세 가지 장면들에 대한 해석을 듣다 보니, 어느 새 민결이가 홍대용이 되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유정:** 유리창 거리는 난신화지에(南新華街)를 중심으로 동서로 뻗어 있었습니다. 우리 답사 팀은 서쪽 거리를 먼저 둘러본 뒤, 동쪽 거리로 가서 본격적인 유리창에서의 세 번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민결이에게 들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는데, 서점이 많았던 서쪽 거리가 조금 더 활기찼고 골동품이나 유리 공예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주를 이루었던 동쪽은 차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18 세기 연행사들이 방문했을 때는 과연 유리창 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상점들이 들어서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찾는 사람들, 흥정하는 사람들로 뒤엉켜 왁자지껄하지는 않았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거리에서 1969 년 한국어로 출판된 《모주석어록》(毛主席语录)을 발견했는데, 중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판본은 본 적이 있지만 한국어로 정식 출간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당시 북경에서 한국어로 된 책을 출간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고, 연행사들의 경우도 계획된 만남도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연히 좋은 책과 사람을 만나서 지적 교류와 새로운 지적 자극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갔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1 세기의 지식질서는 서양을 중심으로, 특히 영어를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18 세기의 유리창만큼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 다시 지식질서의 중심이 중국으로 돌아온다면 유리창은 또 어떤 모습의 변화를 이루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김선경:** 첫날 열정적으로 홍대용과 유송령, 양훈, 그리고 엄성과의 만남을 설명해준 민결이의 발표가 기억에 남네요.^^ 덕분에 ‘우리나라의 인사동과 비슷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지나쳤을 유리창을

실감나게 둘러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걸이의 글을 읽으면서 세 만남을 직접 경험한 듯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보람:** 홍대용이 겪은 각각의 만남에서 때로는 모순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보충이 될 수도 있는 ‘새로움’과 ‘앓’의 관계를 서술한 거 같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어떤 새로움과 어떤 알아감의 계기가 되었나요? 역사의 과정에서 ‘새로운 것’의 교류 장소에서 ‘옛 것’의 거래 장소가 된 유리창 탐방이 과연 ‘18 세기가 아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앓’과 ‘새로움’이란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나’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재성:** 초저녁에 유리창에 도착하니 중국식 가옥과 거리가 즐비해있어서 중국드라마 세트장에 온 듯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거리를 걸으면서 민걸이 형이 홍대용의 유리창 방문기를 재구성했었던 것이 정말 흥미로웠고 실제로 바로 옆에 홍대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소와 민걸이 형의 재구성이 조화를 이루어 홍대용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참고문헌

베이징관광국. “관광명소: 유리창.”

<http://visitbeijing.or.kr/detail.php?number=321&category>

(검색일: 2014. 12. 1).

사행록 역사 여행. “북경체험기: 유리창.”

[http://saheng.ugyo.net/user/contents/contents3/flash\\_map.htm](http://saheng.ugyo.net/user/contents/contents3/flash_map.htm)

ml (검색일: 2014. 12. 8).

———. “북경체험기: 천주당 남당.”

[http://saheng.ugyo.net/user/contents/contents3/flash\\_map.htm](http://saheng.ugyo.net/user/contents/contents3/flash_map.htm)

ml (검색일: 2014. 12. 8).

실학박물관. “실학자연보: 홍대용.”

<http://silhak.ggcf.kr/archives/439?pn=2> (검색일: 2014. 12. 15).

정민. 2014.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하버드

엔칭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카 컬렉션》. 파주: 문학동네.

정민 · 박성순 · 박수밀 · 박현규 · 왕편중. 2013. 《북경유리창: 18 · 19

세기 동아시아의 문화거점》. 서울: 민속원.

한국고전종합 DB. “고전번역서: 답헌서.”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검색일: 2014. 12. 15).

홍대용. 2001.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홍대용의 북경

여행기 <을병연행록>》. 김태준 · 박성순 역. 서울: 돌베개.

———. 2008. 《의산문답》. 김태준 · 김효민 역. 서울: 지만지.

# 자금성 속 숨은 조선 찾기

## \_자금성(紫禁城)

오승희

이화여자대학교

### 이것만은 알고 가자!

- ◆ **공식명칭:** 1925년부터 고궁박물관
- ◆ **개 관:**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무)
- ◆ **시 간:** 4월~10월 8:30~17:00  
11월~3월 8:30~16:30(15:30부터 입장금지)
- ◆ **입 장 료:** 1인당 40위안(진보관과 종표관 별도판매 각 10위안)

사랑방 4기 베이징 답사 둘째 날 첫 번째 일정은 자금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첫째 날 오후 일정으로 계획했지만, 입장 시간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이른 아침 일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금성은 오전 8시 반부터 입장이 시작되고, 3시 반에 입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베이징 하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뿌연 먼지로 뒤덮여있었습니다. 아침 산책하듯이 자금성을 걸어볼까 하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넓은 자금성을 걸느라 다리가 아플 걱정보다 뿌연 공기 때문에 목이 아플 걱정이 앞섰습니다.



▲ 자금성에 들어가기 전

사진 속의 붉은 색의 천안문과 마오쩌둥 사진, 그리고 높이 솟은 오성홍기를 감싸고 있는 뿌연 하늘이 2014년 현재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고궁인 자금성은 베이징 중심에 위치한 베이징의 상징입니다. 자금성을 다녀온 한국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며 이 넓은 공간을 거닐었을까요?

4년 전 제가 방문했을 때 그랬듯이,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번쯤 서울의 경복궁과 견주어보게 됩니다. 크기 면에서는 자금성이 경복궁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자금성은 1km 가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공식 면적으로 볼 때, 자금성이 72만 평방미터이고 경복궁이 약 43만 평방미터로,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높은 성벽과 큰 건물 규모 그리고 구석구석 미로와 같은 공간들 때문에 더욱 넓어 보인다고 합니다(진병팔 2002). 또한 각각의

왕궁이 가진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면 그 우열을 가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금성을 중국만의 것으로 그리고 경복궁을 한국만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금성을 단순히 중국 황제들만이 살았던 곳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공간은 그들만의 장소이며 그들만의 이야기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한중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건물들이 보이고, 이야기들이 들리게 됩니다. 이번 답사 보고서는 자금성 안에서 실제로 살았던 조선인들을 찾아보며, 약 600년 전 조선과 명나라 관계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 자금성 둘러보기

자금성(紫禁城)은 명과 청 왕조의 궁궐입니다. 자금성은 ‘자색의 금지된 성’이라는 뜻으로, 중국인의 우주관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북두칠성이 있는 자미궁의 자색과,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문명인 ‘the Forbidden City’는 금지되었다는 뜻을 보다 강조한 명칭입니다. 중국인들은 ‘구궁(故宮, 고궁)으로 부르는데, 1925년 이후 중국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고궁박물관입니다.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자금성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금성은 명나라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하면서 건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406년부터 1420년에 이르기까지 14년간

100 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800 여개의 건물에 약 9 천여 개의 방을 가진, 높이 10m 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궁궐이 만들어졌습니다. 명에서 청에 이르기까지 500 여 년 간 24 명의 황제가 거처했던 곳입니다. 남북으로 961m, 동서로 753m 나 되는 이 넓은 자금성을 어떻게 다 둘러볼까요?

참고로, 자금성 공식 홈페이지는 시간별로 자금성을 둘러보는 코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물만 살펴보는 데에는 두 시간 정도 소요되며, 반나절 코스, 하루 코스가 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데에는 하루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를 살펴보면, 오문▶무영전▶문화전▶태화문▶태화전▶중화전▶보화전▶건청궁▶교태전▶곤녕궁▶양심전▶서 6 궁▶어화원▶동 6 궁▶봉선전▶영수궁▶신무문 의 17 곳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문▶태화문▶태화전▶중화전▶보화전▶건청궁▶교태전▶곤녕궁▶어화원▶서 6 궁 혹은 동 6 궁 중 일부▶신무문으로 나오는 것이 최단 코스입니다 (고궁박물관 2014). 우리는 오늘 원명원과 이화원까지 방문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단 코스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자금성은 얼핏 보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대칭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한 ‘3-6-9 법칙’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금성 전체는 크게 정치공간과 생활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공간은 공식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외조(外朝)’라고도 불립니다. 생활공간은 왕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내정(內廷)’으로 불립니다. 정치공간의 핵심 건물은 삼대전(三大殿)으로 불리는 세 개의



대전, 태화전·중화전·보화전이 있습니다. 생활공간에도 세 개의 핵심 건물이 있는데, 후삼궁(后三宮)으로 불리는 건청궁·교태전·곤녕궁이 있습니다. 건청문을 지나가면서 정치공간과 생활공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 세 곳의 건물이 쌍을 이루어 정치공간과 생활공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대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화전과 무영전이 있습니다. 후삼궁 뒤에는 어화원이 있고, 후삼궁 양측으로 동 6 궁과 서 6 궁이 있는데, 후궁들의 거주, 휴식 지역입니다. 동 6 궁 동쪽으로는 천궁보전(天穹宝殿) 등 불교 건축, 서 6 궁 서쪽은 중정전 등 불교 건축이 있습니다. 외동로(外东路) 남부에는 황자가 거주하는 힐방전(翫芳殿) 혹은 남삼소(南三所)가 있으며, 북부에는 건륭황제가 세운 태상황궁전인 영수궁(宁寿宮)이 있습니다. 외서로(外西路) 남부에는 황태후가 거주하는 자녕궁(慈宁宮), 수건궁(寿康宮)이, 북부에는 수안궁(寿安宮) 외에 영화전(英华殿) 등의 불상 건축이 있습니다(고궁박물관 2014).

전삼각과 후삼궁을 일직선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정문인 오문이 자리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신무문이 있습니다. 오문을 들어서면 앞에 내금수교가 흐르고, 동쪽으로는 동화문, 서쪽으로는 서화문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금성을 보다 자세히 구역화하면, 대조전례구(大朝典礼区)-궁침생활구(宫寝生活区)-태상황궁전구(太上皇宫殿区)-태자궁전구(太子宫殿区)-태후태비양노구(太后太妃养老区)-황자생활구(皇子生活区)-어원과묘우구(御苑与庙宇

区)-부고와부서구(府庫與衙署區)-성지호위구(城池侍衛區)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고궁박물관 2014).

### 정치공간: 삼대전(태화전-중화전-보화전)

자금성의 정문인 오문을 지나면 정치공간이 펼쳐집니다. 자금성에는 나무가 없는데, 이는 방어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태화문을 지나 정 중앙에 서면 삼대전의 첫 번째 건물인 태화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황제 즉위, 각종 칙령반포, 정치, 외교 행사를 여는 집무공간입니다. 태화전 앞에는 금으로 된 용 1만 3844마리가 황제의 위엄을 지키고 있습니다(진병팔 2002).



▲ 추녀 위 잡상

태화전은 자금성에서 가장 넓은 곳으로 대부분의 공식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공식 행사 때 황제가 등장하면 일제히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를 올렸다고 합니다. 태화전 추녀에는 잡상이 자리하고 있

는데, 맨 앞에 봉황을 탄 선인이 있고, 그 뒤로 용, 봉황, 사자, 천마, 해마, 산예, 압어, 해치, 투우, 행십이, 그리고 맨 뒤에 용머리가 있습니다. 잡상의 개수가 건물의 중요도를 가리키는데 태화전 추녀에 가장 많은 10 마리의 잡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진병팔 2002).

500 년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이 넓은 공간에서 벌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답사에서는 자금성이 건설된 명나라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자금성은 영락제의 베이징 천도 결정과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한 만큼 영락제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제는 명의 제 3 대 왕으로 1 대 홍무제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2 대 왕인 조카 건문제로부터 왕위를 찬탈하는 ‘정난의 변’을 일으켰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 자금성을 세우게 했고, 다음으로는 정화의 원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으로 불리는 세 대전은 자금성 완공 당시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자금성 초기 이들의 명칭은 각각 봉천전, 화개전, 근신전이었습니다. 1941 년(영락 19 년) 정월 초에 완성된 봉천전, 화개전, 근신전은 약 3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4 월 초 발생한 대 화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영락제는 문무군신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봉천 등 3 대 궁전을 화재로 잃어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만약 내가 정말 잘못된 곳이 있다면 모두들 필히 속마음을 털어놓게. 나에게 잘못을 바로잡고 하늘의 뜻에 따를 기회를 주게나(CCTV 2013).

조서가 하달되자 관원들은 격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기회로 영락제가 업적 세우기만을 중시한다는 점과 베이징 천도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려움과 격노의 모순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영락제는 대신들이 오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서로 변론하게 했으며 그를 비난한 한 관원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CCTV 2013).



▲ 자금성 보화전 앞에서

영락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 중, 《대명실록》에 기록된 환관 해수의 말을 빌리면, 영락제는 겉으로는 엄격하지만 속으로는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늠름하고 용맹하였고 교묘한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았으며, 사람의 재주를 이끌어내는 법을 알았던 유능한 황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역사 스페셜 2014). 영락제 통치기, 우환도 있었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명나라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주변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영락제는 유능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생활공간: 후삼전(건청궁-교태전-곤녕궁)

생활공간은 정치공간에 비해 면적은 좁지만 더 많은 건물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후삼궁인 건청궁과 교태전, 곤녕궁은 황제의 내밀한 사적 공간입니다. 곤녕궁 좌우에 동육궁과 서육궁, 후궁 거처궁이 있습니다. 서육궁에는 저수궁과 익곤궁의 이름을 가진 두 개의 궁이 있는데 이 곳은 서태후가 생활하였던 곳입니다. 그 외에도 장춘궁, 태극전, 영수궁, 함복궁이 있습니다.

영락제는 조선인에 유독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공녀와 환관을 요구했는데, 특히 미모가 뛰어나고 가문이 좋은 집안의 처녀를 요구하였는데, 환관의 경우 조선인이 “충명하고 민첩하여 일을 맡겨서 부릴 만하다”며 대략 300-400 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정구

선 2002). 공녀와 환관을 중국에 보내는 것은 조공제도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북위에 미모의 여인들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고,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 170 명, 조선시대 146 명 정도가 중국에 보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KOCCA 2014). 고려시대에도 원 순제 때 고려에서 공녀로 보내졌다 황후의 자리까지 올랐던 기황후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 좋은 가문의 여성들을 명나라 황제의 자녀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태종 때 명나라 사신이 태종의 아들과 혼사를 제안하자, 태종은 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자, 아들 대신 조선의 여인들을 명나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태종이 공녀를 대비하여 혼가를 금지하였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조선왕조실록 2005).

영락제 집권기에 가장 많은 공녀와 환관이 보내졌습니다. 공녀는 세 번에 걸쳐 선발되었습니다. 1 차 선발은 영락제 6 년인 1408 년, 2 차 선발은 영락제 7 년인 1409 년에 공녀를 선발했다 무산된 후 1410 년에 헌납되었고, 3 차 선발은 영락 15 년인 1417 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환관의 경우 매우 빈번하게 요구되었습니다(정구선 2002).

영락제는 1408 년 4 월 16 일, 환관 황옌을 한양으로 파견해 조선에서 후궁을 선발하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11 월에는 권씨, 윤씨, 이씨, 여씨, 최씨가 선발되었습니다. 1409 년 초 베이징에 도착하였는데, 그

중에서 권씨가 현비(賢妃)로 책봉되었고, 윤씨는 순비(順妃), 이씨는 소의(昭儀), 여씨는 첩여(婕妤), 최씨는 미인(美人)으로 각각 책봉되었습니다.

1409년 영락제 7년에 두 번째 후궁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황옌은 “지난해 내가 여기에 왔을 때 모든 여자가 살찌고 피부가 거칠며 키가 작아 모두 보기에 좋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조선에서는 공녀로 착출되지 않기 위해서 갖은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미모를 중시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외모상에 문제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일부러 흉을 지게 만들고, 심지어 신체 일부를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처녀를 요구하였기에 딸 가진 부모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시집 보내고자 하였는데, 심지어 갓난아이마저도 출가시켰다고 합니다(정구선 2002).

1417년 영락 15년에 세 번째 후궁 선발이 이루어져 한 씨와 황 씨가 명나라로 갔습니다. 8월 6일 출발한 이들 일행은 10월 8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영락제는 이들 중에 한 씨의 딸을 특히 아끼는 한 씨 집안에 막대한 규모의 재물을 계속해서 하사했습니다.

명나라 초기에 보내진 환관 중에는 공녀 선발을 위해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황제의 칙서를 가져온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조선의 왕은 직접 영접하였고,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예를 갖추어 대하였으며 마지막까지 환송하였습니다(정구선 2002). 조선에서 명나라로 갔던 조선인들이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할 때, 그들과 조선 왕의 관계에서 조선과 명나라 관계의 단편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나라로 헌납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인, 그리고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에 온 조선인, 그리고 또 다른 조선인을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한 조선인은 조선과 명을 오가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표1] 조선시대 공녀와 환관 기록

회차	시대	왕조	한국 왕조	공녀 (명)	환관	왕조별 합계	총계
1	명	태조 홍무제	태조 3년(1394) 5월		5	5	5
2		성조 영락제	태종 3년(1403) 11월		33	192	33
3			태종 4년(1404) 6월		20		20
4			태종 5년(1405) 7월		8		8
5			태종 7년(1407) 10월		29		29
6			태종 8년(1408) 11년	21 (처녀 5, 여종 16)	12		33
7			태종 10년(1410) 10월	5 (처녀 1, 여종 4)	2		7
8			태종 17년(1417) 8월	14 (처녀 2, 여종 12)	4		18
9			세종 1년(1419) 2월		20		20
10			세종 5년(1423) 9월		24		24
11	선종 선덕제	세종 9년(1427) 7월	33 (처녀 7, 여종 16, 집찬 10)	10	96	43	
12		세종 10년(1428) 10월	1 (처녀 1)	6		7	
13		세종 11년(1429) 7월	20 (집찬 12, 가무 8)	6		26	
14		세종 15년(1433) 11월	20 (집찬 2)			20	
15	현종 성화제	성종 14년(1483) 10월			19	19	19
16	태종 송정제	인조 16년(1638) 7월		10 (처녀 10)		10	10
17	청	세조 순치제	효종 1년(1650) 4월	22 (처녀 17, 유모 1, 시녀 1, 여종 3)		22	22
<b>합계</b>				<b>146</b>	<b>198</b>	<b>344</b>	<b>344</b>

\* 정구선 2002, pp. 51, 56, 122 참조 재구성.

\*\* 주: 기록상 확인 가능한 수치만 표시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내졌을 것입니다.



## 자금성에서 생활했던 조선인들의 삶

조선에서 명나라로 건너간 공녀들과 환관들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영락제 때 중국으로 간 세 명의 공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 (1) 권 씨의 이야기: 권현비 독살사건

1 차 선발 때 가장 이목을 끌었던 권현비는 영락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권씨는 현비(賢妃)로 책봉되어 황후의 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명사-후궁전》에도 권씨의 자태가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는 쌀처럼 아름다워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간지 2 년이 채 못 된 1410 년 10 월 몽고 정벌에 나섰던 영락제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것이 권씨를 시기한 같은 조선 공녀 여미인에 의한 독살이었다고 알려지면서 분노한 영락제가 여미인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미인은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궁녀였던 여씨가 여미인과의 관계에 불만을 품고 꾸민 일이었습니다(조선왕조실록 2005). 이를 알게 된 영락제는 여씨와 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였습니다.

## (2) 여씨의 이야기: 어여지난

조선으로 갔던 대부분의 공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어여지난(魚呂之亂)입니다. 한씨와 최씨를 제외한 공녀들이 연루된 어여지난은 권현비 독살사건에 관계된 여미인에서 시작됩니다.

상인(商人)의 딸 여씨(呂氏)가 황제의 궁중에 들어와 본국의 여씨(呂氏)와 동성이라 하여 좋게 지내려고 하였으나, 여씨가 들어주지 아니하므로, 상인의 딸 여씨가 감정을 품고, 권비(權妃)가 졸(卒)하게 되자, 여씨가 독약을 차에 타서 주었다고 무고하였다. 황제가 성을 내어 여씨와 궁인 환관 수백여 명을 죽였다. 그 뒤 상인의 딸 여씨가 궁인 어씨(魚氏)와 함께 환자(宦者)와 간통하였는데, 황제가 알면서도 두 사람을 총애하는 정리로 발설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하여 목을 매어 죽었다. 황제가 성이 나서 사건이 상인의 딸 여씨에게서 났다 하고, 여씨의 시비(侍婢)를 국문하니, 다 무복(誣服)하여 시역(弒逆)을 행하고자 하였다 하므로, 그 일에 연좌(連坐)된 자가 2 천 8 백 인인데, 모두 친히 나서서 죽었다. 어떤 이는 황제의 면전에서 욕하기를, “자기의 양기가 쇠하여 젊은 내시와 간통한 것인데, 누구를 허물하느냐.”고까지 하였다. 뒤에 황제가 화공을 시켜 여씨와 젊은 환관과 서로 포옹하고 있는 형상을 그려서 후세에 보이려고 하였으나, 어씨(魚氏)를 생각하여 그러지 못하고 수릉(壽陵) 곁에 묻었는데, 인종이 즉위하자 파내어 버렸다. 이 난이 처음 일어날 때, 본국의 임씨(任氏)·정씨(鄭氏)는 목을 매어 자살하고,

황씨(黃氏)·이씨(李氏)는 국문을 받아 참형을 당하였다. 황씨는 다른 사람을 많이 끌어넣었으나, 이 씨는 말하기를, “죽기는 마찬가지라, 어찌 다른 사람을 끌어넣을까. 나 혼자 죽겠다.” 하면서, 끝까지 한 사람도 무고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이에 본국의 여러 여자가 모두 죽었는데, 홀로 최 씨(崔氏)는 일찍이 남경에 있었다. 황제가 남경에 있는 궁녀를 부를 때, 최씨는 병으로 오지 못하고, 난이 일어나 궁인을 거의 다 죽인 뒤에 올라왔으므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한씨(韓氏)는 난이 일어났을 때 빈 방에 가두어 두고 여러 날 동안 음식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문을 지키던 환자가 불쌍히 여겨 때때로 먹을 것을 문안에 넣어 주었으므로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몸종은 모두 잡혀서 죽고, 유모 김흑(金黑)도 옥에 들어갔는데, 사건이 끝난 뒤 특사되었다(조선왕조실록 2005).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니, 영락제를 향한 두려움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봉천전, 화개전, 근신전의 화재가 영락제의 행동에 대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황제가 왕씨(王氏)를 총애하여 황후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왕씨가 죽게 되자, 황제가 크게 슬퍼하고 상심하여, 그 후의 처사가 모두 빛나가, 형을 집행함이 참혹하였다. 어(魚)·여(呂)의 난을 한참 처리할 때, 벼락이 봉천(奉天)·화개(華蓋)·근신(謹身) 세 전(殿)에 떨어져

모두 타버렸는데, 궁중에서 모두 기뻐하기를, “황제가 반드시 천변을 두려워하여 주륙(誅戮)을 그치리라.”(조선왕조실록 2005).

그런데 대부분의 조선 공녀와 환관이 죽음에 이른 이 사건은 조선에 바로 알려지지 않는 않았습니다.

근일 어(魚).여(呂)의 난은 옛날에도 없던 큰일이다. 조선국은 임금이 어질어서 중국 다음갈 만하고, 또 옛 서적에 있는 말인데, 처음에 불교가 여러 나라에 퍼질 때 조선이 거의 중화(中華)가 되려고 하였으나, 나라가 작기 때문에 중화가 되지 못하였으며, 또 요동 이동이 옛날에 조선에 속하였는데, 이제 만일 요동을 얻는다면 중국도 항거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이러한 난을 그들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이다(조선왕조실록 2005).

조선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여지남으로 인한 중국 황제의 자존심과 명예의 실추가 조선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 (3) 한씨의 이야기: 영락제의 사망과 순장

앞서 두 가지 사건을 피해 살아남았던 두 명의 공녀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1424년 9월 영락제가 사망하자 조선 공녀 강혜장숙여비 한씨를 포함한 비빈 30여명이 순장을 당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한씨의 유모였던 김흑이 조선으로 돌아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 모두 뜰에서 음식을 먹이고, 음식이 끝난 다음 함께 마루에 끌어 올리니, 곡성이 전각을 진동시켰다. 마루 위에 나무로 만든 작은 평상을 놓아 그 위에 서게 하고, 그 위에 올라미를 만들어 머리를 그 속에 넣게 하고 평상을 떼어 버리니, 모두 목이 매어져 죽게 되었다. 한씨가 죽을 때 김흑(金黑)에게 이르기를, “낭(娘)아 나는 간다. 낭아 나는 간다.”고 하였는데, 말을 마치기 전에 곁에 있던 환자가 걸상을 빼내므로 최씨와 함께 죽었다(조선왕조실록 2005).

한씨가 중국에 간 것이 15 세 혹은 16 세였으며, 순장을 당했을 때가 22 세 혹은 23 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한씨의 막내 동생인 공덕부인 한씨 역시 선덕제 사망 시 순장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언니도 순장되었는데 차마 동생까지 순장될 수는 없다 하여 제외되었고, 그녀는 이 자금성에서 70 대 후반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순장제도는 1464 년 영종이 순장을 금할 것을 유조로 남기면서 종료되었습니다(정구선 2002).

## 자금성을 나가며: 자금성의 빛과 그림자

이번 답사에서는 자금성 속에 숨겨져 있던 영락제와 조선인들의 삶을 재현해보았습니다. 자금성의 오문을 들어서서 정치공간에만 주목했던 이전과는 분명 다른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성은 청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황제의 삶만이 주목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명나라 초기의 영락제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면, 빛나던 이 드넓은 공간 속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과 슬픔, 압박감 등이 발견됩니다. 생활공간 구석구석에서 일어났을 법한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금지된 성 안에서의 두려움까지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상상해봅니다. 베이징 중심에서 한중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 자금성을 나가며: 화려하고 빛나기만 했던 자금성의 숨겨진 쓸쓸함과 애잔함이 느껴집니다.

##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자!

**Q.** 자금성에 곳곳에서 발견되는 3, 6, 9 숫자와 붉은 색과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오방정색이라고 하여 적색, 청색, 황색, 백색, 흑색을 하늘과 땅 그리고 살아가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요한 색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줏빛 금지된 성이라는 뜻을 가진 자금성은 왜 ‘자주색’이 강조되었을까요?

**A.** 자금성은 당시 중국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하여 설계되고 지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지붕에는 황색을, 벽은 적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상징하는 붉은 색과 황색이 자금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줏빛의 금지된 성일까요?

중국인들은 우주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두칠성이 있는 ‘자미궁’이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진병팔 2002).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천자가 살고 있는 성이 바로 자미성의 자색을 이어받은 자금성인 것입니다. 홍색과 남색이 혼합된 자주색은 홍색을 뛰어넘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존귀함을 드러내는 권력의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황런다 2013). 자주색은 중국인의 천하관념을 반영한 색으로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금성의 영문명인 Forbidden City 는 자금성의 자색의 뜻보다는 금지되었다는 의미가 강조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금성이 가진 우주관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금지의 의미, 여기에 쉽게 나올 수 없었다는 금지의 의미까지 더해지면 이 공간에 살았던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상이 복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금성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그늘지고 어둡고, 쓸쓸한 면모가 이번 발제에서 느껴지셨나요? 자금성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만큼 다양한 의미를 담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주원:** 자금성 답사할 때,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면 다 알려줬던 승희 누나. 자금성의 정치공간에서 생존과 권력을 두고 경쟁하던 조선의 가녀린 공녀들. 실제로 공부하는 것들, 사대라든가 현실주의라는 것들이 이면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알고 나니 더 그 빛이 발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결:** ‘중국역사 속의 조선 찾기’라는 주제 하에 개괄적인 설명, 공간의 성격에 따른 분류, 본문과 사진의 적절한 배치 덕분에 읽는 이의 입장에서 깔끔했습니다. 조선인 공녀의 삶에 깃들었을 애환에 주목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유정:** 베이징의 아침 햇살도 가릴 만큼의 짙은 대기오염 물질들은 중국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먼지들도 자금성의 위엄을 모두 다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어와 만주어가 병기된 현판들이 인상적인 자금성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상징들로 채워진 공간입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각각의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계산된 위치와 각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테화전 앞의 나무 한 그루 없는 드넓은 공간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에서 주인공이 북방민족과 마지막 대결을 하고 황제를 구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 공간에서 조선의 여인들을 추적해 보는 것은 흥미진진한 옛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선경:** 승희 언니가 들려주는 자금성 궁녀이야기 정말 재미있었고 자금성의 정치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일상의 일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보람:**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자금성에 숨겨진 조선 여인들의 비극이 꼭 한편의 궁중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궁녀로 끌려온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침울해 지더군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궁중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제국의 다문화 가족’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재성:** 자금성에 살았던 조선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승희 누나! 웬지 그 이야기가 전래동화처럼 들려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자금성에서의 정치로 인한 조선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국제정치라는 것이 한 개개인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승희 누나가 자금성이 경복궁의 2 배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을 때는 제 예상보다 규모 차이가 적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 질의응답과 토론을 나누었던 사랑방 4기의 즐겁고도 뜨거웠던 현장

## 참고문헌

박영규. 2009. 《환관과 궁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베이징 고궁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http://www.dpm.org.cn/shtml/1/@/9057.html> (검색일: 2014. 12. 10).

역사 스페셜. 2014. “역사를 만든 사람들 - 자금성.” 1·2부

정구선. 2002. 《중국으로 끌려간 우리 여인들의 역사: 궁녀》. 서울: 국  
학자료원.

조선왕조실록. “세종 6년 10월 17일: 중국에 뽑혀간 한 씨 등이 대행  
황제에게 순사함을 사신이 말하다.”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10017\\_002](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10017_002) (검색일: 2014. 11. 30).

———. “세종 7년 4월 29일: 호조 참판 봉여를 보내어 부녀자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 인사하다.”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4029\\_004](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4029_004) (검색일: 2014. 11. 30).

———. “세종 17년 4월 26일: 사신 이충 등이 처녀 종비·창가비  
·집찬비를 거느리고 오다.”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4026\\_002](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4026_002) (검색일: 2014. 11. 30).

———. “세종 17년 4월 26일: 처녀 종비 김훅이 태후와의 일을  
회고하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4026\\_005](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4026_005)

(검색일: 2014. 11. 30). 국사편찬위원회.

———. “세종 17년 4월 28일: 승문원 제조 황희 등에게 사신의  
일을 의논하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4028\\_001](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4028_001)

(검색일: 2014. 11. 30). 국사편찬위원회.

———. “세종 17년 5월 14일: 한 씨의 유모 김혹 등에게  
음식을 먹여 보내다.”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5014\\_004](http://sillok.history.go.kr/id/kda_11705014_004) (검색일: 2014. 11. 30).

———. “태종 14년 9월 19일: 원민생이 경사에서 돌아와 권비  
살인 사건에 대한 황제의 지시문을 전하다.”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409019\\_001](http://sillok.history.go.kr/id/kca_11409019_001) (검색일: 2014. 11. 30).

진병팔. 2002. 《자금성을 걸으며 중국을 본다》. 서울: 청년정신.

질 베갱, 도미니크 모렐. 1999. 《자금성: 금지된 도시》. 김주경 역.  
서울: 시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문화콘텐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culturecontent.kr/main.do> (검색일: 2014. 12. 10).

황런다. 2013. 《중국의 색》. 조성웅 역. 서울: 스튜디오 카멜.

CCTV. 2013. “고궁.” <http://kr.cntv.cn/20130910/103154.shtml> (검색일:  
2014. 12. 10).

姜顺源. 1997. “明清宫廷朝鲜 ‘采女’ 研究.” <故宫博物院院刊>  
97년 4권: 79-89.

# 영광과 비극의 300년을 노래하다

## \_원명원(圓明園)

김유정

서울대학교

### 이것만은 알고 가자!

- ◆ **위 차:** 北京市 海淀区 清華西路 28 号
- ◆ **개관시간:** 7:00~19:00 (동절기는 17:30 까지)
- ◆ **휴 무:** 연중무휴
- ◆ **요 금:** 전체 관람표 25 元(전체모형실 입장포함), 입장표 10 元(서양루 미포함)  
전체모형관람실 5 元, 관람차 6 元(원명원 내 별도 매표소에서 구매,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에 상이할 수 있으며, 장춘원 남쪽 경계에서부터 서양루 구역까지는 1인당 6 元)
- ◆ **가는 방법:** 지하철 13호선 우다커우(五道口)역 하차 후 331, 365번 버스 위안밍위안(圓明園) 하차

여행 혹은 답사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튼튼한 다리’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성을 나와 차로 40 여분을 달려 향한 원명원은 이 두 가지 준비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장소입니다. 답사 둘째 날을 장식한 자금성과 원명원, 그리고 이화원을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는 ‘광활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규모의 광대함으로 여행객들을 압도하는 세 장소를 차근차근 둘러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이미 원명원의 크기를 인지한 우리들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점심식사

후 산더미 같은 빙수까지 후식으로 알뜰히 챙겨먹고 본격적으로 원명원 답사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 원명원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앞서 ‘광활함’뿐만 아니라 ‘영광과 비극이 공존하는 장소’라는 점에서도 둘째 날 일정의 세 장소의 이야기가 관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서양의 근대 국제정치질서와 동아시아의 전통 천하질서가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결국 천하의 중심이었던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 세 장소의 화려함도 비극으로 전환되는 역사의 흐름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나 원명원은 지금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듯이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국치(國恥)의 상징이라고 여길 만큼 19세기 말 전환기의 처절한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두 차례의 큰 화재, 철저한 파괴와 약탈의 수난을 거치면서 화려했던 옛 모습을 잃고 만 원명원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튼튼한 다리도 걸어 다니며 끊임없이 상상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와 달리, 원명원과의 만남은 그 본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파괴와 약탈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폐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너진 건물만을 볼 것이 아니라, 건축 당시의 모습과 파괴될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함께 교차시켜 상상해 보지 않고서는 원명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음미하기 어렵습니다.

2010 년은 원명원이 제 2 차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된 지 150 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709 년 강희제가 넷째 아들인 윤진(胤禛, 후일의 옹정제)에게 하사한 별장으로 출발한 원명원은 1860 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에 의해서 불타기까지 약 150 년 동안 청나라 황제가 1 년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무를 보기도 한, 황실 정원이자 궁정의 일부였습니다. 여러 청대 황제들의 손길을 거치면서 더욱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된 원명원은 ‘원림 중의 원림’으로 평가 받아 왔습니다.<sup>1</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시간만큼이나 파괴된 모습으로 존재해 온 원명원은 중국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약탈된 원명원의 문화재를 환수하려는 시도를 비롯해 중국 내에서 파괴된 원명원의 복원여부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을 만큼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 유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

<sup>1</sup> 여기에서 ‘원명원’은 원명원과 기춘원(綺春園), 장춘원(長春園)을 포함한 원명 3 원을 지칭합니다. 원명원은 강희제부터 시작하여 건륭제에 이르는 약 40 여 년 동안 하나의 원림에서 두 개의 원림이 더해지는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현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풍경구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둘러보는 것이 좋으며, 이번 답사에서 집중해 본 서양루 풍경구역은 장춘원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의 ‘원명원 관광지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번 답사에서 특히 ‘서양루 유적구역’(西洋楼遗址区)에 주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의 ‘원명원 관광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원명원을 거닐면서, 자금성과 이화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황실 원림으로서의 원명원의 옛 모습을 어렵듯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 원명원 관광지도  
남문 매표소 옆에 있던 관광지도로 지도에 표시된 붉은 선이 답사 이동경로임.

기춘원(绮春园) 가장 아래에 있는 남문을 통해 입장한 우리는 길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장춘원(长春园)과 기춘원이 만나는 곳에서 코끼리 열차(라고 우리가 부른 관람차)를 타고 직선으로 쪽 뻗은 대로를 썩썩 달려 장춘원 가장 북쪽의 서양루 구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지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남쪽에서 시작하여 가장 북쪽에 있는 서양루 구역으로 이동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은 물길이 굽이굽이 흐르는 기춘원의 풍경을 감상하는 묘미와 시원하게 뻗



은 대로를 따라 관람차가 달릴 때의 상쾌함으로 넓디넓은 원명원 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양루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명원 입장료 이외에 별도의 요금이 추가되는데, 그만큼 넓은 원명원 가운데에서도 서양루는 특별히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는 장소입니다.

## 서양루 초입에서: 건축의 전파와 동서양의 만남

목적지인 서양루 구역에 도착한 우리를 반긴 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색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베이징 한 가운데에 서양식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도 독특하지만, 일반적인 관광지와는 달리 멀쩡한 건물이 아니라 부서진 폐허더미를 무려 15 위안이나 추가로 지불하고 보러 간다는 것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심상치 않은 원명원 서양루 구역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동시에 떠올랐고, 특히 중국 최고의 황실 원림으로 꼽히던 원명원이 처참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추적해 보는 것이 이번 답사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18 세기 건륭제가 왜 황실정원 안에 서양식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식 건축물을 품고 있던 원명원이 서양인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아이러니와 그러한 폐허를 그대로 두고 곱씹어 보는 21 세기 중국 사람들의 속사정을 들여다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화려함과 처참함의 양극단을 동시에 품고

있는 장소로, 원명원은 18 세기부터 21 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사 속의 중요한 장면들을 떠올리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과연 폐허더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중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품고 서양루 구역으로 조금씩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 원명원 전경도 앞에서

건축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이 응축되어 나타난 물리적 구성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양식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양상은 단순히 물건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왕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교류와 전파는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전파의 현상으로는 타국

에 정착한 사람들이 모국의 방식대로 건물을 지어 새로운 건축양식이 등장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외국인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이 새롭게 등장한 건축양식을 수용하여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더 심도 있는 전파 또는 일종의 문화접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양식에 응축되어 있는 다른 문화권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더 깊숙이 유입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이후 이루어진 유럽 국가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은 아시아권과 유럽권 간의 교류를 촉진하면서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자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건축의 전파’라는 독특한 현상은 호기심에서 몇 가지 물건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타자(他者)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를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실험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 단까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명원이라는 중국의 최고 궁중정원에서 서양식 건물이 공존하게 된 것은 타자를 찾아 나섰던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타자를 갈구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원명원이라는 공간에서 건륭제와 주세페 카스텔리오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축양식의 전파와 동서양의 융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은 원명원이 다시 서양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는 비극적 결말을 되돌아보는 것만큼이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어쩌면 그 시작점부터

추적해 나가는 것이 비극의 원인을 짐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원명원의 이야기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서양의 교류는 17~18 세기의 항로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소위 ‘실크로드’(silkroad)로 불리는 육상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경로로 동서양의 문물들이 교류되어 왔습니다.<sup>2</sup> 그런데 17~18 세기의 동서양의 만남에 주목하는 것은 양자간 만남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19~20 세기의 ‘세계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큰 흐름에서입니다. 즉, 단순히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보다 깊숙이 서로의 문명과 문화가 융합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문명 표준(standard of civilization)으로 묶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러한 ‘문명 표준’이 서양 근대의 것으로 단일화되는 과정은 우리가

---

<sup>2</sup> 답사 마지막 날, 수도박물관 서점에서 발견한 《中外文化交流故事丛书》(Roads to World)를 보면 실크로드로부터 중국과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추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 자금성에 있었던 서양화가 카스틸리오네(낭세녕)의 이야기를 한 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총 10 권 가운데 카스틸리오네 이야기가 제 9 권에 해당되며, 제 8 권은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온 17 세기의 이야기를, 마지막 권은 “Make New Citizens of World”라는 제목으로 현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서가 발간되고 있고, 전체적인 시리즈의 흐름이 결국 세계 속의 중국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이 동서양의 교류와 세계 속의 중국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명원의 폐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19 세기 후반부터 20 세기 초의 시공간에 담겨있습니다. 리귀룽(2008)은 18 세기 서양에 수출된 중국의 발달된 비단과 도자기 등의 물품들이 유럽인들의 예술적 감각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건륭제가 광주를 통해 들여온 서양의 진귀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처럼 영국의 메리 여왕이나 프랑스 루이 14 세 역시 중국의 도자기들을 수집하였으며, 유럽의 유력한 귀족들 또한 이러한 황실을 따라 가문의 문양이 들어 있는 도자기를 주문했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리귀룽 2008, 77).

중국의 부드러운 비단과 우아한 도자기는 서양인의 심미안을 자극하여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이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양의 예술가들은 중국 도자기를 통해 루이 14 세 시대의 우중충한 바로크 양식에서 탈피하여, 낭만적인 로코코라는 예술 양식을 창조했다. 중국 도자기의 표현법은 국제 시장의 유행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변했다. 13 행 시기에 수출용 도자기는 바로크 양식에서 로코코 양식을 거쳐, 영국·프랑스·그리스·로마식 등으로 여러 번 변화했다(리귀룽 2008, 78).

물론 로코코 양식이 발현하는데 중국 도자기나 비단이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물 교류를 통해 본격적인 동서양의 만남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는 점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다른

역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서양식 건축물이 천하질서의 중심이었던 베이징 원명원의 한 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은 눈 여겨 볼만한 현상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건축 양식이 서양으로 전파된 경우도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궁전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 보니 스웨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사절단을 따라 유럽에 간 통역관 장덕이(張德彝)의 기록에 따르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교외에 있는 왕실 별장에서 사절단이 “중국식 방을 보고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놀랐다”라고 하였다고 하며, 그 방을 장식하고 있던 물품들은 모두 광둥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리귀룽은 이 건물에 대해 스웨덴 국왕이 1753년 왕후의 생일 선물로 지은 것으로,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실내 장식까지 광둥의 영남 풍경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며, 당시 중국 문화가 유럽의 궁정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리귀룽 2008, 132-3).

드로트닝홀름(Drottningholm) 궁전의 다른 건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중국관 건물은 붉은 색 벽면에 원찬점정(圓攢尖頂, 원뿔형의 중국 전통건축 지붕양식) 형태의 지붕과 중국 건물에서 자주 나타나는 처마를 연상하게 하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런다(2013)는 홍색(紅色)이 중국의 전체 역사를 관통하면서 중국 각 영역에 스며들어 중국 문화에 깊숙이 깔린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운세가 좋을 조짐, 기쁜 일, 혼인, 떠들썩함과 열정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황런다 2013,

18-28). 지금의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에서도 연상되듯이 붉은색은 중국을 떠올리기에 최적의 색채입니다. 유럽식의 로코코 풍과 중국풍이 스웨덴 식으로 혼합된 결정체로서의 이 궁전을 베이징으로 소환해 본 것은 어떤 융합(fusion)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비록 지금은 폐허만이 남아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서양루 20 경 그림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원명원 서양루 식이 조금 더 세련된 융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겉모습도 그렇거니와 단순히 흉내 내는 것을 넘어서서 서양의 디자인과 설계를 기반으로, 서양과 중국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원명원 서양루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스웨덴의 사례보다 한층 더 ‘고급’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서양루 폐허에서 상상하기

원명원은 중국 고건축 분류 가운데 원림(園林)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단하게는 ‘정원’에 해당합니다. 원림이란 “인위적으로 가공 또는 창조한 자연 환경으로,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하며, 그 종류로는 크게 “경관 지구·대형 원유(苑圍)·황실 원림에서부터 작게는 한 집안의 개인 원림이나, 주택 한구석 혹은 궁실 앞뒤에 산석(山石) 몇 덩어리를 갖다 놓고 연못을 판 다음 사이사이에 수목과 화초를 심어 조성한 정원”(려우칭시

2002, 258) 등이 있습니다.<sup>3</sup> 원명원은 ‘원림 중의 원림’(萬園之園)이라고 칭해질 만큼 역대 황실 원림 가운데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였습니다. 러우칭시는 청나라 최고 전성기를 이룩한 건륭제가 “공명심이 큰데다 유락에 심취한 면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여섯 차례나 강남을 순행하면서 각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북경에 돌아와 원림 조영을 우선 과제로 삼고 토목공사를 크게 실시하였다고 합니다(러우칭시 2002, 262). 특히 원명원 조경의 주제가 ‘물’이었다는 점에서, 강남의 여러 명승지의 경관이 다량으로 원명원 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답사 첫 날 국가박물관에서 본 건륭제의 강남 순행을 그린 긴 두루마리 그림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원명원은 강희 47 년(1708 년)에 만들어져 황제의 넷째 아들, 즉 후일의 옹정제에게 하사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후 40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3 대의 황제를 거치면서 옹정제 시기에 형성된 24 곳과 건륭제 시기에 더해진 20 곳, 장춘원과 기춘원의 각 30 곳을 합쳐 총 100 여 곳의 서로 다른 경관을 자랑하는 대규모의 황실

---

<sup>3</sup> 러우칭시(2002)는 중국의 5 악(五嶽: 산둥성의 태산, 섬서성의 화산, 호남성의 형산, 산서성의 향산, 하남성의 숭산)과 4 대 불산(佛山: 산서성 오대산, 사천성 아미산, 절강성 보타산, 안휘성 구화산)은 여러 대에 걸쳐 개발·경영해 온 유명한 풍경 원림 지구라고 말합니다. 한편, 승덕의 피서산장이나 북경의 북해·향산·원명원·이화원 등은 널리 알려진 황실 원림이며, 강남의 소주·양주·항주와 같은 곳에 수많은 개인 원림이 있습니다. 중국 4 대 명원으로 꼽히는 소주의 줄정원과 유원도 이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러우칭시 2002, 263-7). 원명원 내의 전각, 누각, 정자, 관재 등 각종 조경 건물의 면적은 총 16 만 m<sup>2</sup> 로 자금성 전체의 건축면적보다 1 만 m<sup>2</sup>가 더 넓으며, “역대 궁정 건축양식의 우수한 점만을 취한 것에 더해 평면배치, 외관조형, 건물군의 조합에 있어 궁정식 규범의 속박을 벗어나 다채롭고 창조적인 건축양식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방과 북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건축양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장자성 2014, 34). 이러한 다채로운 건축양식 가운데 하나가 장춘원 북쪽에 세워진 서양식 조경 건축물들이며, 이것이 속칭 ‘서양루’ 라고 불렸고, 현재까지 이 명칭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미감의 건축을 세상의 아름다운 경관을 모아놓은 황실의 원림에 세울 만큼, 당시 청 황제, 특히 건륭제에게 있어 서양의 건축은 동경의 대상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루 구역은 전체 원명원 넓이의 50 분의 1 에 지나지 않지만, 중국에서 시도한 첫 서양식 조경이자 ‘동서양의 교류’라는 상징성으로 인해서 주목해 볼 만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루 풍경구역은 해취원(諧趣園), 선법교(線法橋), 만화진(萬花陣), 양작룡(養雀籠), 방외관(方外觀), 해안당(海晏堂), 원영관(遠瀛觀), 대수법(大水法), 관수법(觀水法), 선법장(線法牆) 등 10 개 건축과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장자성 2014, 29-39). 이 중 해기취(諧奇趣), 해안당, 대수법의 세 곳은 당시 사람들이 ‘수법’으로 불렀던 서양식 분수시설로 서양루의 대표적인 경관이었다고 합니다. 서양루는 건륭 12 년(1747 년)에 건축 계획이 세워졌고 건륭 24 년(1759 년)에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서양 선교사들이 설계한 지도 위에 중국 장인들의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건축양식은 르네상스 후기의 바로크 양식을 따랐지만 정원 설계 및 장식에 있어서는 중국의 전통기법이 적지 않게 도입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MIT 도서관에서 구한 원명원 20 경 그림을 들고 잔해 속에서 옛 원명원의 모습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습니다.<sup>4</sup> 지도와 그림을 비교해 가면서 따라가 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빼곡히 건물과 조형물이 들어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남아 있는 잔해에서도 동서양의 융합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해안당의 현재 모습

뒤편 건물은 완전히 무너지고 앞쪽 분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십이지신상은 서양루 한 칸에 복원돼 있었습니다.

---

<sup>4</sup> 흥미로웠던 것은 원명원 20 경을 출력해 현장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중국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한 번씩 제가 들고 있는 그림을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보거나 중국어로 무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원명원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온 우리 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서양루 구역에서 눈여겨볼 건축물은 세 가지로, 해안당과 대수법, 만화진입니다. 해안당은 서양루 안에서 가장 큰 궁전으로, 물이 테마인 원명원의 일부답게 연못과 멋진 분수가 부속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최근 유명 경매사에서 관련 문화재들이 등장하여 화제가 된 십이지신상이 바로 이 분수의 일부입니다. 해안당 계단 옆에 위치한 큰 연못을 십이지신상이 둘러싸고 있었고, 순서에 따라 매 시각마다 한 차례씩 물을 뿜었다고 합니다. 장자성(2014)은 “서양식 나체 조각상 대신에 12 지신상을 채택한 설계는 동서양 결합의 걸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각을 나타낼 때의 십이지신을 형상화하여 분수를 일종의 물시계로 만들어낸 발상이 탁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들 십이지신상 중 쥐, 토끼 머리가 크리스티 경매장에 나타난 이후 호랑이, 원숭이, 소머리 동상은 중국의 바오리 그룹(中国保利集团)이 매입했으며, 나머지 용과 뱀, 양, 닭, 개머리는 아직 소재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장자성 2014, 36-7).

십이지신상의 중요성은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들의 등장으로 중국 내에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유물을 매입한 바오리 그룹의 이쑤하오(易苏昊) 대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면서 경매에 나온 문화재들은 반드시 매입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이 나라의 치욕을 잊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장자성 2014, 66-70).



▲ 대수법의 현재 모습

서양식의 건축물과 분수가 있었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분수가 작동되면 어떤 장관이 펼쳐질까요?

2000 년 홍콩 크리스티와 소더비의 경매 당시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이후 중국 내외에서는 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논쟁이 본격화 되었으며, 원명원에서 약탈된 유물들 이외의 많은 약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에 관심을 가지며 1996 년에 <국제통일사범협회 문물반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면서 “중국은 역사상 불법으로 약탈당한 문물을 추적하여 찾아올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2000 년에 진행된 홍콩 크리스티와 소더비 경매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자성 2014, 66-70).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는 최근 중국이 각종 공정을 통해서 자국의 역사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의 연장 선상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제기될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재를

되돌려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처받은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아시아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될 것이라 봅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21 세기 중국이 19 세기와 20 세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지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수법은 서양루에서 가장 웅장한 분수로, 황제는 맞은편 관수법에 앉아 전체 분수가 가동되는 모습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사진 매카트니(G. Macartney)와 네덜란드의 사진 티칭(Issac Titsingh)도 이곳에서 분수를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모든 분수가 작동할 때는 마치 산사태가 난 듯 물소리가 몇 리 밖에서도 들리고 분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손짓 발짓으로 대화했다고 합니다(장자성 2014, 36-7). 서양루 20 경 그림을 자세히 보면, 분수의 모습이 마치 불교의 탑과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분수는 그 터만 남아 있고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서양식 건물 앞의 탑이라는 절묘한 조화가 원명원 서양루의 세련된 융합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화진은 유럽식 미궁을 본 따 만든 정원으로, 추석이 되면 황제가 정원 중앙의 정자에 앉아 있고 궁녀들이 노란색 비단을 씌어 만든 연꽃 등을 들고 미로에서 길을 찾는 놀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지름길을 찾아내 황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온 궁녀에게는 상이 주어졌고, 이러한 풍습에 따라 만화진은 일명 황화진(黃花陳) 또는

황화등(黃花燈)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장자성 2014, 37-8). 우리는 이 만화진 미로에서 직접 길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쩌우(Zou 2012)가 지적하듯이, 원명원의 미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로와 달리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정자로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끝에서 끝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중심으로 모여져야 한다는 중국식의 사고방식이 서양식의 건축물에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만화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형상과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셈입니다. 우리는 만화진 미로를 헤매면서 중심으로 가까이 가려 할수록 오히려 더 돌아가게 되며,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대한 멀리 돌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파고 들어야 한다는 인생의 지혜도 배웠습니다.



▲ 만화진 중앙 정자

## 만남과 교감의 협주곡, 서양루에서 울려 퍼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축 양식까지 동서양에 전파되고 융합되는 과정이 가능했는지를 생각해보기 위해 서양루 건설이 이루어진 청조 건륭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청나라와 서양 간에 어떤 방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건륭제가 어떻게 서양 문물과 교감하였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양루의 설계를 담당했던 카스틸리오네와의 만남을 통해 동서양 융합의 현장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 (1) 서양과의 만남\_건륭제의 일구통상 정책

18 세기는 서양 각국이 항로를 통해서 신대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무역을 통한 이득 확보 및 영토 확장을 꾀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청조의 경우 강희제의 해금 정책 이후 동쪽의 해안선을 따라 주요 항구에 유럽 국가들의 선박이 활발히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다른 서양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무역 관장 조직인 동인도회사를 앞세워 중국과의 무역에도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당시 광주의 13 행 미국 상관에 있던 헨터라는 인물이 《광주변귀록》에서 묘사한 바를 살펴보면 이러한 광경을 눈앞에 그릴 수 있습니다.

영국 선단이 광주의 황포항에 들어오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화려로운 큰 배가 대개 20 여 척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끌고 들어왔다. 이 선단은 멋진 대열을 이루어 화물을 실을 때까지 대기했다. 배 위에서는 악단이 연주하며 손님들을 접대했고, 이 소리에 이끌린 많은 중국인들이 구경하곤 했다(리귀룽 2008, 24-5).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인 해금 정책의 기초가 그다지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1757 년 건륭제의 성세 이후 “항구를 광둥으로 한정하고, 서양 선박들은 오직 광주에만 배를 대고 무역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일구통상'(一口通商)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모든 중서 무역을 광주에 집중시키고 다른 세 곳의 해관(海關)을 닫아버린 것입니다(리귀룽 2008, 25). 리귀룽(2008)은 “(건륭제의) 태도는 강경했고, 이상하리만큼 결연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한창 서양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당시에 왜 갑자기 월해관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해관을 닫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의문으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건륭제가 서양을 바라보는 방식 내지 서양을 다루는 방식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일구통상식의 접근방법을 염두에 두고 상상력을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문물이 가지고 있는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곁에 두지만 그것을 천하의 중심인 중국 황제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지 어렵פות이 추측해 봅니다.



건륭제의 ‘일구통상’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양과의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인 광주의 13 행 거리의 외국 상관(商館)과 원명원의 서양루는 당시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서양식 건물이었습니다(리귀룡 2008, 52). 상관의 경우, 외국인들이 직접 드나들면서 사용한 최초의 건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와 같이 외국인들이 상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중국만의 특수한 전파 형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원명원의 경우, 황실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허락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평범한 중국인들도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중요한 정치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여지가 많습니다. 서양의 진귀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외국인들의 내륙 진출은 철저히 막으려는 건륭제의 심정과, 원명원 한 쪽에 서양루를 세우는 건륭제의 의도는 분명 통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카스틸리오네, 낭세녕이 되다

이탈리아인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 1688-1766)가 자금성에 도착한 것은 1715 년으로, 강희제가 60 세를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밀라노에서 태어난 카스틸리오네는 1707 년에 예수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제노바에서의 수사 수련기간 동안 화가로서의 훈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Zou 2011, 85). 광주 13 행 상관에 27 세의 젊은 이탈리아인 선교사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북경으로 올라가자

강희제는 그를 북경으로 데려오라고 명했다고 합니다(리귀룡 2008, 165). 북경에 온 카스틸리오네는 낭세녕(郎世寧)이라는 이름의 중국 화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13 행 상관과 북경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의 생활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을 중국어로 바꾸는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Anorld 2003). 특히 중국식 예절에도 상당히 빨리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희제를 시작으로 옹정제, 건륭제까지 3 대의 황제를 모시면서 궁정 화가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카스틸리오네가 낭세녕으로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카스틸리오네는 중국에 오기 전부터 르네상스 또는 바로크 풍의 유희에 소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양 화풍은 기존의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특히 명암대비를 통해 사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화원(畫員)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양 풍의 그림을 고수하기 보다는 중국의 방식을 따르는 일종의 ‘전향’이 필요했고(Anorld 2003), 카스틸리오네의 작품들을 보면 묘하게 중국풍과 서양풍의 기법들이 조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작품을 남긴 카스틸리오네는 이 작업에 상당히 성공한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륭제의 초상화를 여러 점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당시에 상당한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었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베이징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륭제대열도》(乾隆皇帝大閱圖)(1739)는 카스틸리

오네, 아니 낭세녕의 대표작이자 성공적인 변신의 궁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귀룡(2008)에 따르면, 카스틸리오네는 궁정에서 황제가 선호하는 그림을 꽤 그렸으며, 궁정에서 벌어진 중대한 사건들을 섬세한 서양식 화풍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와 프랑스 화가 아티레(Jean Denis Attiret) 등 네 명이 함께 그린 《평정서역전도》(平定西域戰圖)는 그러한 화풍의 절정이라고 평가됩니다(리귀룡 2008, 165). 그런데 이 그림의 사실적인 묘사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스틸리오네의 제안이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1757년 신장 지역 준가르 족의 반란을 평정한 기념으로 16 폭짜리 그림을 그리도록 했는데, 1764년 카스틸리오네는 건륭제에게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로 보내 정교한 동판화로 만들자고 제의하였다고 합니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1765년 광주 13행의 대표와 프랑스 동인도회사의 대표가 서명한 “《평정서역전도》(平定西域戰圖) 동판 제작 계약서”는 이러한 놀라운 제안을 잘 보여줍니다. 이 계약서에는 행상이 동판 제작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먼저 은 5,000냥을 지불하고 추후 추가 경비도 부담하며, 황제가 명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교하게 계약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16 폭을 각각 다른 배에 실어 파리로 보냈다고 합니다(리귀룡 2008, 165-6). 이 동판의 완성본을 보지 못하고 카스틸리오네는 북경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그의

제안으로 당시에는 상상하거나 실현하기 어려웠던 국제적 예술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만큼은 오래도록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은 중국 내에서도 낭세녕과 같은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답사 마지막 날 수도박물관에서 발견한 책뿐만 아니라 답사를 떠나기 직전 우연히 건륭제 시기를 다룬 중국 드라마에서 서양 궁정화가가 등장하는 장면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황제의 딸>(還珠格格)(1998-2003)을 리메이크 한 <신 황제의 딸>(新還珠格格)(2011)에서 기존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서양인 궁정화가가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고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리메이크 작품에서 어떻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는지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드라마에 등장할 만큼 중국 역사 속에서 청조에 와 있던 서양인 화가들의 위상이 예전보다 높아졌거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방증된 셈입니다.

### (3) 건륭, 서양식 정원 건설을 명하다

건륭제가 처음 서양식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내에 들어와 있던 예수회 선교사들과 무역을 통해 얻은 서양식 궁전을 그린 그림을 통해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Li 2002). 이러한 건륭제의 서양에 대한 관심은 낭세녕에게 원명원 내에 세울 서양식 정원의 설계를 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중국제일역사당안

관 1991, 1357). 단순히 서양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서양을 받아들이고 교감했기 때문에 건륭제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교감이 서양을 추종하여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바꾸는 19 세기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전향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서양에 대해 ‘우리도 이만큼 아름다운 궁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문명이라고 해서 배척하기 보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들의 세계 속으로 편입시켜 보려 한 시도가 18 세기 당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춘원 북쪽 귀퉁이에 만들어진 서양루 구역은 1783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완공되었습니다.

월명원의 서양루에 관한 여러 문건을 살펴보면, 유독 베르사유 궁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베르사유 궁전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강희제와 루이 14 세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리귀룡(2008)은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서양 물정에 관심이 많았던 강희제와 루이 14 세 간의 교류를 대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국과 교역하면서 영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낭만적이고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여, 중국 문화에 깊은 흥미를 나타냈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지고 물질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중국 생산품에 관심을 보였다. 이 차이를 되짚어 보자. 당시 프랑스의 중국 무역량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동·서 문화 교류의 선구자적 자세로 유럽에 진정한 중국 문화를 소개한 것은 바로 프랑스인들이다. 서양 학자들이 프랑스 동인도회사는 정치 조직이었지, 경제 단체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리귀룡 2008, 164-5).

프랑스는 영국보다 70 년이나 빠른 시점에서 광주에 무역 대리인을 파견할 만큼 중국과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강희제의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작용을 보였고, 두 군주간 교류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희제는 1693 년 프랑스 선교사 부베(Joachim Bouvet)에게 프랑스로 돌아가 루이 14 세에게 더 많은 과학자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전하도록 하였으며, 1712 년에는 광주에 서양 선박 소식은 없는지 다섯 번이나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리귀룡 2008, 155). 한편 부베가 그린 중국 귀족들의 관복 그림은 프랑스 궁정에 중국 옷을 모방해 입는 유행을 불러일으켰으며, 강희제는 루이 14 세에게 중국 책 49 권을 선물했고 이는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지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중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전문 선박이 없었고, 이에 부베는 강희제가 프랑스 선박을 보고 싶어 한다며 루이 14 세에게 중국과의 통상을 재촉 했다고 합니다. 강희제의 연해 개방과 루이 14 세의 동양 진출 시도가 결합되면서 1689 년 500 톤급의 '암피트리테호'가 출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배에는 루이 14 세가 강희제에게 보내는

화려한 선물들이 가득했으며, 중국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선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줄 정도였으니 두 국가 간의 ‘러브콜’은 뜨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리귀룡 2008, 156).

한편, 리귀룡(2008)은 강희제의 별장인 원명 3 원 중 장춘원은 루이 14 세의 궁전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석범(2008)은 그의 논문에서 다른 저서를 인용하면서 루이 14 세가 보내온 가브리엘 페렐의 <프랑스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프랑스 도시와 보스케 및 분수를 포함한 <베르사유 궁전의 설계도·단면도·입면도>(1714-5)의 동판 삽화를 보고 흥미를 느낀 건륭제의 즉흥적 결정에 따라 1746 년부터 장춘원 북쪽에 서양루가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원명원 서양루와 베르사유 궁전의 만남은 이미 강희제 시기부터 성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17 세기부터 드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의 교류는 각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인들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왕실 간의 교류를 통해 당시 양국의 고급 예술품과 사치품들이 사절단을 통해 오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왕실과 상류층이 향유하던 문화 속에서 상호 간의 모방과 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인 카스틸리오네가 프랑스식의 궁전을 설계했다는 것은 그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프랑스식 궁전에 익숙해져 있는 건륭제의 적극적인 선호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서양을 품은 원명원이 서양에 의해 파괴되는 아이러니

### (1) 서양의 파괴\_ 약탈의 현장

‘원림 중의 원림’이었던 원명원은 제 2 차 아편전쟁의 혼란 속에서 ‘삼일 동안’이나 불에 타 철저히 파괴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중국 지식인 이대교(李大鈞, 1888-1927)는 원명원 유적을 돌아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장자성 2014, 50). 우리는 서양루 구역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 서서 폐허더미를 뒤돌아보며 이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를 한 번 읊어보았습니다.

원명원은 두 차례나 약탈당했으니,	圓明兩度昆明劫,
옛 조상이 돌아오면 알아보지 못하리.	鶴化千年未忍歸.
슬픈 피리 소리 그치지 않고,	一曲悲笳吹不盡,
남은 재는 저녁 노을 속에 날린다.	殘灰猶共晚烟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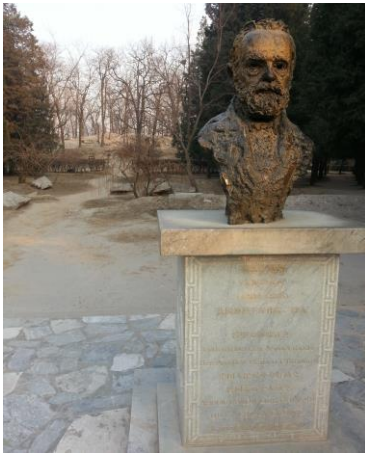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원명원의 파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습니다. “어느 여름 날, 두 명의 강도가 여름 궁전에 침입했다. 한 명이 물건을 깨끗이 쓸어 담는 동안 한 명은 불을 질렀다. 승리자들이란 원래부터가 강도로 변하기 마련이다. 승리자들은 여름 궁전의 보물을 모조리 훔쳐갔고 흠친 물건을 나눠가졌다.”(장자성 2014, 29) 여기서 두 명의 강도란 영국과 프랑스를 가리키는 것이며, 장자성(2014)은 1860년 10월 영·불 연합군이 저지른



야만적인 원명원 약탈과 방화를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재난 가운데 하나이자 중국 근대 문물의 대량유실의 서막을 연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루의 거의 마지막 구역에 빅토르 위고의 흉상과 위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 동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불어로 새겨져 있었는데, 우리 팀이 불어로 소리 내어 읽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중국 현지인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중국어로 이 내용을 소리 내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중국인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원명원 서양루의 폐허를 보았을지 궁금합니다.

1857년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영·불 연합군은 청나라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청 정부에 대한 보복 방법으로 영·불 연합군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결과 ‘인민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고 원명원만 약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장자성 2014, 39-40). 아마도 이미 원명원에 각종 진귀한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 서양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중국 인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전력 낭비를 하지 않고서도 청 황제에게 치욕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약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860년 10월 8일, 영·불 연합군은 소수의 청군 호위병이 지키고 있던 원명원에 난입하여 약탈을 시작하였으며, 장교들에게 약탈의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장교들이 지나간 후에는 병사들에게도 ‘자유롭게 약탈’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가면서 가져가기에 무거운 것들은 그냥 부숴버렸다고 합니다(장자성 2014, 40-1).

영국군 사령관 그랜트(J. H. Grant)의 명령으로 약탈 물품을 모두 경매를 통해 판매하였으며, 판매 대금은 병사와 장교들에게 계급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병영이 순식간에 시장 바닥이 되었다고 합니다(장자성 2014, 44-5). 약탈과 파괴가 자행된 원명원은 방화의 대상이 되었는데, 장자성(2014)의 설명에 따르면 “청 황제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보복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찬란한 피서 행궁을 남김없이 태워버리기로” 결정하였으며, 영국의 수상 파머스턴은 원명원 소각을 승인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방화가 이루어졌으며, 원명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접 방화에 참여한 한 병사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건축물을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인류는 이런



▲ 원명원 서양루 동쪽에 전시되어 있는 빅토르 위고 상

건물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장자성 2014, 46)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이성은 마비되고 오로지 폭력과 탐욕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인류 전체에 남겨주어야 할 보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하기 어려웠을 지도 모릅니다. 공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자신들의 약탈과 장물매매 현장을

남겨놓지 않으려는 심리와 함께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궁전이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는 병사들의 마음은 상당히 복잡미묘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 (2) 서양과의 충돌: 천하질서와 근대질서의 불협화음

18 세기 순조로워 보였던 동서양의 교류와 융합의 흐름이 19 세기 후반의 서양 세력의 우위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근대 서양이 지닌 물리력과 폭력을 중국을 비롯한 동양이 그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일어난 세력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을 품은 원명원을 서양이 파괴하는 아이러니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력 변화만으로는 충분한 답이 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았던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인지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양루와 원명원을 나서기 직전 다시 건륭제로 돌아가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건륭제 시기에는 카스틸리오네도 있었지만 매카트니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중국인이 된 카스틸리오네, 즉 낭세녕의 사례만으로 18 세기 동서양 교류를 판단하기에는 선부른 감이 있습니다. 매카트니의 사례는 낭세녕과는 전혀 다른 상호관계의 양상을 보여주며, 중국의 전통 천하질서와 서양 근대질서의 충돌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되

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서로 동등한 국가 간의 무역을 위해서 먼 뱃길을 감수하고 온 매카트니가 ‘고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지도 모릅니다. 동등한 무역 파트너로서 영국 국왕을 대신해서 온 사절은 적당한 선에서 예의를 보이면 되었지 황제가 요구하는 만큼 신하로서의 예를 갖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건륭제의 생각은 달랐고, 교역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가져온 예물은 주변국이 중심국에 대해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조공의 일부일 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교역관계의 개시를 의미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인식 차이는 적대적인 관계의 시초가 되었으며, 결국 부정적인 피드백의 축적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무력충돌이 중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작동 원리를 천하질서에서 근대질서로 바꿔게 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청이 진작부터 유럽과의 만남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업혁명 식의 발전경로를 거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동서양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진작 국력을 기르지 못했느냐는 책임론을 제기하기 이전에 그 전제가 되었던 세계관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질서가 무너진 지 이제 겨우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우리는 당시 질서에 대해 헤비아(James Hevia)식의 논의가 맞는지, 로사비(Morris Rossabi)식의

논의가 맞는지도 선뜻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sup>5</sup> 그만큼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나라의 무력함만을 강조하는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서로의 차이에 주목해 봄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19 세기가 21 세기에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 원명원을 나오면서  
여전히 많은 질문과 이야기들이 남아있었지만, 경쾌한 걸음으로 마치 행진하듯 길을 점령한 우리  
답사 팀의 모습입니다.

---

<sup>5</sup> 사랑방 수업시간에 다른 두 학자에 관한 논의는 동아시아의 전통 천하질서를 어떠한 이론적 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천하질서를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논리와 이론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자!

**이주원:** 원명원 답사하면 지금도 고민하지 않고도 떠오르는 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유정 누나가 그림 들고 설명할 때 모이던 중국 사람들, 두 번째는 십이지신상 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동물, 세 번째는 마지막의 시 읊조리기. 아, 추가하면 미로! 진짜 원명원을 그렇게 재미있게 돌아본 사람들은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김민결:** ‘건축 문화의 전파’라는 시선으로 파괴된 비극의 공간이 품은 과거의 찬란함을 복원하는 구성이 읽는 이의 입장에서 참신했습니다. 직접 미궁 속으로 들어가 공간을 체험한 저희 이야기도 살아있어서 흥미로웠고요.

**오승희:** 제가 만화진 미로찾기를 즐기고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기자님과 함께 맨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헤맸던 만큼 나올 때는 쉽게 찾아 나왔습니다^^ 원명원은 아무런 준비 없이 방문한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던 유정의 붕괴전 건물들의 사진이 소중한데, 저작권 문제로 답사 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김선경:** 보고서 앞 ‘튼튼한 다리’를 보고 완전 공감 중…… 돌 조각들이 이곳 저곳 흩어져 있는 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 까라고 생각했는데 원명원 파괴 전의 그림들과 유정의 열정적인 발표를 들으면서 원명원을 이렇게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다니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신보람:** 동양사에는 문외한인 저는 원명원을 돌면서, 문명의 표준이 된 서양은 그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인지’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과 ‘행위’로 나타났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원명원을 파괴한 서양인들은 원명원이 ‘가짜’라는 시각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동양인들이 모방할 수는 있지만 절대 재생할 수는 없는 ‘서양’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동서양이 융합된 ‘위대한 건축물’의 진가를 보지 못했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영광과 파괴의 교훈을 동시에 가진 중국은 그럼 어떠한 ‘문명의 표준’을 만들어 낼까요?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自와 他를 보게 될지 (또는 그 경계를 없앨지도 모르지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재성:** 원명원에 들어서니 돌덩이들이 즐비해있어서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유정 누나가 원명원 파괴되기 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현재 원명원을 복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준 이후부터는 이 ‘돌덩이’들이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 참고문헌

- 뢰어 조지. 1993. “淸 皇室의 서양 화가들.” <미술사연구> 제7호: 89-104.
- 리귀룽. 이화승 역. 2008. 《제국의 상점: 중화주의와 중상주의가 함께 끈 동상 이몽 광주 13행》. 서울: 소나무.
- 베이징 고궁박물관 공식홈페이지. <http://www.dpm.org.cn>.
- 스웨덴 왕궁 공식 홈페이지.  
<http://www.kungahuset.se/royalcourt.4.367010ad11497db6cba800054503.html>.
- 이주현. 2009. “乾隆帝의 西畵인식과 郎世寧회풍의 형성.” <미술사연구> 제23호: 81-114.
- 장자성. 박종일 역. 2014. 《근세백년 중국문물유실사》. 고양: 도서출판 인간사랑.
- 정석범. 2008. “장 드니 아티레(Jean-Denis Attiret, 王致誠)와 로코코 미술의 동아시아 전파.” <미술사연구> 제22호: 273-306.
- . 2009. “乾隆帝의 西畵인식과 郎世寧 회풍의 형성 : 貢馬圖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제23호: 81-114.
- 황런다. 조성웅 역. 2013. 《중국의 색》. 서울: 스튜디오 카멜.
- Arnold, Lauren. 2003. “Of the Mind and the Eye: Jesuit Artists in the Forbidden City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Pacific Rim Report*, April.



Dome: MIT Libraries. “Yuan Ming Yuan (Beijing, China).”

[http://dome.mit.edu/browse?value=Yuan+Ming+Yuan+\(Beijing%2C+China\)&type=subject](http://dome.mit.edu/browse?value=Yuan+Ming+Yuan+(Beijing%2C+China)&type=subject).

Li, Lillian M. 2012.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 2: The European Palaces and Pavilions of the Yuanmingyuan*. Massachusetts:

MIT Visualizing Cultures.

[http://ocw.mit.edu/ans7870/21f/21f.027/garden\\_perfect\\_brightness\\_02/ymy2\\_essay.pdf](http://ocw.mit.edu/ans7870/21f/21f.027/garden_perfect_brightness_02/ymy2_essay.pdf).

Thomas, Greg M. 2009. “Yuanmingyuan/Versailles: Inter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Chinese and European Palace Culture.” *Art History* 32 (1): 115-43.

Zhang, Angela M. 2010. “Ignorant Gaze: George Macartney’s Negotiation with China in 1793.”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Zhu, Jing. 2010. *Foreign Painter in the Forbidden City*. 北京: 五洲传播出版社.

Zou, Hui. 2011. *A Jesuit Garden in Beijing and Early Modern Chinese Culture*. West Lafayette: Purdue University Press.

———. 2012. “The Idea of Labyrinth (Migong) in Chinese Building Tradition.”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46 (4): 80-95.

中國第一歷史檔案館. 1991. 《清代檔案史料 圓明園》上, 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서태후가 살아 숨쉬는 이 곳

## \_이화원(颐和园)

김선경

파리정치대학

### 이것만은 알고 가자!

- ◆ 개 관 시 간: 성수기 4월1일~10월31일 6:30-18:00, 비수기 11월1일~3월31일 7:00-17:00
- ◆ 입 장 료: 30위안(성수기), 20위안(비수기)
- ◆ 종합 입장료: 60위안(성수기), 50위안(비수기)
- ◆ 홈 페 이 자: [www.summerpalace-china.com](http://www.summerpalace-china.com)

## 들어가며

자금성과 월명원의 답사가 끝난 후 드디어 저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니 너무 추워 급히 목도리도 하나 장만했지만 베이징의 강추위는 좀처럼 가지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유정이의 발표가 끝나고 이화원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니 발표 준비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지체되어 이화원에 조금 늦게 도착한 우리는 서둘러 표를 끊고 동궁문으로 입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고대하던 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 시내와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화원은 중국 최대 규모의 황실 정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전국 중점문물보호물로 지정된 이화원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표 명소입니다. 이화원은 서태후의 여름 별장으로 피서와 요양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서태후가 각별한 관심을 둔 곳입니다. 서태후가 이화원을 재건하기 위해 해군 예산을 유용하였고, 청일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동북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이곳은 서태후와 깊은 인연이 있는 장소인 동시에 국제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화원과 서태후의 이야기는 19 세기 말~20 세기 초의 중국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서태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양극화된 상황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서태후를 보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화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정치적 배경을 이해하고, 무려 40 년 동안 청나라의 권력을 장악했던 서태후를 정치가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 이화원을 가다

이화원(颐和园)은 12 세기 초 금나라 때 처음 조성되었으나, 지금의 정원 형태로 짓기 시작한 건 1750 년 건륭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화

원이 아닌 칭이위안(清漪園, 청의원)이라는 이름이었으며, 황제가 휴양하는 정원으로 사용되었는데 1860년 2차 아편 전쟁 때 원명원(圓明園)과 함께 영국과 프랑스 군대에 의하여 불타버렸습니다. 이후 서태후가 말년에 요양할 장소로 이곳을 재건축하면서 이름을 이화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서태후는 단오(음력으로 5월 5일)가 지나면 이화원을 갔다가 만수절(서태후 생일인 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자금성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광서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금성에서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황제가 존재했음에도 당시 실질적인 집권자는 서태후였으므로 이화원은 정치적, 외교적 활동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이화원의 면적은 약 290만 m<sup>2</sup>로 중국 최대 규모의 정원입니다. 백 개가 넘는 건축 명소와 3,000 개의 고대 건축물, 그리고 크고 작은 정원이 20 개나 있으며 정원 안에는 4 만개의 유래가 깊은 골동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화원을 관광하는 주요 코스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동궁문(東宮門, 동궁문)으로 입장해 런서우덴(仁壽殿, 인수전)-쿤밍후(昆明湖, 곤명호)-위란위안(玉蘭園, 옥란원)-러서우탕(樂壽堂, 악수당)-창랑(長廊, 장랑)-스팡(石舫, 석방)-쑤저우제(蘇州街, 소주가) 등의 순으로 관람한 뒤, 베이궁문(北宮門, 북궁문)으로 퇴장하거나 스팡(石舫, 석방)에서 배를 타고 룡왕묘(龍王廟, 용왕묘)를 관람한 뒤 이화원의 남면(남문)으로 나오는 코스입니다. 두 번째는 동궁문(東宮門, 동궁문)-완서우산(萬壽山, 만수산)-파이윈덴(排雲殿)-포상거(佛香閣, 불향각)-칭옌팡(淸晏舫, 청안방)-쿤밍후(昆明湖, 곤명호)-룡왕묘(龍王廟, 룡왕묘)-스치쿵차오(十七孔橋, 십칠공교)로 가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동하면 이화원을 한 바퀴 돌아 다

시 들어온 입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코스를 선택하였고 동궁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 이화원 지도

이화원을 관람하기 전 잠시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원 내 만수산 동쪽에는 궁궐건축이 위치하고 있고, 만수산 앞뒤로는 사찰 건축물, 뒷산 호수구역에는 강남민속건축, 뒷산 중앙에 있는 티베트 라마교건축, 곤명호 서북쪽에는 서양의 기선을 모방한 석방(石舫)등이 있어 다양한 건축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화원은 정원이 수행했던 기능에 따라 크게 조정구역, 주거구역, 율림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구역과 주거구역은 이화원의 동쪽에 위치하며 앞쪽은 조정구역, 뒷부분은 주거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화원 곳곳에 깃들여 있는 서태후의 이야기를 이러한 공간에 따라 전개하고자 합니다.

## 역사의 공간, 조정구역의 이야기

이화원의 조정구역인 인수전(仁壽殿)에 들어가려면 우선 첫 번째 문인 동쪽 대문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정중앙에 있는 동국문은 태후와 황상, 황후만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룡열 2010). 그 양 옆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여기는 후궁들과 왕가 종친의 정실부인, 귀족과 대신들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모퉁이 문은 장경과 잡무 담당자들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동쪽 대문으로 들어서면 인수문(仁壽門)이 나오고 인수문을 통과하면 광서제와 서태후가 집무를 보던 곳인 인수전(仁壽殿)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 태후와 황상, 황후의 문, 동국문(东宫门)



▲ 인수전(仁壽殿)

인수전은 외국사신 접견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곳으로 바깥 궁정에 속합니다. 본래의 이름은 근정전(勤政殿)이었으나 재건축된 이후 공자의 《논어·옹야편》 지자락(知者樂), 인자수(仁者壽) ‘어진 정치를 하는 자는 장수한다’라는 의미를 따서 인수전(仁壽殿)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인수전 앞에는 청동으로 된 용과 봉황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각각 황제와 황후를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는 황제를 상징하는 용이 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나, 인수전 앞에는 황후를 상징하는 봉황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용은 양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태후가 당시 최고 권력자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수전은 1898년 변법자강운동(變法自強運動)이 논의된 중요한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변법자강운동은 동치제의 지지 하에 서양



의 군사기술을 도입해 근대화를 꾀하려다 실패로 끝난 양무운동(洋務運動)을 계승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무운동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원인은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 및 보수세력들이 이를 비판하고 견제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청일 전쟁의 패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청일전쟁 발발 12년 전 청나라와 일본은 해군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비 확장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은 상당한 해군 증강을 한 반면, 청의 북양 함대는 1880년대 말경부터 사실상 증강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12년 동안 청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동진이(董進一)의 《북양 함대와 류공다우》(北洋海軍と劉公島)에 의하면 청나라는 1891년 재정난으로 인해 북양, 남양 함대의 함선과 대포 구입을 2년간 금지하여 북양함대는 한 척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서태후가 이회원 보수건축 등에 거액을 소비하여 재정난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당시 청 조정은 광서제의 제당(帝黨)과 서태후의 후당(后黨)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고, 이런 당파 갈등으로 인한 내부 분열로 외부 침략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청은 함선 82척, 어뢰정 25척 등 총 8만 50천 톤의 4개 해군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북양함대만 참전했고 남양함대 등 나머지 세 함대는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정난과 세력다툼은 청일전쟁의 패배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청일전쟁 패배 이후 충격을 받은 광서제는 양무운동에 대해 회의를 느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젊은 사상가들의 개혁 정책을

을 지지하게 됩니다. 양무운동이 서양의 과학기술과 군수기술의 도입에 개혁의 비중을 두었다면 변법자강운동은 근본적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중심엔 Kang Youwei(康有爲, 강유위)와 Liang Qichao(梁啓超, 양계초)가 있었습니다. Liang Qichao는 1897년 후난성(湖南省)의 진보적 관료 및 학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개혁을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황실이 무능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개혁은 지역과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Kang Youwei는 북경에서 황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Kang Youwei는 문제를 정치제도의 개혁에 국한시키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중국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로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도적인 변화가 진정한 공자의 원칙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개혁 모델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광서제가 개혁 법안들을 제정하고 공포함으로써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1898년 6월 16일 광서제는 이곳 인수전에서 Kang Youwei를 만나 2시간 가량 비밀담화를 나누었습니다. 광서제는 Kang Youwei와의 개혁 논의를 통해서 입헌군주제의 전환을 비롯한 근대적인 개혁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근본적 정책’을 공포하는데 광서제의 스승이었던 Ong Donghua(翁同龢)는 이 순간을 1898년 6월 11일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폐하는 황태후의 법령을 공포하였다. [...] 서태후는 청나라가 지금부터 명백한 공포 등의 포괄적인 서양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

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서양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도덕과 철학을 버리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과감하게 의견 표명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나는 이 의견을 철회하고 칙령의 초안을 작성했다(장용 2013, 221).

옹동화(翁同龢)의 일기를 보면 서태후의 개혁법안을 광서제가 공표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서태후는 양무운동 당시 개혁에 반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태후도 처음부터 광서제의 개혁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서제는 이화원을 찾아가 서태후에게 변법 상소문을 올렸고 처음에는 서태후도 그의 개혁을 지지했으나, 이후 개혁의 화두가 서태후를 공격하면서 지지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변법파는 서태후를 제거하려 했고, 당시 병권을 장악했던 위안스카이는 변법파를 배신하며 이 사실을 서태후에게 알렸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을 따르던 청 왕조의 보수파들과 함께 무술정변을 일으켜 광서제를 유폐하고 그를 따르던 변법파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결국 변법자강운동은 103일만에 진압되고 서태후는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서태후는 개혁 그 자체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변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개혁운동을 좌절시킨 것이었습니다. 변법자강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광서제는 실권을 상실하게 되고 서태후는 그를 자금성의 중남해 영대에 유폐했습니다. 1899년 국세의 불안정으로 자금성에 돌아간 서태후는 일 년 후인 1900년 봄에 다시 이화원으로 돌아왔습니다.

5. 서태후가 살아 숨쉬는 이 곳: 이화원



▲ 광서제가 변법자강운동 실패 이후 거주하던 옥란당(玉瀾堂)

인수전 남쪽에 위치한 옥란당(玉瀾堂)은 본전과 두 개의 보조전각으로 이루어진 삼합원(三合院)형태의 건물입니다. 이곳은 본래 건륭제가 국사를 처리하던 장소였는데, 일설에 의하면 후에 서태후가 이화원으로 올 때면 광서제도 함께 데려와 옥란당에 연금했다고 합니다 (Warner, 1973). 선통제 부의(溥儀)의 영어 교사였던 레지날드 존스톤 (Reginald Johnston)에 의하면 광서제가 머물던 곳은 정문 이외의 다른 통

로를 벽돌로 봉쇄해 아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서태후가 광서제를 옥관당에서 실제로 감금시킨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태후가 그를 감금시키고 모든 사람과 단절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자들은 감금에 관한 이야기가 현정권을 비판하고 중국 백성과 서구 세력에 입헌군주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급진적인 개혁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급진적 개혁파와 그들을 지지하는 서구 세력의 글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반대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감금의 여부는 상관없이 광서제가 변법자강운동의 실패 후 실질적으로 폐위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수전 보좌에 서태후가 앉게 되고, 광서제는 구룡보좌와 영원히 고별한 채 임시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서태후는 다시 한번 청 황실의 강력한 권력자임을 과시합니다.

황실의 서태후와 광서제의 권력투쟁이 서태후의 승리로 마무리되어가던 무렵, 중국에서는 민중들의 반외세투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열강 세력들의 중국 이권 침탈이 심해지면서 국내외로 나라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자급자족체제였던 지역은 항구가 개방되고 값싼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농민들은 많은 경제적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중국 내륙에 진출하고자 철도부설권을 얻었고, 이후 철도 건설로 인해 중국인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세력의 확대 및 산둥성 지역의 홍수와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은 기아의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국인들은 불

만을 외세에 돌렸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의 비밀결사인 의화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서태후의 지지에 힘입어 의화단은 날이 갈수록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외교관을 공격하며 교회와 외국 공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은 청조의 조정에게 의화단을 진압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태후는 의화단을 잘 활용하면 이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믿고 1900년 6월, 열강들에게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양조의 시초부터 중국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친절히 대우하였다. 도광제(道光帝)와 함봉(咸丰) 황제의 통치 하에 그들은 자유로이 무역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종교를 보급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그들은 이러한 우리의 인내심과 관대함을 이용하여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짓밟았으며 왕국의 부를 착취하였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모든 양도는 신과 현자들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분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용감한 애국자들은 예배당을 불태우고 개종자들을 죽였다. 황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의화단과 개종자들이 국가의 아이들로서 동등할 것을 선언하고 공사 일행들과 개종자들을 보호하는 칙령을 내렸다. 하지만 어제 대고포대(大沽炮台)를 그들에게 내어달라고 촉구하는 특사가 파병되었다. 그들은 대고포대를 강제로라도 빼앗아갈 속셈이었다. 이러한 위협은 모든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담론에서 그들의 호전적인 성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눈물을 머금은 채 우리는 전쟁을 선포했다. 자기 보존을 위해 영원한 불명예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 투쟁을 하는 것이 낫다.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관료들도 이 뜻에 마음을 같이 한다. 그들은 공식적인 소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만 명의 의화단을 모집하였다. [...] 모든 아이들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창을 가지고 다닌다(Warner 1972, 193).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결국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연합군을 조직하여 베이징에 급파하였습니다. 베이징이 2달 만에 함락되자 1900년 8월 12일 이화원에서 피서를 즐기던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황급히 자금성으로 향하고 14일 연합군이 전면 공격에 나서자 서안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화원도 약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태후의 장신구와, 옷, 비단 등 값진 물건들은 도둑맞고, 경극장은 불타버렸습니다. 결국 서태후는 이홍장과 경친왕 혁광(慶親王 奕劻)을 앞세워 열강들과 협상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1901년 12월 중국은 열강 11개국과 베이징 의정서(신축조약)를 체결하게 됩니다. 11개국은 의정서에서 청나라가 247명의 선교사, 66명의 공사관원, 3만 명의 중국 기독교 신자들을 죽인 대가로 배상금을 연간 4%의 이자로 6,750만 파운드, 즉 45억 냥을 1940년까지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상 열강의 중국 통치를 강화시키는 불평등 조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태후는 망설임 없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방적인 조약이었기 때문에 서태후가 반대할 수도 없었

지만, 조약에 서태후의 처벌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 광서제의 재위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태후는 한시름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화단 운동을 일으킨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했으므로 서태후는 단군왕 재의(端郡王), 이친왕 부정, 보국공 재란을 파직하고, 장친왕 재훈, 도찰원좌도어사 영년(英年), 형부상서 조서교와 산시(山西)지역의 지사 육현(毓賢)을 처형했습니다. 의화단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 서태후는 역사가 다음과 같이 새로이 쓰여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의화단은 우리의 수도를 장악한 것도 모자라 왕좌까지 탐하였다. 그 당시 공표된 법령은 사악한 태자와 대신들이 국가 혼란을 틈타 몰래 황제의 도장을 찍어 공표한 것으로 그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달랐다(Warner 1972, 216).

1901년 7월 수도로 귀환한 서태후는 1898년 광서제가 추진했던 변법자강운동과 비슷한 신정개혁(新政)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정개혁은 중앙 업무 기구인 독판정무처(督辦政務處)의 설치를 시작으로 근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였고, 교육,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도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서태후는 다양한 방면에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내외적 역량 부재로 개혁은 또 한번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 서태후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주거 구역 이야기

옥란당 뒤쪽에는 서태후의 주거구역인 덕화원과 낙수당이 있습니다. 덕화원(德和園)은 서태후가 경극(京劇)을 관람하기 위해 거의 맨날 찾던 곳으로 중국 4대 경극극장 중 하나입니다. 1891년부터 1895년 동안 서태후는 은화 71만 량을 들여 덕화원을 지었습니다. 서태후는 이곳에서 광서제와 오페라를 관람하며 중국 예술과 오페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따라서 이 곳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수당(樂壽堂)은 원래 건륭황제가 모후를 모시고 곤명호의 절경을 감상하던 곳이었는데 훗날 서태후는 이곳을 개조하여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낙수당 안에는 옥좌를 중심으로 그 뒤에는 팔자형 병풍이 있었고 그 앞에는 화로와 병 등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낮은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 위에는 베개가 놓여져 있었고 침대 아래에는 등받이가 없는 낮은 의자가 있었습니다(통열 2010, 214). 서태후가 일상 생활을 하던 이 곳에는 많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화원은 사방이 물과 산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해 각다귀, 나방, 모기 등의 벌레가 많았습니다. 벌레가 증가하는 여름이 되면 서태후는 벌레를 피하기 위해 낙수당 침전에 차양을 쳤습니다. 이 차양은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들 수 있게 했고, 자유롭게 여단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낙수당 정전 앞을 포함해 차양 사면에는 물을 빼는 고랑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에 차양을 치고 나면 서태후는 대부분을 차양 안에서 생활했지만

동물을 매우 좋아하여 아침이 되면 낙수당 밖 층계 아래서 비둘기 떼들을 감상하곤 했다고 합니다(봉열 2010). 서태후는 지상낙원 같은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예컨대 그녀는 매끼마다 120가지의 요리와 400여 가지의 후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특히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장소에 따라 옷을 바꿔 입었으며 한번 입은 옷은 절대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 서태후의 주된 생활공간이었던 낙수당(乐寿堂)

### 적극적인 외교의 현장, 원림 구역의 이야기

원림 구역은 자연과 조화된 풍경유람 공간이며 만수산과 공명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황족의 휴양, 연회잔치, 예불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수면의 3/4을 차지하는 공명호(昆明湖)는 중국인들이 손수 파서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만수산(万寿山)은 공명호에서 파낸 흙을 쌓아 만들었다고 하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공명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매 구역에는 작은 인공섬이 있습니다. 그 외의 원림 구역의 구성은 루(樓), 각(閣), 정(亭), 랑(廊), 석방(石舫), 사(寺), 교(橋)등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덕화루(德和樓), 옥대교(玉帶橋), 석방(石舫), 장랑(長廊), 소주가(蘇州街), 십칠궁교(十七拱橋)이며 간략하게 장랑과 석방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 추위에 떨면서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김선경 학생

광서 12년에 재건된 장랑(長廊)은 동쪽 요월문에서 서쪽의 석장정까지 이어지는 복도로 모두 273칸이 있고 총 길이는 무려 728m에 달합니다. 서태후가 산책을 하기 위해 지어진 장랑에 그려져 있는 그림

은 무려 14,000쪽에 달합니다. 장량의 대들보에는 인물, 산수, 화초, 조류 등 각종 채색화 8천여 폭이 그려져 있고 그 외에도 소제춘효, 평호추월, 단교잔설 등의 고전 소설과 서태후의 애호에 맞춘 희곡 문화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가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에 류가(留佳), 기란(寄瀾), 추수(秋水), 청요(清遙) 4개 8각 처마로의 정자가 있으며 중국의 옛 정원 중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 중국 옛 정원 중 최고의 길이를 자랑하는 장량(長廊)

반면 장량의 서쪽 호숫가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수상건 축물인 석방(石舫, 스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륭제가 만든 대리석 배에 서태후가 2층의 목조 건물을 추가적으로 쌓아서 만든 것으로 달빛을 감상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연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 하안 대리석으로 된 수상건축물 석방(石筋)

날씨가 좋으면 서태후는 공명호에서 연꽃을 가로지르며 배를 타고 호수를 유람했습니다. 서태후가 한번 움직이면 호위병에서 요리사까지의 모든 궁인들이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선상의 요리사만 20명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인원이 따라다녔는지 짐작이 됩니다. 서태후가 타는 배는 용주(龍舟)라고 불렸습니다. 용주 가운데에 있는 선실은 높고 실내가 탁 트여 있었으며, 선실의 덮개는 목재를 유리 기와식으로 새기고 그 위에 황색 도료를 칠했습니다. 선실 안 양쪽 가장자리에는 진주조개를 박은 칸막이가 있었고, 용과 봉황이 그려진 휘장이 걸려있었으며, 금 낚시바늘 두 개가 높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실 한가운데는 팔자형 병풍이 놓여있었고 병풍 앞에는 옥좌가 있었으며 옥좌 앞에는 불상과 화로 등의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용주에서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며 음악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연회장소가 아닌, 서태후의 중요한 외교적 거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의화단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서양과 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한 서태후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외교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였습니다.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과 사절단의 부인들을 궁으로 초대하여 차도 대접하고 선물 공세를 하는 등, 이곳 원림 공간은 그러한 만남의 장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당시 서태후는 주도교 대사이자 주파리 대사였던 유경(裕庚)의 딸인 유덕령(裕德齡)과 용령(容齡, Rong Ling)을 궁으로 불러들여 서양 문화와 정세를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두 딸은 서태후와 함께 이화원에서 지내면서 통역과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유덕령과 용령에게는 친 오빠인 훈령(勛齡, Xunling)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일본에서 취미로 사진을 배웠다고 합니다(Hogge 2011). 어떻게 훈령(勳齡)이 서태후에게 소개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훈령(勳齡)은 서태후에게 사진을 소개하였고, 서태후는 사진 찍는 매력에 푹 빠지고 맙니다. 서태후는 낙수당에 스튜디오를 세우고 훈령(勳齡)을 초대하여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현존하는 서태후의 사진들은 이 당시에 찍은 것들입니다.

그녀가 사진을 찍는 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사진을 통하여 자신의 손상된 이미지를 황실권위, 종교적인 경건함 등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개선하여 무너진 황실의 명성을 되찾고자 했으며,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국제적인 지지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추

측됩니다. 따라서 이화원의 원림 공간은 서태후 말년 외교적 노력이 엿보이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48년간 천하를 호령했던 여인 서태후,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앞서 말한 개혁과 외교관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조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져있었습니다. 의화단 운동 후 무력하고 민심을 잃어버린 청 제국을 뒤집고 한족이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는 한족의 혁명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저기 반란과 사변이 물 끓듯 일어났습니다. 광서 34년 7월에 중국에는 광서제가 사망할 것이라는 흥흥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달 스무 하룻날 밤에 큰 별이 서북 편에서 날아와 길웅을 거쳐갔는데 그 소리가 우리 같고 꼬리가 수십 발이 되며 빛이 황홀하였다. 그런데 그 별이 마침내 동남 편에 날아가서 떨어졌다(양백화 1988, 259).” 광서제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 갔고 그 해 11월 14일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5일, 청나라를 호명하던 서태후도 74세의 나이로 그녀가 사랑한 이화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48년간 천하를 호령했던 철의 여인 서태후. 파란만장한 삶이었던 만큼 아직도 그녀의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과연 그녀는 청조를 멸망하게 한 잔혹하고 악랄한 통치자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삶에 가려진 황실의 외로운 여인이었을까요?

분명 서태후에게서 잔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조가 멸망한 후 서태후의 이야기는 열강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더 잔혹한 여자로 표현이 되었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훌륭한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국익을 뒤로 한 모습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심화되는 열강들의 침략 속에서 청나라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태후의 이러한 모습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정치가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태후를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해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녀만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 에필로그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던 터라 너무 추웠던 탓에 모두들 재빨리 이화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답사 보고서에 쓸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찍으려고 했지만 이화원 개관시간이 마감되어 쫓겨나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차에 올라탄 기분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답사 발표를 준비하며 느꼈던 모든 피곤감과 긴장감, 그리고 하루 종일 느꼈던 추위가 이 차의 온기와 함께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밤의 하이라이트인 딤섬을



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덩섬을 배불리 먹은 뒤 발 마사지를 받으며 저도 모르게 잠이 솔솔 쏟아졌습니다. ■



##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자!

**이주원:** 엄청 추웠던 것이 생각나요! 하지만 곳곳하게 발제를 해냈던 선경 누나. 추운 날씨만 아니었다면 누나가 가고 싶었던 석방 같은 장소들, 발품 팔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약조건에서도 성공적으로 서태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불굴의 발표’!

**김민결:** 서태후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국내에서 ‘서태후 다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글이 전개되는 것이 읽는 이의 입장에서 흥미로웠습니다. 구역의 성격에 따라 공간에서 드러나는 서태후의 각기 다른 모습을 나타낸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오승희:** 여름 궁전인 이화원을 겨울에 가서 그런지 건물도 나무도 춥고 황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 바람에 맞선 선경이의 열정적인 발표 덕분에, 서태후에 대한 기존의 선입관을 넘어서 정치인으로서 여인으로서의 서태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유정:** ‘여름 궁전(Summer Palace)’답게 이화원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추웠습니다. 12월이 아닌 한여름에 방문을 했더라면 진정한 여름 궁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금성의 웅장함은 아니지만, 이화원도 그 나름의 위

압감을 지니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만수산의 높이는 호수의 깊이를 짐작하게 하였고, 긴 회랑을 따라 호수 너머로 피어나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서태후는 과연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에 적당한 거리의 회랑을 따라 걸으며 서태후에게도 그 당시 그런 선택들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결과론적으로 그녀를 비난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더 일찍 해가 저서 그런지 웬지 모를 을씨년스러움과 호수를 바라보며 궁벽에 기대어 악기를 연주하고 있던 한 악공의 노래자락이 어울려져서 비극적이었던 청나라 말기의 이야기를 떠올리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중국의 꿈’을 펼쳐나갈지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 볼 문제라는 여운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신보람:** 서태후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정치 방식이라든가 정당성(legitimacy) 구축 방식이 전통적인 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 예외성이 또 우연찮게도 청의 몰락기와 맞닿아 그녀 스스로도 ‘여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자를 탓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어쩌면 중심에서 벗어난 공무가 아닌 휴양을 위한 장소였던 이화원이란 공간 자체가 중국의 여자 지도자로서 서태후가 당면했던 한계

와 현대에 와서는 그녀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이재성:** 원명원을 돌 때, 계속 혼잣말로 발제 연습을 하던 선경이 누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히죽히죽 웃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의 심정으로 선경이 누나를 관찰했죠. 선경이 누나의 설명이 없었다면 그냥 한강 고수부지나 테마파크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충 보았을 원명원인데 선경이 누나의 설명 덕분에 이화원과 관련된 서태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참고문헌

- 릉얼. 주수련 역. 2010. 《서태후와 궁녀들》. 서울: 글 향아리.
- 서상문. 2014. “청일전쟁에서 읽어야 할 교훈.” <국방일보>. 10 월 15 일.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  
&bbs\\_id=BBSMSTR\\_00000000251&ntt\\_writ\\_date=20141016](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251&ntt_writ_date=20141016)  
(검색일: 2014.12.22).
- 양백화. 1988. 《西太后》. 서울: 깊은 샘.
- 이화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summerpalace-china.com/>  
(검색일: 2014. 12. 22).
- 펼벽. 이종길 역. 2007. 《연인 서태후》. 고양: 길산.
- 허룡 · 박수경. 2013. “노자사상의 관점에서 본 북경 이화원 특성 연구-유무상생·상반상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32호.
- CCTV. 2013. “이화원 제 4 부 세월에 부대끼 꿈의 낙원.”  
<http://kr.cntv.cn/20131012/102514.shtml> (검색일: 2014.12.22).
- Bland, J.O.P., and Edmund Backouse. 2011. *China Under the Empress Dowager: The History of the Life and Times of Tzu Hsi*. Hong Kong: Earnshaw Books.
- Chang, Jung. 2013. *Empress Dowager Cixi: The concubine who launched modern China*. New York: Alfred A. Knopf.
- Chung, Sue Fawn. 1979. “The Much Maligned Empress Dowager: A Revisionist Study of the Empress Dowager Tz’u-Hsi (1835-1908).” *Modern Asian Studies* 13 (2): 177-196.
- Gregory, John S. 1959. “British Intervention against the Taiping Rebell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19 (1): 11-24.
- Howard, Richard C. 1969. “The Chinese Reform Movement of the 1890s: A symposiu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9 (1): 7-14.

- Hunt, Michael H. 1972. "The American Remission of the Boxer Indemnity: A Reappraisal."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1 (3): 539-559.
- Kahn, Harold L. 1967. "The Politics of Filiality: Justification for Imperial Action in eighteenth Century Chin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6 (2): 197-203.
- Kwong, Luke S.K. 1983. "Imperial Authority in Crisis: An Interpretation of the Coup D'état of 1861." *Modern Asian Studies* 17 (2): 221-238.
- Ling, Der. 2008. *Two Years in the Forbidden City*. n.p.: Tutis Digital Publishing Pvt. Ltd.
- Liu, Kwang-Ching. 1970. "The Confucian as Patriot and Pragmatist: Li Hung-Chang's Formative Years. 1823-1866."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0: 5-45.
- MIT visualizing cultures. "Empress Dowager and the Camera." Accessed December 1, 2014.  
[http://ocw.mit.edu/ans7870/21f/21f.027/empress\\_dowager/index.html](http://ocw.mit.edu/ans7870/21f/21f.027/empress_dowager/index.html).
- Seagrave, Sterling. 1992. *Dragon Lady: The Life and Legend of the Last Empress of China*. New York: Vintage Books.
- Warner, Marina. 1972. *The Dragon Empress: Life & Times of Tz'u-hsi 1835-1908 Empress Dowager of China*. New York: Atheneum Books.

# 마오쩌둥의 시체정치학

## \_마오쩌둥 기념당(毛主席記念堂)

신보람

캠브리지대학교

###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위 차: 北京市 东城区 前门东大街11号
- ◆개관시간: 08:00~13:00  
(마오쩌둥의 생일인 12월 26일, 사망일 9월 9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추가 개장한다)
- ◆휴 무 일: 월요일
- ◆요 금: 무료(개인 소지품 보관료 2元-10元)
- ◆가는방법: 지하철 13호선

## 들어가며

한 도시가 ‘수도’로서 가지는 의미를 실감하게 하는 랜드마크로 마오쩌둥 기념당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장소는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 면적 44만m<sup>2</sup>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텐안먼 광장 중심부에 위치한 마오쩌둥 기념당은 휴관일을 제외하곤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으로, 1977년 개관 후 지금까지 약 16억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찾은 외국 방문자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지방에서 수도를 방문한 중국인들이 꼭 한번 ‘순례’를 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이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을 맞아 참배를 위해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 마오쩌둥 배지. 15RMB의 저렴한 가격에 텐안먼 광장에서 구입

베이징 답사 전,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마오쩌둥 기념당 관련 사진들은 수정관에 잠든 중국의 ‘붉은 별’을 보기 위해 줄을 선 관광객들의 행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남짓 줄을 서고, 몇 분 남짓 기념당 안을 관람했다는 (그것도 빨리 움직이라며 등을 떠미는 삼엄한 경비들의 재촉을 받으며) 후기들을 보며, ‘왜?’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왜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마오쩌둥 기념당에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마오쩌둥 기념당의 상징적 장소(symbolic place)이자 역사적 체험의 공간(historical space)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답사가 우리에게는 언뜻 이해 되지 않는 ‘절대 존엄’의 의미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중국 공산당이 신을 창조해낸 과정과 권력이 바뀌는 과정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 1976년 9월 9일, 중국의 붉은 별이 지다

1976년 9월 9일,  
새벽 0시 15분,  
마오쩌둥 주석이  
사망합니다. 그 전  
날만해도 공식 매  
체는 마오쩌둥의  
건강 악화 사실을  
함구하였고, 중국



◀ 마오쩌둥 기념관 외관

인들은 ‘중국의 붉은별’이 영원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9월 9일, 중국 전역에는 하루 종일 ‘중요 방송’에 대한 예고가 되풀이 되며 불길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중국 전역에 장송곡과 함께 마오쩌둥 주석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단결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마오쩌둥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요구했지요. 높이 휘날리던 오성홍기가 낮게 걸리고, 천안문에 걸린 마오 주석의 초상화에는 검은 휘장이 걸렸습니다.

마오쩌둥의 추모 대회는 사망 후 9일이 지난 9월 18일 치러졌습니다

니다. 천안문 광장은 백만 명의 군중으로 메워졌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후 3시가 되자 시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작업을 멈추고 묵념했습니다. 유튜브(YouTube)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마오쩌둥 장례식 자료 영상을 보면, 중국을 이루고 있는 각 민족과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민족을 상징하는 전통 의상 또는 자신의 직업을 상징하는 유니폼 차림으로 그룹을 지어 움직였습니다. 당 간부, 군인, 노동자, 소수민족 대표단, 그리고 학생 순이었습니다. 모두 검거나 붉은 완장을 차고, 오성홍기로 덮인 마오쩌둥의 시신 곁을 지나갔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화장(火葬)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1944년, 중국 공산당은 조상숭배 문화 철폐 및 호화로운 장례 문화의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1956년부터는 화장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은 화장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부 관계자들에게 화장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게 했고, 개정법에 따라 1976년 전에 사망한 모든 당원들과 정부 인사들은 화장되었습니다. 마오쩌둥 자신 또한 생전에 “내가 죽으면 화장하고 재는 양자강에 던져 물고기 밥에 되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의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산케이신문특별취재반 2001, 64).

마오쩌둥의 사후 처리에 관해서는 문화대혁명의 주축이 된 4인방(장칭,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원위안)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9월 9일, 마오 주석의 사망 소식을 알린 중앙 방송 또한 덩샤오핑에 대한 비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4인방의 메시지를 담

고 있었지요. 사망 소식을 전한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또한 이 점을 수상쩍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4인방은 문화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마오쩌둥의 개인 숭배와 군중 폭력을 통해 화궈핑의 세력을 압박하고 권력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10월 4일, 4인방은 공산당 당보인 광명일보에 ‘영원히 모(毛) 주석의 기정 방침대로 나아가자’라는 문혁(文革) 노선 계승을 강조하는 글을 실었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상하이에 10만 명에 가까운 민병들을 모집하고 무장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4인방의 체포를 지휘했던 정치국원 겸 중앙 판공청 주임 왕둥싱에 따르면, 마오 주석의 유체를 영구히 보존할 것과 천안문 광장에 기념당을 세울 것을 이미 중앙이 결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의 주치의였던 리지수이도 자신의 회고록에 그와 비슷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리지수이에 따르면 주석의 사망 소식을 어떻게 알릴지와 장례 절차에 대한 당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에 참석한 왕둥싱이 같은 결정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리지수이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방부 처리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추모대회가 열리기 전 이미 마오 주석의 시체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추모일인 9월 18일 전까지 사체 보존 기술을 들여오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소련에서 시신 방부 기술을 배운 베트남으로 연구팀을 보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추모대회를 하루 남겨둔 17일, 리지수이와 그의 연구팀은 포르말린에 절인 마오쩌둥의 시신을 천안문 광장에 마련된 빈소로 운반했습니다 (리지수이 1997, 47-54).

왜 중국 정치국이 마오 주석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오쩌둥 신격화의 주역으로 문화혁명기에 정권의 중심이 된 4인방이 독단적으로 마오 주석의 사후를 결정지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죽은 마오쩌둥’의 상징적 가치가 컸다는 것입니다. 장칭과 그 일행 못지않게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거론된 화궈핑도 장례절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질국을 통해 관을 제작할 최상급 수정을 전국에서 공수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화궈핑 주석은 마오쩌둥 기념당 건축 계획을 공표합니다. 같은 날, 그의 정적이던 4인방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인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됩니다. 결국 공산주의 중국의 신은 산 사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인민을 위한 그리고 인민에 의한 ‘신’

12월 23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미리 줄을 서기 위해 주원이와 텐안먼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광장 근처는 아직 이른 아침의 스산함이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광장에서 공간의 구도와 그곳에서의 관람객들의 동선을 ‘역사를 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찬찬히 돌아보았습니다. 이윽고 텐안먼 광장의 정치적 역할이 더 확실히 보이더군요.

마오쩌둥 기념당은 추모 공간이기에 앞서 전시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념당에는 수정관에 안치되어 있는 마오쩌둥 외에도 중국 공산당

5대 서기들 즉 조우언라이(Zhou Enlai, 1989-1976), 류샤오치(Liu Shaoqi, 1898-1969), 주더 (Zhu De, 1885-1976), 첸윈(Chen Yun, 1905-1995)과 3번째 주석 덩샤오핑(Deng Xiaoping, 1904-1997)의 대리석 동상들이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5대 서기들과 같은 1세대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으나 1971년에 소련으로 망명을 꾀한 린바오(Lin Biao, 1907-1971)는 이 곳에 기념될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즉, 마오쩌둥 기념당은 ‘마오쩌둥’으로 상징되는 현대 중국의 ‘올바른’ 역사 의식(historical ideology)을 추진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홈페이지는 기념당을 ‘애국 교육을 위한 민족적 장소’(national place of patriotic education)라 설명하고 있습니다(中國共產黨新聞網 2006).

사회주의 국가들은 종교를 타도하는 대신 국가를 대표하는 ‘신’을 내세웠습니다. 1994년 사망한 김일성과 2011년 사망한 김정일 부자를 포함하여, 소련의 레닌(1925년 사망), 베트남의 호치민(1969년 사망), 앙골라의 네토(1979년 사망), 가이아나의 번햄(1985년 사망)까지 사회주의 국가 주석들이 방부 처리되어 유리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퍼진 괴이한 장례문화는 1923년 스탈린-트로츠키의 정치적 대립에 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1923년 뇌졸중을 겪은 레닌이 아직 살아있을 당시, 스탈린은 레닌의 사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레닌은 러시아인이므로 러시아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하지만 몇몇 동지들은 현대 과학이 죽은 자의 시체를 방

부 처리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존 가능케 한다고 믿고 있다. 적어도 인민들이 레닌의 정신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음을 인지할 기간 동안은 보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Tumarkin 1997, 174).

스탈린처럼 방부처리를 지지하는 소련 공산당 간부들은 소련의 월등한 과학의 힘보다 레닌의 상징적 가치에 더 주목했습니다. 반면 스탈린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과학일 뿐 레닌의 장례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로츠키는 역으로 레닌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것은 러시아 정교(Orthodox church)의 성인(聖人) 숭배 의식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하며, 무신론을 원칙으로 하는 볼셰비키 정신과 동떨어진 장례 절차라고 외쳤습니다. 무엇보다 레닌 자신이 어머니와 누나 곁에 조용히 묻히고 싶다고 죽기 전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의 장례 문제는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립의 장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스탈린은 러시아인들에게 익숙한 종교 의식에 ‘첨단 과학’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하여 민중을 단결시켰고, 스탈린에게 패한 트로츠키는 레닌의 장례식에 불참하고 맙니다. 그 후 그는 남미의 한 은신처에서 암살 당하죠. 레닌의 장례식이 치러진 1924년 1월 27일 자 소련 당보인 프라브다(*Pravda*) 신문은 시신의 영구보존이 ‘인민들과 당의 뜻’으로 결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안치되어 있는 레닌의 ‘공공의 몸’(public body)은 스탈린 정권뿐만 아니라 그 후 들어서게 되는 러시아 정상들에게 정당

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개인숭배를 비판한 흐루쇼프도 여기서는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sup>1</sup>

마오쩌둥이라는 한 개인(private individual)이 죽고, 대신 공공의 ‘상징적 몸’(symbolic body)이 탄생하게 된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오쩌둥의 죽음은 중국에 조용하지만 엄청난 폭풍을 야기했습니다. 1976년 10월 6일 밤, 극비에 4인방을 체포한 화궈펑은 10월 8일, 마오쩌둥 기념당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스트-마오쩌둥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회고에 따르면 기념당 건립은 마오 주석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1949년 당 지도자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를 인용하여 1956년 당 지도자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거나, 과도한 선물을 보내는 일, 지도자의 이름으로 거리 또는 건물의 이름으로 짓거나, ‘마르크스’ 또는 ‘레닌’과 이어 부르는 일을 포함하여 개인의 찬양이나 숭배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흐루쇼프의 ‘비밀 연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4월, 마오쩌둥은

---

<sup>1</sup> 1956년 열린 제20회 소련 공산당 총회에서 흐루쇼프는 공산주의 지도자의 사체를 방부처리하는 관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1953년 사망하여 방부 처리되었던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클레멘트 고트발트(Klement Gottwald)의 사체가 1963년 화장되었습니다. 그는 방부처리되어 레닌 옆에 안치되어있던 스탈린의 사체를 기념관에서 옮기는 것에는 성공하였지만, 레닌 기념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레닌 참배 의식을 흐루쇼프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소련이나 동유럽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이같은 장례문화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회국가 주위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인민일보에 실린 글에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비난하며 이는 스탈린이 인민과 현실에서 멀어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0년 뒤인 1966년,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비슷한 우상화의 행보를 걷게 되었습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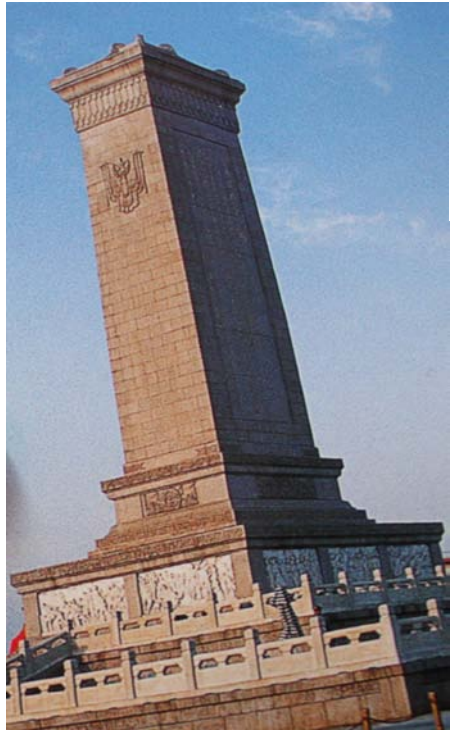
문화혁명이 시작되기 전인 1956년 당시에도 지방 관료들은 덩샤오핑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반대로 마오쩌둥 동상을 곳곳에 세우는데요, 그 이유는 장제스 우상화를 반대하는 한편, 마오쩌둥의 신봉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 관료들이 마오쩌둥의 장수를 빌고 그의 혁명 정신을 세기는 사당을 지었는데, 이 사당을 마오쩌둥 기념당의 전 모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사당은 그 지역에서 나는 최상급의 자재가 사용되었으며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지어졌습니다. 1968년 문화혁명이 한창일 때, 마오쩌둥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개인 숭배가 도를 지나치고 있음을 감지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고, 그 해부터 마오쩌둥 사당을 짓는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혁명이 끝난 뒤에도 마오쩌둥 숭배화는 그 수위는 낮아졌으나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

<sup>2</sup> 1958년 마오쩌둥은 개인 숭배에 대한 재해석을 내놓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숭배의 대상이 개인이냐 민중이냐는 문제는 중요치 않고, 그것이 진실에 기반한 것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혁명적 진실”을 옹호하며 찬양하는 숭배의식은 공산당 정신에 위배되지 않지만, 소련의 스탈린 숭배는 ‘잘못된 숭배’로 혁명적 진실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Mao, 1968).



톈안먼 광장을 역사 체험의 공간으로 본다면, 우리는 마오쩌둥 기념당과 기념당이 위치한 광장의 건축물들과 그 구도에서 중국 역사의 주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양면(正陽門)을 통과하여 톈안먼 관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마오쩌둥 기념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념당은 마오쩌둥의 정신을 계승할 이들은 바로 중국 인민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기념물로, 착공 과정이 매우 흥미로운 건축물입니다. 마오쩌둥 기념당은 1976년 11월에 착공되어 마오쩌둥 사망 1주년인 이듬해 9월 9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중국 각지에서 70여 만 명의 인민들이 기념당 건설을 지원하러 나섰다고 합니다. 즉, 마오쩌둥 기념당은 중국의 인민들이 죽은 주석에게 예를 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중국 인민들이 손수 지었다는 의미가 더욱 부각된 기념물입니다.



◀ 인민영웅기념비

중국 공산당의 랜드마크로 가장 먼저 톈안먼 광장에 등장하게 된 기념물은 바로 인민영웅기념비입니다. 중국 혁명 영웅의 현창비로 1949년 건립 계획이 세워지고 1958년에 완공된 기념비로, 마오쩌둥의

금석문(“영원히 잠들어도 불후하리라”)과 조우언라이가 쓴 현충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받침대에는 1840년 제1차 아편 전쟁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중국의 혁명 투쟁의 역사를 담은 8가지의 장면이 새겨져 있죠. 인민영웅기념비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말하는 이름없는 군인의 무덤과도 같이, 중국인민공화국 건국에 희생된 ‘이름 없는 이’들을 추모하는 기념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순교자’들을 기리는 상징물인 것이지요. 즉, 현재의 중국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이름없는’ 주역들을 기념하는 건축물인 셈이죠. 마오쩌둥 기념당에서 인민영웅기념비로, 그리고 거기서 텐안면과 자금성을 향해 걷다 보면, 중국의 과거와 미래가 바로 이 인민영웅기념비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금성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중국과 마오쩌둥 기념당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중국이 만나는 지점이자, 동(東)과 서(西)로 봤을 때는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국인민대회당과 중국의 역사를 축적하고 있는 중국국가박물관이 마주보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역사의 주역인 ‘중국 인민’이란 결국 마오쩌둥이라는 절대 존엄의 상징처럼 중국이란 국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 중국의 개혁개방과 의식(Ritual)에서 소비(Consumption)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 사회의 인민은 일상 생활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 의식(ritual)에 ‘자발적’으로 동참합니다. 중국의 ‘인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기념당 건축에 참가하고, 나중에는 수정관에 안치된 마오 주석을 방문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즉, 마오쩌둥 이상화에 동참한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들 중에는 분명 젊은 시절, 마오쩌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가슴에 달거나 그의 얼굴이 그려진 손목시계를 차고 다닌 이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홍위병의 상징이기도 한 마오쩌둥 배지는 사실 중국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중국 사회에서 개인의 소속과 신분을 구분하는 용도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국가적 행사 또는 여행지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각각 다른 디자인의 마오쩌둥 배지들은 가게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이었지만 또한, 도시에 사는 인민이면 모두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 배지나 시계는 소지자 개개인의 충성심을 드러내주는 도구인 동시에 개인의 정치 정체성(political presence)을 보여주는 상징물인 셈이지요.

배지를 달거나 또는 마오쩌둥 기념당을 방문한 (혹은, 배지를 달고 기념당을 방문하거나) ‘인민’들 중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오쩌둥의 상징물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념에는 무관심하지만 습관적으로 마오쩌둥을 찬양하거나, 마오쩌둥의 사상에는 반대하는데 감히 입

▶ 마오쩌둥 배지



이 왔을 때는 왜 모두 충격에 빠졌는지를 연구한 알렉세이 유첵(Aleexei Yurchak)은 반복되는 정치적 의식(ritual), 이념 선전과 일상이던 정치 활동이 결국에는 그 속에 담겨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대중으로 하여금 부정(reject)하거나 동조(accept)하기보다는 회피(evade)할 수 있는 ‘해석의 공간’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합니다(Yurchak 2005). 과연 중국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절대존엄에 대한 강조와 일

상화된 정치 의식의 참여가 어떠한 정치적 문화를 만들어 낼까요? 또한, 자본주의적 물질주의(capitalist consumerism)의 도입이 마오쩌둥 상징성에 대해 어떤 ‘해석의 공간’을 열어주었을까요?

저는 소련이 붕괴되고 20년이 지난 2009년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탈-사회주의 과도기에 놓인 러시아의 정치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목격할 계기가 되었죠. 당시 서구에서는 사회주의의 붕괴가

정권교체 이상의 근본적인 변화, 즉 이상적으로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불러오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하는 분위기였죠.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에서는 비록 1당 체제는 사라졌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들어서며 권위주의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밀물처럼 들어온 자본주의가 오히려 러시아의 권위주의를 지속시키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매력적인 걸그룹(girl group)이 ‘푸틴 같은 강한 남자를 원해’라는 댄스 곡을 유행시켰고,<sup>3</sup> 푸틴의 이름을 딴 ‘Putinka’라는 보드카가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sup>4</sup>

그 당시 러시아 사회는 소련 과거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스탈린이 러시아 현대화를 성공시키고 나치 위협을 막은 위대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개인숭배를 강요하고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독재자인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죠. 아울러, 소련이라는 과거가 공포와 정치적 압박의 역사인지 또는 러시아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강했던 영광의 역사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 문화 속에서 소련에 대한 조금 다른 해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구 학자들이 ‘소비에트 키쉬’(Soviet Kitsch)라고 부르는 문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키쉬’란 대중에게 인기가 많지만 저속한 예술을 일컫는 말로, 붕괴된 소련의 문화적 또는 일상 생활 속의 유산들을 패러디를 통해 재해석함으로써 문화 생성의 정치적 목적

---

<sup>3</sup> 걸그룹의 기획사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밝혔으며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sup>4</sup> 보드카 맛은 벨로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과 과정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소련의 예술과 문화는 정치적 상징물이나 이념 담론과 마찬가지로 특화된 정부 기관—작가 연맹, 미술가 연맹, 작곡자 연맹 등—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정부의 지원과 지시를 받아 문화와 예술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문화는 사회주의적 현실주의(socialist realism) 미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고, 당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정치 지도자의 아이코노그래피(iconography) 또한 마찬가지로 엄격한 정부의 개입 아래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레닌의 이미지는 한번 규격화된 아이코노그래피에서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재생산되었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바로 상징의 유일한 저자였던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번 답사에서는 찾아가 보지 못했지만, 베이징에는 ‘홍씨징텐주 티찬탕’(红色经典主题餐厅, 붉은색의 전통을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레스토랑의 특징이 바로 마오쩌둥 시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는 겁니다. 레스토랑 중앙 무대에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홍위병 의상을 입은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동지’라고 부르며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대에서는 홍위병들과 노동자들이 망치와 삽을 들고 나와 마오쩌둥의 어록을 읊거나, 찬양가를 부르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손님들은 즐거운 분위기에 그 시절을 회상하거나,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에 대한 기사를 읽다, 모스크바에 있는 ‘조브 일리차’(일리치는 레닌의 이름으로, 번역하면 ‘일리치의

부름)라는 레스토랑이 기억났습니다. 소비에트 키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련시대 소년단의 유니폼에 붉은 스카프를 맨 종업원들이 소련 시대에 구내 식당에서 판매하던 음식을 서빙하는 독특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나 내국인에게 인기 만점인 ‘맛집’이었죠. 레스토랑의 내부에는 소련 시절에 타부화되었던 포르노그래피와 성신화되었던 레닌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상징이었던 ‘레닌’이 소비를 위한 ‘재해석’을 넘어서 ‘재생산’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정치적 상징이 이념적 메시지를 상실한 소비 물품으로 ‘전략’해 버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마오쩌둥은 중국인들에게 중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기념당에 안치된 마오쩌둥이, 또는 그를 방부 처리한 정부가 의도했던 정치적 메시지가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입니다. 소련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마오쩌둥 상징물은 이제 정부가 아닌 개인 사업체가 재생산 할 수 있는 문화 아이콘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또는 물질주의의 도입으로 소비라는 ‘순수한’ 즉 비정치적인 행위를 위해 재생산되는 정치 지도자의 아이콘을 중국 정부도 딱히 막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팝 아트 요소가 가미 된 마오쩌둥의 이미지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저는 영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미국의 한 문구전문 회사가 내놓은 ‘마오쩌둥 노트 세트’를 구입한 중국인 친구는 자신의 소비

선택이 마오쩌둥의 공과(功過)와는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흥미롭고 디자인이 귀여워서’ 구입했다는 그 친구는 중국에서도 마오쩌둥 배지를 달거나 티셔츠를 입는 것이 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행인지, 이번에 방문한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그려진 상품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오쩌둥 정신이 부활하고 있다는 서구의 우려가 무색하게도, 작년 이맘때 즈음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주석 시진핑이 기념당을 참배했습니다.

▶ 마오쩌둥 기념당 동상 앞



우리는 줄을 선지 10분도 안 되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행렬을 따라 기념당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선발대에 함께 나선 주원이와 저는 마오쩌둥 기념당을 연속 두 번이나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나 느긋하게 말입니다. 물론 기념당 앞에 관람객들의 줄이 얼마나 길게 늘어져 있는지의 여부로 중국인들에게 절대 존엄의 상징이 어떤 의미로 변화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



만, 누군가가 물었던 것처럼 ‘텐안면에 걸린 마오쩌둥의 사진이 내려질 날이 올까?’라는 질문을 중국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던져볼 수 있는 않을까요?

## 나가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솔직히 털어놓자면, 마오쩌둥 기념당은 ‘관람’할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볼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기념당에 들어가기 위해 하루에도 수 백 명의 관람객들이 1시간이 넘게 줄을 서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죽어서는 ‘전시품’이 된 지도자가 자신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의 중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의문이 베이징 답사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번 답사에서는 국가의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상징의 장소가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 상징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국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향후 중국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자!

**오승희:** 마오쩌둥이 태어난 1893년 12월 26일이 있던 주일 아침이라 대기 줄이 길 것이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마오쩌둥 기념당에 줄을 서기 위해 비뻤던 보람과 주원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에는 줄을 서지 않고서도 입장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마오쩌둥 기념당에 입성! 그가 가진 상징성의 무게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본 마오쩌둥의 모습은 생각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인민영웅기념비 앞에서 상징적 장소이자 체험의 공간으로서 마오쩌둥 기념당을 조명했던 보람이의 발제로 베이징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축되어 있는 복합적 공간의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맥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백미네요.

**김유정:** 천안문 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人民英雄纪念碑)를 중심으로 자금성과 마주보고 있는 마오쩌둥 기념당, 국가박물관과 마주보고 있는 인민대회당의 공간 배치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중국 근현대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08년 12월에도 같은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2014년 12월에는 두 가지 점에서 달랐습니다. 천안문 광장을

휩쓰는 칼 바람에 맞서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기줄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내부는 그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내부는 더욱 화려해졌는데 대기줄은 줄어든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중국 내부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흰색 국화를 추모의 상징으로 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란 꽃이 마오쩌둥 동상 앞에 한 가득 놓여 있는 모습을 뒤로 한 채, 20세기의 마오쩌둥이 21세기의 중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재성:** 보람 선생님이 인민영웅기념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자금성과 마오쩌둥 기념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설명해주셨을 때 비로소 저는 그 장소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오쩌둥 기념당 방문 전에는 단순히 자금성과 기념탑, 마오쩌둥 기념당이 있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그 장소가 보여주는 중국의 과거와 근대 그리고 현재를 꿰뚫어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결:** 마오쩌둥의 시신이 중국 현대사의 맥락과 중국 공산당의 지위 측면에서 가지는 상징성을 정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천안문 광장, 인민대회당,

국가박물관 등 굵직굵직한 주요 건물들과 함께한 마오쩌둥 기념당의 배치를 확인하니 그 상징성을 이용한 ‘시체 정치학’의 의미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문헌

- 리즈수이. 손풍삼 역. 1995. 《모택동의 사생활-1》. 서울: 고려원.
- 산케이신문특별취재반. 2001. 《모택동 비록-상》. 임홍빈 역. 서울: 문학사상사.
- Leese, Daniel. 2011. “A Place Where Great Men Rest?: The Chairman Mao Memorial Hall.” In *Places of Memory in Modern China*, edited by Marc Andre Matthen. Leiden: Brill.
- Mao, Zedong. 1968. “Speech Outlines at the Chengdu Conference.” March 10. *Jianguo Yilai Mao Zedong Wengao* 7: 113.
- Tumarkin, Nina. 1997. *Lenin Lives!: The Lenin Cult in Soviet Russia*.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Yurchak, Alexei. 2005.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中國共產黨新聞網, 2006. “毛主席紀念堂.” Accessed December 23, 2014. <http://cpc.people.com.cn/BIG5/69112/113427/6694839>.
- Pravda* . 1924. “Smert' i pokhorony Vladimira Il'icha.” January 21.



## 베이징 불교상(佛教像)이 들려주는 이야기 \_ 베이징 수도박물관

이재성

미야자키국제대학교

### 이것만은 알고 가자!

- ◆ 위 치: 北京市西城区复兴门外大街16号
- ◆ 개관시간: 09:00~17:00 (16:00 입장 마감)
- ◆ 휴 무 일: 월요일 휴관
- ◆ 요 금: 무료(사전 전화 예약 必)
- ◆ 가는방법: 1호선 목서지역 하차 C1 출구에서 300 미터 정도 도보

### 베이징 수도박물관을 들어서며

2014년 12월 28일 오전 아침 일찍 마오쩌둥 기념관을 먼저 방문하고 제 발제 담당인 베이징 수도박물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본래 제 발제 순서는 베이징 답사 이튿날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여행이 그렇듯, 계획대로 시간에 딱딱 맞춰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2박 3일 중 가장 마지막 날 가장 늦게 발제를 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도 긴장을 끈을 놓을 수가 없었고 이

는 대부분의 사진에서 제 표정이 약간 어두운 이유와 없잖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베이징 수도박물관을 답사지로 선택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首都)라는 장소가 한 국가의 문명 표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 국가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담아 가장 잘 표현해내고 있는 공간이 다름아닌 바로 박물관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중국이라는 국가를 방문하는 만큼 중국의 수도 박물관이 주마간산 식으로나마 중국의 문명과 역사를 체험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베이징 수도박물관 앞에서

베이징 수도박물관에 도착해 이 건물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면서 베이징시의 수도(水道) 및 배관 시설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라고 가



벼운 농담을 던졌으나 썰렁한 분위기와 함께 본격적인 베이징 수도박물관 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베이징 수도박물관이 1953년에 설립되었을 때는 본래 자금성 근처 공자 사당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81년에 개관하였으나, 제10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문화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축하게 되어 2006년 5월 18일에 현 위치로 이전하여 개관하였습니다. 박물관은 지하 1층을 포함한 6층 건물이며 각 층에는 도자기, 청동기, 서예, 회화, 옥 공예품, 불교상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수도박물관의 정문을 향해 바라보면 제일 먼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건물 조형입니다. 건물 외형에는 청동색을 띤 토기(土器) 모양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토기 모양은 사실 박물관 내부에서 외부까지 비스듬히 위치하고 있는 원통 모양을 한 조형물의 일부분입니다. 이 원통 안에서 각종 특별 전시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 전시관의 관람을 위해서는 별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박물관은 기본 전시관, 테마 전시관, 임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오후 4시까지만 입관이 가능합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에 있는 다른 박물관과 같이 예약 없이도 언제든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습니다. 답사 둘째 날 원명원에 입장하기 직전 웬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서 승희 누나와 주원이 형의 도움을 받아 베이징 수도박물관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보니 적어도 하루 전날 예약을 해야 입관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일찍이 이 사실을 깨

달았기에 예정대로 박물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수많은 전시관들 중에서도 베이징 수도박물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상(佛敎像) 전시관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제가 불상(佛像)이 아닌 불교상(佛敎像)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교 관련 조상(彫像)들을 불상이라 통칭하여 부르고 있으나, 본래 불상(佛像)이란 부처의 조상만을 지칭합니다. 부처 이외에도 보살이나 사천왕과 같은 불교 인물들을 본뜬 조상들을 통틀어 말할 때에는 불교상이라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베이징 수도박물관 4층 불교상 전시관에서는 원·명·청 시대에 제작된 불교상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전시관에서 장족(藏族) 불교상 혹은 티베트 불교상이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중국 불교상의 양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보면 중국 전통 양식, 티베트 양식, 그리고 중국-티베트 절충 양식이 있는데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이 전시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티베트 불교상 또는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이 북경까지 전파되었을까요? 베이징 수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중국 시대별 불교상이 국제정치적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교상을 유심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 불교상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성 학생

## 라마교와 중국의 중원

불교상의 양식이 특정한 국제정치학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을 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불교상을 유심히 관찰하기 전에 일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중국의 역사를 먼저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북경과 티베트간 교류가 활발해졌을 법한 시대는 아마도 원나라일 것입니다. 원나라는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를 국교로 채택한 만큼 중국의 중원과 티베트의 인연은 원나라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라마교와 중국 중원과의 인연은 원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인연이 가장 깊어지고 빛을 발하는 시대는 다

름아닌 바로 청대입니다. 특히 순치제와 건륭제 재위 시절에 청조와 라마교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 청조에서 가장 위대한 두 황제로 일컬어지는 건륭제(좌)와 강희제(우)의 초상화 앞에서

1653년 청나라의 황제였던 순치제(順治帝, 재위 1643-1661)는 티베트에서 온 달라이 라마 5세(達賴五世, 1617-1682)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이는 중국 중원에서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이 북경까지 전파되어 오늘날 베이징 수도박물관에 티베트 불교상 및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이 전시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티베트 불교와 중국 대륙 간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본 후 달라이 라마 5세와 순치제의 만남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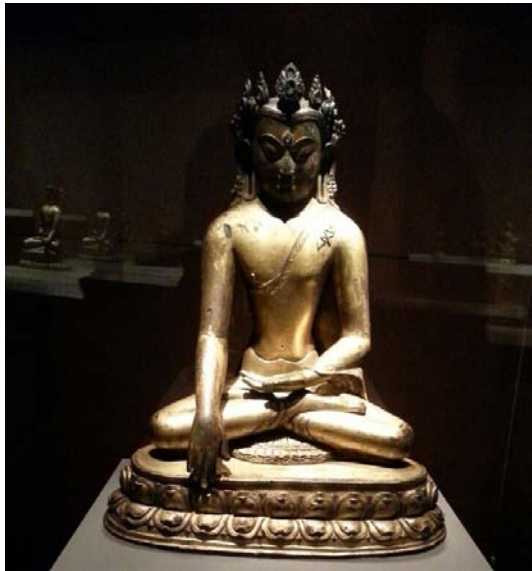
티베트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스레 주

변 유목 민족들과 교류가 많았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이루어진 교류를 통해 불교가 전파되었습니다(조재송 2004). 기원후 7세기에 인도에서 티베트로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되었습니다. 기원후 12세기 전후에 인도에서 주요 승려들이 티베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결과 티베트 불교계가 인도 불교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따라서 티베트 불교는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 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한자로는 장전(藏傳)불교 혹은 라마교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라마’라는 단어는 본래 ‘Blama’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Blama’는 덕 높은 스승을 뜻하는 단어로, 훗날 중국에서 티베트 불교의 승려를 라마로 부르던 것이 고착화되어 라마를 신봉하는 불교를 라마교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달라이 라마’라는 고유 명사도 티베트어인 ‘라마’와 몽골어로 큰 바다를 뜻하는 ‘달라이’가 합쳐진 말입니다. 라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라는 이름에 몽골어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라마교와 몽고족의 제국이었던 원나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라마교는 주변 유목 민족들과 교류가 많았는데 그 중 라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민족 중 하나가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고족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의 손자이며 원(元, 1206-1367)을 건국한 쿠빌라이 칸은 티베트 승려를 국사(國師)로 임명함으로써 티베트 불교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몽고제국 내에서 라마교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었고 중국의 중원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불교상과 관련하여 원대는 티베트 불교상의 전입기였기

때문에 베이징 수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대의 불교상 중 상당수가 티베트 양식입니다. 그런데 원대의 티베트 양식 불교상의 외형적 특징 중 하나는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는데, 이는 몽고족이라는 민족적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두가 눈에 띄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티베트 양식 불교상의 공통적 특성입니다. 아마 티베트 또는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을 가장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유두가 표현되어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여러 중국 불교상과 관련된 사진들을 보다가 발견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말하니 처음에는 다들 민망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불교상을 보면서 티베트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구별하는 것을 모두들 굉장히 즐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좋은 지식을 공유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축불상 (원대) / 티베트 양식

그러나 원대의 라마교는 국가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종교적 성격보다는 세속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원나라가 망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원나라가 몰락한 이후 라마교의 영향력도 자연스레 감소하게 됩니다.



▲ 석가모니상 (명나라 시대)/ 절충 양식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明, 1368-1644)을 건국한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은 본인 스스로가 황각사(皇覺寺)라는 절의 승려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마교로 인해 원나라가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마교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한족들이 라마교를 신봉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라마교 자체를 배격하지는 않았습니다(배진달 2005). 물론 실제로 라마교 승려들이 베이징을 방문할 적에는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원이 망한 이후에도 라마교가 종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은 명대에 중국 전통적 양식과 티베트 양식의 특징이 조합된 절충 형태의 불교상이 나타나는 이유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절충된 양식의 불교상에서 인물의 표정은 오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과 달리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전통 양식의 영향입니다.

그렇지만 티베트 양식의 특징인 유두 돌출로 미루어보아 당대 티베트 양식의 조상 방법이 어느 정도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북방 유목 민족인 만주족은 청(淸, 1636-1912)을 세우고 명나라에 이어 중원을 제패했습니다. 만주족의 부흥과 함께 라마교 또한 두 번째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청조가 라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조인 승덕제의 건국 정신은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에 있다고 할 만큼 청조는 라마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계환 2014). 만주족이라는 명칭에서 ‘만주’라는 말의 어원이 문수보살의 ‘문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불교라는 종교가 청조에 있어서 특별했음을 의미합니다. 순치제와 특히 건륭제는 자기 자신을 문수보살의 화현(化現)이라 여기었는데, 문수보살(文殊菩薩, bodhisattva Manjusri)이란 불교에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왕의 정신적 화신으로 여겨지는 인물로 전륜성왕(轉輪聖王) 또는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바르틴(chakravartins)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물은 중국의 산서성에 위치한 오대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북경에서 남서쪽으로 16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종교적 중요성을 가진 장소로, 서기 7 세기 이래 중국에서는 문수보살의 고향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13 세기에 문수보살과 원의 황제 쿠빌라이 칸이 인연을 맺으면서 오대산에 새로운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었고, 이는 훗날 청조 황제들이 오대산을 자주 들르는 이유가 됩니다(엘리엇 2011). 청조와 라마교의 관계는 1653 년 초에 순치제가 달라이 라마 5 세를 책봉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당시 달라이



라마 5 세가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데, 이처럼 외국 사신이 황제를 방문하는 일은 조공(朝貢)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치제와 달라이 라마 5 세의 만남은 여느 외국 사신의 조공과는 달랐습니다(김성수 2009). 첫째, 달라이 라마 5 세를 초청하려는 시도가 승덕제(崇德帝, 재위 1626-1643)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황제가 궁성을 나가 황실의 화원인 남원(南苑)에서 첫 만남을 가질 정도로 달라이 라마 5 세를 극진히 대접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순치제는 달라이 라마 5 세에게 베푼 연회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높이의 자리에 나란히 앉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라싸의 포탈라와 티베트 남부 삼예 사원에 있는 벽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달라이 라마 5 세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화살 4 개가 날아갈 만큼의 거리까지 간 후, 나는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고, 황제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는 서로 십여 보씩을 걸은 후, 손을 맞잡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 후 황제는 허리 높이의 의자에 앉았고, 나로 하여금 가까이에 앉도록 했는데, 나는 황제의 의자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앉았다. 차를 마실 때, 나에게 먼저 마시라고 했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우리는 동시에 함께 마셨다. 이처럼 나를 대하는 예의가 돈독했다(王輔仁 1982, 328).

이러한 세 가지 차이점은 당대 라마교가 청대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라마교에 대한 우대는 순치제가 달

라이 라마 5세에게 수여한 칙봉오세달리라마책문(敕封五世達賴喇嘛冊文)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내용인 즉, 서로의 인연이 송덕제 이래 계속 이어졌으며 달라이 라마 5세가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임을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김성수 2009).

하늘의 보살핌으로 시간을(현재를) 다스리는, 황제의 명령, “내가 듣자 하니, 모두를 아울러 다스리는 자와 홀로 선한 자가 근원을 밝히는 도리는 같지 않다고 하며, 세상을 떠난 자와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가르침을 세우는 이치 또한 다르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마음을 맑게 하고, 천성에 따른 행위를 분명히 하며, 온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만민의 영도자는 모두 한 가지 뜻으로 통하게 된다. 룡상잠소(룡상가초) 달라이라마 당신은 빛나는 지성을 바르게 키우고, 지혜가 매우 깊은 까닭으로, 마음과 행동 모두를 다스려, 일체의 사물을 헛된 것이라고 하고, 그로써 불법을 널리 알려 우매한 중생을 가르쳐 이끌었으니, 불법이 서쪽에서 성하여, 그 선한 이름이 동쪽에 알려진 것을 아버지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들어 찬양하고, 영접하러 사신을 보내 만났을 때, 그대(달라이라마)가 미리 하늘의 뜻을 알고, ‘용해(1652 년)에 만나도록 합시다!’ 라고 하였다. 나는 하늘의 보살핌으로 시간을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한 후, 진정으로 초청하기에 적당한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지금 보아하니, 사람됨이 자애롭고, 언사에 절도가 있으며, 충기와 현명함, 학식을 고루 갖춘 등 은혜를 베풀고, 이치를 궁구하는 문을 널리 열었으니,

이는 마치 밝은 길 위의 계단과 배 같으며, 또는 불법이 [높은] 산과 [하늘의] 별 같음이다. 이에 나는 극찬하는 金冊과 인장을 주어, ‘西天大善自在佛이며, 세상의 모든 불교 교단을 이끄는, (普通金剛持)달라이라마’라고 추대하였다. 적당한 때에 가서 불교를 융성하게 한 까닭으로 모두 기뻐하며 연회를 베풀도록 하였다. 불법을 떨치게 하고, 수없이 많은 중생을 구제하였으니, 이것으로 상중의 상(上上乘)이라 하겠다. 이로 인해 金冊과 인장을 주었다.”(中國第一歷史檔案館 2002, 10-11; 김성수 2007, 75 재인용).



▲ 판첸라마 4세 상(칭나라)\_티베트 양식

순치제와 달라이 라마 5세의 만남에 이어 청조와 라마교의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은 건륭제 때 이루어집니다. 건륭제가 칠순이 되는 1780년에 판첸라마 6세가 황제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열하(현재는 승덕(承德)으로 불림)를 방문했습니다.<sup>1</sup>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 사신단과 함께 열하에 갔던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sup>1</sup> 판첸라마는 라마교에서 달라이 라마 다음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에 따르면, 건륭제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 조선 사신단에게 판첸라마 6세는 자신에게 스승과 같은 분이니 스승의 예로 알현하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건륭제가 판첸라마 6세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 티베트 불교상: 티베트에서 베이징까지

베이징 수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불교상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티베트 양식 불교상들의 특징은 관능미(sensuous beauty)인데 이는 인도와 네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중원을 기준으로 티베트 양식 불교상의 전래가 원대에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전성기는 청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조와 라마교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원대부터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은 북경과 만주와 몽고에서 유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중국 전통 양식의 불교상이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때 청조의 지원을 등에 업고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배진달 2005). 과거 중국에 대해 유교 국가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관능적인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이 황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 베이징 수도박물관을 나서며

청조에게 유교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품기 위한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건륭제는 청조가 유가를 숭배하고 도를 소중히 하며 공자를 기리는 예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엘리엇 2011). 유학을 신봉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의 정책과 비교하면 청조와 라마교 사이의 깊은 관계는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청조에게 만주족이라는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다수인 한족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와 동시에 제국 내에 소수민족들을 품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두를 껴안지 않으면 제국은 분열될 테니 말이죠. 이는 청대 불교상에서 티베트 양식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통 양식이 보이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불교상이 중국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자금성에서 불교상 제작과 관련하여 일련의 지침들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건륭 5년(1740)에 불교상 제작의 기준이 서술되어 있는 <조상량도경>이 찬술되어 여기에 의거하여 티베트 불상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일률화되고 형식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건륭 14년(1749)경에 룰패 도제가 저술한 <제불보살성상찬>은 청 황실 발원의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과 관련되는 중요한 책으로, 이 책에 근거하여 많은 불교상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배진달 2005). 자금성에서 내려온 일련의 불교상 제작 지침서들은 ‘단일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교상 제작은 제국 통합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목표는 중국화 또는 한족화와 결부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티베

트식 불교상의 중국화는 당시 청대 라마교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 민족인 한족이 등을 돌리지 않는 선에서 라마교를 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청나라 황제들이 티베트 양식의 불교상 제작을 위해 후원을 했던 것은 청조가 티베트를 제국의 일부분으로 남겨두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하자!

**오승희:** 티베트 불상 전문가가 된 재성이의 유쾌한 발표 덕분에 불상을 자세히 그리고 재미있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베이징이 수도로서 갖는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신보람:** (I hear your pain……) 중국의 외교사에서 불교(더 정확하게는 라마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불교상의 변천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재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종교와 외교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향후 더 연구해 봐도 좋을 주제인 것 같아요(미술사와 인류학, 정치외교학을 한 번에 잡는 다면적이면서도 융합적 연구가 되겠군요). 그럼 정말 그들이 왜 유두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겠죠. 신의 얼굴이라는 게 사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을 드러내는 거울이라 할 수 있으니 그 유난히 도드라진 부분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김유정:** ‘국가’ 박물관과 ‘수도’ 박물관이 가지는 위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여 멋스러운 불상을 감상하고,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은 수도박물관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건륭제에 대한 특별전이 끝나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면서도, ‘복합 군주’로서의 건륭제의 모습을 다른 유물들을 통해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치의 수단으로서 폭력과 ‘문화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균형감은 건륭제가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만한 역량의 기반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수도박물관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기념품점이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각자 베이징을 다시 회상할 때 요긴할 것들을 하나씩 득템(?)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나섰던 것이 떠오릅니다.

**김선경:** 재성이 마지막 날 발표하느라 발 마사지도 마음 편히 못 받아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티베트 불상의 특징을 말하며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발표가 기억에 남네요. 이 글을 읽으면서 딱 재성이가 묻어나네요~^^

**김민결:** 청조 불상을 중심으로 중국 역사에 깃든 ‘복합’ 요소를 분석하는 글의 주제가 읽는 이의 입장에서 흥미로웠습니다. 근거리에서 직접 촬영한 불상 사진들을 활용해서 생동감이 더욱 느껴져서 인상적이었고요.

**이주원:** 배관 시설을 전시해놓았다는 야심찬 애드리브(?)부터 가슴(?)으로 본 불상 관람기까지(순화하면 재성 식의 독특한 불상 해석기) 재성의 발제는 톡톡 튀는 재미와 함께 알찬 내용도 함께! 마지막 발제여서 힘들었을 텐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줘서 너무 고맙웠어요!



## 참고문헌

계환. 2014. 《중국불교》. 서울: 민족사.

김성수. 2009. “청대 불교 세계의 여행.” 동양사학연구 2, 봄: 33-58.

김성수. 2004. “티벳불교권의 형성과 청조 번부 지배체제.” 명청사연구 22, 105-131.

마크 C. 엘리엇. 2011. 《건륭제》. 양희웅 역. 서울: 천지인.

박지원. 《열하일기》.

배진달. 2005. 《중국의 불상》. 서울: 일지사.

장진성. “열하와 대청제국”.

[https://mpep.snu.ac.kr/common/download.asp?fileidx=1366&filename=%C0%E5%C1%F8%BC%BA\\_%B0%C7%B8%A2%C1%A6\\_%B0%AD%C0%C7%C0%DA%B7%E1\\_2.pdf&filepath=%2FUploadFile%2FBoard%2F61f15ea3-5aac-4ddc-89d1-58c670fa498a.pdf](https://mpep.snu.ac.kr/common/download.asp?fileidx=1366&filename=%C0%E5%C1%F8%BC%BA_%B0%C7%B8%A2%C1%A6_%B0%AD%C0%C7%C0%DA%B7%E1_2.pdf&filepath=%2FUploadFile%2FBoard%2F61f15ea3-5aac-4ddc-89d1-58c670fa498a.pdf)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조재송. 2004. “티벳불교와 유목제국의 정치적 연계과정에 관한 고찰.” 중국학연구 29: 247-274.

Capital Museum China. 2005. *Selected Works of Ancient Buddhist Statues*. Beijing: Beijing Publishing House.

Farquhar, David M. 1978. “Emperor as Bodhisattva in the Governance of the Qing Empi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8 (1): 5-34.



# 798에서 중국의 미래를 읽는 7가지 이야기

## \_798 예술구

김민걸, 김선경, 김유정, 신보람, 오승희, 이재성, 이주원

### 이것만은 알고 가자!

- ◆ 명 칭: 798 예술구 혹은 다산즈예술구(大山子藝術區)
- ◆ 위 치: 北京市朝陽區酒仙橋大山子地區
- ◆ 관람시간: 전시관마다 운영시간 다름

## 들어가며

수 천 년의 중국 역사를 따라 시공간을 넘나들며 지적 상상력을 펼쳤던 답사의 마지막 일정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주제는 2000년대 이후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이슈로 ‘부상’하였고,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그에 따라 국제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동아시아의 역사를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결국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읽어내기 위한 좋은 렌즈를 갖고 닦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답사

에서도 중국의 역사를 추적하는 동시에 21세기와 22세기, 그리고 그 이상의 ‘미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국제 정치학적으로 미래의 중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근 1~2세기 현상뿐만 아니라 더 길고 깊은 역사의 호흡을 통해 ‘동아시아’라는 공간 속에서 중국이 어떠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해 왔고 주변국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선 답사 일정에서 이러한 역사적 고민을 했더라면, 마지막 일정인 798 예술구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종합해보면서 중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798 예술구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갤러리와 상점들, 예술인들이 왕성하게 교류하는 개방적인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여러 행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공간인 만큼 방문객인 우리가 그 속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것도 다양했습니다. 각자의 관심사와 시점에 따라 798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재해석하면서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일곱 가지의 방법과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결국 “어떤 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가?”, “왜 첨단 과학단지이자 한국의 용산과 같은 중관촌(中關村)이 아니라 798에서 중국의 미래를 보려고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일곱 가지 이야기를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중국의 미래와 만나게 될 것인지에 관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 798 예술구와의 첫 대면

### 선경의 이야기: 베이징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징 798 예술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동고동락했던 베이징에서의 이틀이 금방 지나가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재성이의 수도박물관 발표가 끝난 후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798 예술구로 향했습니다. 모두들 발표를 마친 뒤라 흥가분한 마음으로 798에 도착했습니다. 798 예술구는 본래 소련과 독일의 기술로 세운 무기 공장이었는데 냉전이 끝난 후 예술인들이 임대료가 낮고 접근성이 좋은 이곳으로 하나 둘씩 모여 들면서 예술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798이라는 이름도 여러 무기 공장 중 예술가들이 최초로 입주한 구역이 798공장의 소재지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예술구는 베이징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국제적인 예술도시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 예술구를 둘러보기 전에 우리는 점심 먹을 곳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798 중심 거리에 있는 음식점들은 대부분 서양식 레스토랑이나 카페여서 중국 음식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국 음식점을 찾아 해마다 한 작은 골목 왼편에 있는 중국 음식점 간판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음식 고르기 전문가이신 김PD님(김가현 선생님)과 승희 언니가 음식을 주문하였고 다양한 중국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우리는 커피를 하나씩 손에 들고 본격적으로 798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98의 거리를 걸으면서 여태까지 본 베이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서 다소 경직된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한다면 이곳은 유하고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맑은 하늘을 보아서 기분 탓이었는데 지도 모르지만 약간 우리나라의 삼청동과 비슷하다는 느낌과 동시에 붉은 벽돌의 건물들은 독일 거리를 연상케 해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798의 중심거리에는 값비싸 보이는 서양식 레스토랑과 카페가 거리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옷이나 액세서리 등 패션 관련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상점들과 갤러리, 큰 전시 모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고 날씨도 좋아 산책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출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리는 798의 주요 전시관을 위주로 둘러보았습니다.

## 승희의 이야기: 여유로움과 낭만의 거리와 만나다

베이징 수도박물관에서 불상구경을 마친 후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798 예술구로 향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 예술 작품들을 통해 미래의 중국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식사는 798 예술구 안에 있는 식당으로,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청나라 시대의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향해 가는 도중 798 곳곳에 식당과 카페테리아가 나타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심식사는 마치 전시관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복도에 빼곡하게 걸려 있던 그림들이 798 예술구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798 예술구의 골목길 사이사이에서 배어나오는 여유로움과 낭만이 느껴집니다. 골목길을 걷기만 해도 수많은 설치 예술품들이 두 눈에 가득 들어옵니다. 무료 전시관도 많고, 유료인 곳도 있는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은 UCCA라는 유료 전시관입니다.

## 민걸의 이야기: 미래(未來)를 품은 미학(美學)

2014년 베이징과 사랑방의 2박 3일 간의 만남이 어느덧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무렵, 우리는 중국의 현대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798 예술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장시간 차를 타고 추운데 걸어 다닌다고 몸이 힘들었던 지난 답사의 기억을 우아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씻어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 급급한 이성과 논리에서 나아가 좀 더 길고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우리의 시야를 미래를 향한 ‘미학’(美學)의 영역으로 넓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래’(未來),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앞날이 어떠한 모습일지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내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가장 공통된 관심이며, 본능이며, 욕구일 것입니다.

하영선 선생님과 함께 지난 한 학기 동안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될 사랑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변환: 고대 천하질서에서 현대 복합질서까지’라는 문제의식 아래 21세기 지구촌의 핵심 주역으로 떠오른 중국이 그리는 세계·국제·지역질서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영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미래 설계도’에 무엇이 담겨있고 빠져있는지를 훑쳐보기 위해서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저명한 학자들이 쓴 글을 유심히 읽으면서, 그 속뜻이 무엇일지 헤아렸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수치를 분석하는 공부만으로 과연 중국을 포함한 21세기 세계정치, 국제정치, 지역정치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 충분할까요?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경제적으로 번성하면서 문화



적으로 융성한 국가가 21세기의 세계를 선도할 주인공이 될 것이기에 어느 국가의 미래상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경제력만큼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태껏 말과 글에 담긴 뜻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다양한 형상과 색상의 예술작품이 가득한 798 예술구는 자유분방한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올라타서 중국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느끼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과거보다 확실히 강성하고 번성해진 중국이 과연 다가오는 앞날에 세계를 사로잡을 정도로 융성한 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 UCCA에서 생긴 일

798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尤倫斯当代藝術中心) 전시관을 관람했습니다. 798의 중심부에 위치한 UCCA 아트센터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독립적인 전시관으로 2007년 벨기에의 올렌 부부(Guy Ullens and Myriam Ullens)가 세웠습니다. 중국 예술을 발전시키고 예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작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다양하고 창조적인 작품세계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품 중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습니다.



### 유정의 이야기: UCCA에서 엿본 중국의 상상력

예술인들의 민감한 감각과 작품에 표현된 폭넓은 감성은 언제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잊고 살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소위 ‘짜퉁’이라고 하는 모조품의 천국 정도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과연 798 예술구에서 그 편견을 깰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많은 갤러리들을 두루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UCCA의 작품들은 한국에서 관람했던 현대미술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쳐진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직접 작품 위를 걸어보고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참여형’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순히 설치에 그치지 않고 관객과 함께 작품을 완성해 나가려는 작가의 시도가 느껴져 상당히 재미있게 관람하였습니다. 관객들이 작품 위 또는 작품 사이의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마치 작품의

일환이 되는 것만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시된 작품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파격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생각을 작품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며 전시된 작품들을 평가절하할 의도는 없지만, 기존의 사고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서구 중심의 예술계에서 상대적으로 변방에 위치한 중국이 선도자의 역할은 아니지만 적어도 추종자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예술의 특성상, 그것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상상력이 과연 현대 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쉽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평가가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사고방

식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국가박물관이나 베이징수도박물관에서 보았던, 당대의 ‘문명의 표준’을 주도해 나갔던 도자기나 불상 등에 담겨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현대 중국은 아직 충분한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박물관에서는 자주 발견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오래 전부터 잘 사용해 온 것 같았습니다. 넓은 영토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던 경험은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의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21세기, 더 나아가서 22세기에는 어떤 문명의 표준을 제시할지, 어떤 상상력으로 세계를 향할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민걸의 이야기: 색상(色相)과 형상(形相)에 깃든 중국의 미래**

약 세 군데 가량 되는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오늘날 중국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체감할 수 있는 작품은 무엇일지 찾아봤습니다. 순수한 미학적 가치만으로 전시품을 바라보는 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나마 익숙한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치지 않는 예술적 소양을 가진 주제에 혼신의 영감을 불어넣어 색(色)을 칠하고 형(形)을 만들었을 예술가들을 미학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가운데, UCCA 전시실에 펼쳐진 어느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가와 작품의 이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무례를 범했지만, 이 작품의 색상과 형상에서 장차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발휘할 예술적 역량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빨강, 주황, 보라 등 밝고 따뜻한 느낌의 색상과 사랑, 평화, 행복 등 어휘의 배치가 길을 내는 형상이었습니다. 마치 다양한 꽃이 한데 어우러져 피어있는 길을 따라서 한가롭게 거닐 수 있는 정원을

묘사한 것 같았습니다. 한자 혹은 영어로 표기된 단어들은 대체로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서로 다투지 않고 어울려 지내는 ‘조화’(調和)의 뜻을 지녔습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압도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대신에 덕으로 다스리겠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철학이 깃들어있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은 폭력과 금력을 앞세우는 서구식 국제정치외교의 폐단에 대한 해법을 이미 오래 전에 지니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중국이 21세기 세계인들이 충분히 마음을 주고 사랑할 만큼 매력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가능성의 이면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 전통적 표현은 어쩌면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옛날대로 살면 다 잘 된다”라는 당위성을 소박하게 되풀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길은 과거의 반복과 현재의 지속이라는 함정을 피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예술적 상상력이 단순한 복고나 무분별한 모방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중국의 미래는 강성한 군사력과 번성한 경제력에 융성한 매력이 깃든 색상과 형상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수대 미술관, 베이징에서 한반도를 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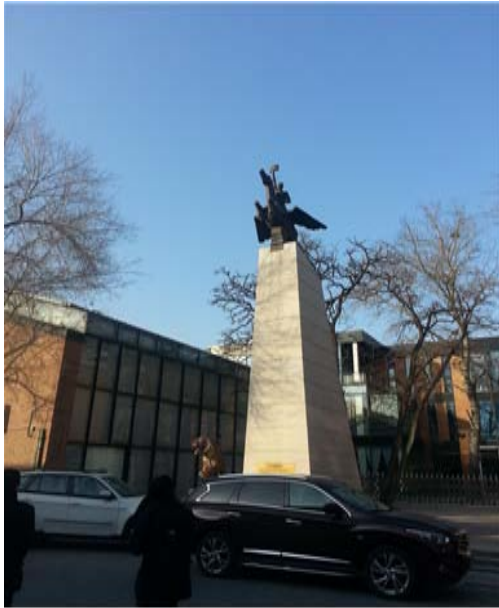


### 승희의 이야기

그 다음으로 방문했던 조선 만수대 그림 전시회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북한 그림은 웬지 친근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호랑이 그림들과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린 그림, 도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푸른빛이 감도는 청량하고 날이 서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시관 바로 앞에 전지현이 광고하는 중국 상품의 포스터를 발견하고서 또 한 번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국-북한-중국 삼자관계에서 느껴지는 반가움과 어색함을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 유정의 이야기: 그렇다면 북한의 상상력은?

북한은 늘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북한에 대해, 직접 그곳을 방문하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이처럼 전혀 다른 공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선만수대창작사미술관을 방문한 것 역시 한반도를 떠나 멀리 베이징에서 북한과의 만남을 하게 된 셈입니다. UCCA를 방문하면서 중국의 상상력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만한 문명의 표준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마찬가지로 만수대에서는 북한의 상상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술관 내부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벽면 가득 작품이 걸려있고 입구에 작은 기념품 판매대와 내부에 작품들을 쌓아놓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온통 선전문구가 가득한 작품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색채와 부드러운 감성을 담은 그림들도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재미있다고 느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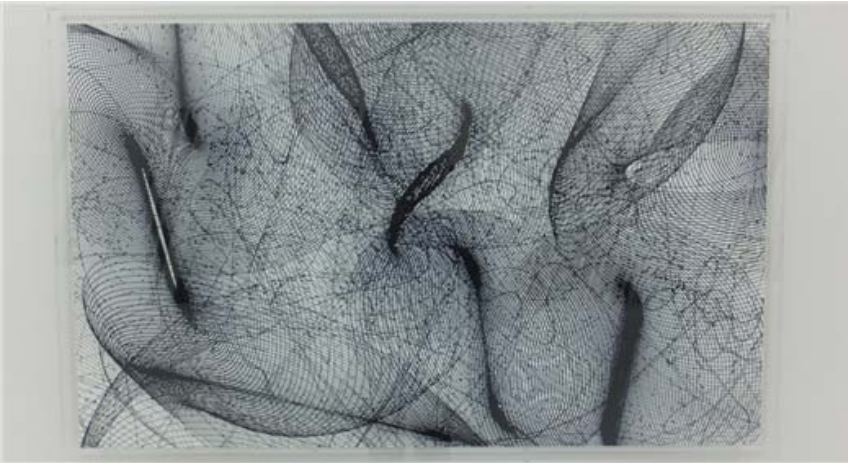


지점은 UCCA와는 달리 추상화는 단 한 점도 없었고, 모두 다 구체적인 형태와 색채를 표현한 구상화였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북한의 정치체제가 가진 경직성은 예술인들에게도 충분한 상상력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는 그보다 더 경직적이고 체제순응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질 생활기반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고의 기반도 다른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어울릴 수 있을지, 만약 통일을 지향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교류와 융합이 선행되어야 할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베이징에서 북한을 만나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의문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국가와 역사라는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고민도 유의미하지만, 때로는 일상 생활 수준의 실존적인 고민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만수대창작사미술관의 방문은 이러한 점에서 ‘북한 사람들과 직접 만난다면 어떨까?’하는 신선한 질문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 798에서 정말 중국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주원의 이야기: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는 장소로서의 798 예술구**  
이번 답사의 마지막 일정은 하영선 선생님과 함께 하는 798 예술구 답사였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발제가 끝나고 난 후여서 홀가분한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박물관에서 중국 천하질서의 시작과

전개를, 자금성과 유리창에서는 그 질서가 우리 역사와는 어떻게 얽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도박물관에서는 티베트 불상을 통해 청대의 복합통치질서를 엿보았다면, 원명원과 이화원에서는 천하질서와 서양 질서가 어울리는 변주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 마오쩌둥 기념당에서 현대 중국의 이미지를 감상한 우리는, 드디어 중국의 꿈과 미래를 조망해 볼 798 예술구로 향했습니다. 사랑방 네 번째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를 798 예술구로 이끌 안내자는 다름 아닌 하영선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소 사랑방 수업시간에도 하영선 선생님께서는 세계 질서의 변환이 찾아오기 전에, 그 전조는 예술에서부터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중국에서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전시된 이곳은 새로운 질서를 예지할 수 있는 장소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선생님을 따라 798 예술구를 둘러볼 수 있던 것은 정말이지 행운이라 할 수밖에요.



## 재성의 이야기: 798 예술구, 살아 숨 쉬는 공장



북경 시내에서 북경 공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다산즈 798예술구는 과거 냉전시대에 군수공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폐공장이 되었지만, 2002년부터 예술가들이 이 폐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버려진 철로나 녹슨 파이프 그리고 곰팡이로 변색된 시멘트 외벽 등에서 아직 까지도 옛 군수공장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798 예술구에서 예술 작품들을 한창 둘러보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 한편의 중국 영화가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2006년에 개봉한 《야연》(夜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당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5호 16국 시대가 도래하는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황제의 동생이 자신의 형을 죽이고 황위와 황후를 차지하고 태자를 암살하려는 내용입니다. 한편, 태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삼촌임을 깨닫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줄거리이지 않나요? 이 영화는 다름 아닌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영미문학의 대표격인 작품을 중국의 색채로 성공적으로 재해석해 낸 것입니다.



798 예술구도 영화 《야연》처럼 서구 예술과 문화를 중국적 색채를 가미하여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798 예술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 이곳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798 예술구는 베이징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베이징은 중국이 만든 하나의 세트장과 같은 곳입니다. 베이징의 중앙에는 자금성이 중국의 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맞은 편에는 모

택동 기념관과 인민영웅기념비가 중국의 근대역사와 이데올로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야 등장한 798 예술구는 현대 중국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기에 사라지지 않고 베이징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재탄생한 이곳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이데올로기라는 ‘정신’을 지탱하기 위하여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정신과 서구의 사상을 투입해 새로운 중국의 정신을 생산하는 공장이자 실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이 변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새로운 문명의 기준 생산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북경은 서구 유명 건축가들의 건축 실험장이었지만 2014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경에 더 이상 기괴한 건축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할 만큼 북경과 서구의 조합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798 예술구에서 이루어지는 중국다움과 서구사상의 조합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표현처럼 “기괴함”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중국의 새로운 정신을 찾아내는데 성공할 지는 앞으로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798 예술구, 변방에서 중심으로?

### 보람의 이야기

중국의 현대미술을 접한 첫 계기는 2013년 홍콩이었습니다. ‘탐욕’을 주제로 한 전시였는데,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란 화가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뻘한’ 비난의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소비를 향한 욕구’와 ‘이념의 모순’을 반영한 화가의 작품은 제가 생각하는 ‘소비’와 ‘정치’의 관계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798 예술구를 방문한다는 생각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젊은 중국의 화가들이 그려낸 중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들이 과연 어떤 담론을 펼쳐낼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에 눈 여겨 보고 있던 장샤오강(Zhang Xiaogang)과 왕광이(Wang Guangyi)의 도록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현대 미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현대 미술품은 그림 시장에서 소위 ‘잘 나가는’ 인기 상품입니다. 중국의 젊은 예술가들은 중국의 현대 미술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에 힘입어 798 예술구는 현대 예술의 중심부이자 세련된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798지구는 공장지구였습니다. 1950년대에 구 소련과 동독(East Germany)과의 기술 교류로 세워진 무기공장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만 해도 활발하게 생산 작업이 이뤄지던 곳에 쇠퇴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로, 1990년에 이르러서는 이곳의 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베이징 중앙예술학원이 버려진 공장부지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미술 전시의 공간이 된 이곳에는 낡은 고물 기계와 붉은 페인트로 쓰여진 사회주의의 슬로건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술이란 ‘(재)해석 속의 창조’라고 말해 주듯 말입니다.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세련된’ 모습에 사실 약간 실망했습니다. 크고 작은 미술관들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었는데, 미술관보다 더



세련된 레스토랑과 커피숍, 공방 등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곳에 들어가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될 점심을 먹고 우아하게 커피를 한잔씩 들고 미술관들을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愜은 예술과 힘(power)의 다양한 면과 상호관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민족·인민영웅화가 그대로 실현되어 있는 만수대의 북한미술에서부터 UCCA 아트센터의 화가의 행위 예술(즉 ‘관람을 위한 미술’)에서 한걸음 더 나간 관람객이 직접 예술 속에 들어가 ‘주체’가 되는 참여 예술(즉 ‘재창조의 미술’)까지 다양한 예술의 탄생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발 앞서있으며 동시에 한발 뒤쳐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기에 젊은 중국 화가들이 고전하던 ‘역사의 문제’가 798의 화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인들이 겪었던 역사에서 ‘탈피’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일지, 아니면 역사를 ‘묻어두고자 하는’ 기억 상실의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좀 더 모던하게 표현되고 있는 향상을 제가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결국 또다시 의문을 안고 798 예술구 탐방을 마쳤습니다. 품에 그리고 갖고 싶던 장샤오강의 도록을 안고 돌아오면서, 과연 예술의 선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중국이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선경의 이야기

UCCA 외에 우리가 관람한 다른 전시관들도 다양한 장르와 소재들을 주제로 한 현대적인 미술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798의 전시관을 구경하고 거리를 거닐면서 앞서 보았던 베이징의 관광명소와는 대조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리창, 자금성, 이화원, 원명원, 수도박물관과 국가박물관이 전통적인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오 기념관이 근대 중국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 798 예술구에는 현대적이고 모던한 중국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구의 곳곳에는 앞



으로 있을 국제 전시, 예술 행사,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길거리에는 그래피티 아트와 춤추는 사람들 등 자유로운 베이징의 풍경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답사한 국가박물관, 자금성, 이화원, 원명원, 수도박물관 그

리고 마오쩌둥 기념관이 지금까지 중국이 걸어온 역사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798은 새로운 중국,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수 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중국이 19세기 서양과의 문명 충돌에서 패배하며 쇠망을 겪지만 냉전 이후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사회와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은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798 예술구의 모습과도 많이 흡사했습니다. 798 예술구는 세계화의 흐름을 받아들여 자신의 문명, 문화, 그리고 역사를 간직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중국만의 독특한 색깔로 세계의 판을 다시 한 번 바꾸려는 중국의 야심이 엿보이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볼거리가 많아 예술구를 더 둘러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풀려서인지 피곤했던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 승희의 이야기

만수대 전시관 맞은편에서도 흥미로운 비디오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있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시간을 거꾸로 가며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매력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하고 자꾸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비슷한 과정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미 일어난 일

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추측해보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의문의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과정 속에서 관심이 증폭되고 생각지 못한 발견에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다지 놀랍지 않게 시작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상상력에 대해 애정과 놀라움을 가지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서점에 들러 다양한 작품들의 도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직접 보았던 작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후 6시 귀국 비행기 일정에 맞추어 798 예술구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철길 위에서 멋지게 단체사진을 찍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었습니다. 798 예술구는 방문할 때마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또 다시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간이 보다 활성화되어서 보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중국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 부록

- EAI 사랑방 2014년 2학기 프로그램
- EAI 후원회원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 고대천하에서 미래복합까지”

- 1주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
- 2주    천하질서의 기원 I
- 3주    천하질서의 형성
- 4주    천하질서의 전개
- 5주    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 6주    ‘금수’ 문명의 전파와 변용
- 7주    일본 대아시아주의의 신화
- 8주    냉전질서 I: 한국전쟁의 비극
- 9주    연구논문 중간발표
- 10주   냉전질서 II: 미중 데탕트와 7·4 남북공동성명의 명암
- 11주   복합질서 I: 중국의 부상
- 12주   복합질서 II: 미중시대의 미래
- 13주   복합질서 II: 동아시아신질서 건축의 미학
- 14주   연구논문 초고발표
- 15 주   베이징 답사 여행



사랑방의 *정인그들* 베이징을 품다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강명훈	김승빈	노봉일	선승훈
강은모	김시연	노호식	성정은
강찬수	김영구	노환길	손대현
강현욱	김영섭	류재희	손재키
고병희	김영원	명정모	송기춘
고승연	김용규	민선식	송우엽
고혜선	김용남	민선영	송지연
공성원	김 원	박근아	신동원
공정문	김유상	박미영	신명철
공창위	김유주	박사라수현	신보희
구상환	김은선	박상민	신상화
구윤정	김은영	박상용	신성수
구준서	김재두	박석원	신성호
권세린	김 정	박선정	신영준
김가현	김정섭	박성만	신영환
김건민	김정은	박수진	신준희
김경순	김정은	박연호	안용찬
김경지	김정하	박영택	안정구
김광덕	김 준	박용준	안중익
김국형	김지운	박장호	안현정
김기정	김지태	박재시	안현호
김기준	김 진	박정섭	양호실
김남희	김진영	박진원	엄찬섭
김대영	김진혁	박찬근	여동찬
김동건	김창수	박찬희	여현정
김동호	김태균	박창완	우미경
김만호	김한기	박형민	원종숙
김민규	김현성	배기욱	유승훈
김병국	김현전	배위섭	유재승
김병표	김형운	백송현	유정석
김병희	김형찬	백혜영	유지영
김봉하	김희정	서은숙	유창수
김상래	김희진	서정원	육은경
김수진	남운호	서희정	윤병석



윤영두  
윤용집  
윤우성  
윤재훈  
윤정림  
윤정선  
윤창민  
윤혜성  
이근우  
이기호  
이내영  
이동훈  
이미혜  
이민교  
이범주  
이봉재  
이상원  
이상훈  
이서현  
이선주  
이선희  
이성량  
이소민  
이숙중  
이승훈  
이시연  
이신화  
이여희  
이영석  
이영주  
이원종  
이인옥  
이재섭  
이정은

이정호  
이정희  
이종진  
이종호  
이주연  
이주연  
이중구  
이지원  
이지희  
이창원  
이 항  
이해완  
이현옥  
이현희  
이호준  
이홍구  
이홍재  
이희정  
임지순  
임현모  
임현진  
임홍재  
장동우  
장세린  
장세형  
장재훈  
장준혁  
장진호  
장희진  
전경수  
전명선  
전혜진  
정기용  
정량호

정병갑  
정석희  
정영진  
정용화  
정원철  
정윤석  
정윤희  
정재관  
정주연  
정진영  
정해일  
정현윤  
정현주  
정현철  
조규남  
조규완  
조동현  
조은희  
조현선  
주영아  
지혜리  
진선희  
진재욱  
차국린  
차동민  
채규민  
채규호  
최 건  
최규남  
최동규  
최병규  
최복대  
최종호  
최준원

최철원  
하형일  
한금현  
한상철  
한숙현  
한승혜  
한일봉  
한정원  
한지현  
허세홍  
홍성우  
홍성원  
홍호영  
황 수  
황정원  
황준호  
W1°

## EAI 출판

### EAI 외교안보

1.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2.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 예측과 리스크 분석
3.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4.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5.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6.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7.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8.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9. 위기와 복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0.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11. 미중관계2025
12. 하영선 국제정치칼럼 1991-2011 · 상
13. 하영선 국제정치칼럼 1991-2011 · 하
14.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15.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16.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복합과 공진
17.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억제, 관여, 신뢰의 복합 추진
18.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

### EAI 거버넌스연구

1.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2.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3.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4.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5.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6.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7.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8.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구상
9. 2013 대통령의 성공조건
10.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11.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 EAI 여론분석연구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 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8. 변화하는 한국유권자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 EAI 사랑방여행답사기

1.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2.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6.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7. *Future of North Korea 2032: Coevolutionary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비대품



9 791186 226872

ISBN 979-11-86226-87-2